

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Vol. 38 No. 3

라틴아메리카연구

Latin American Studies Association of Korea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2025

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Editor

Koo-Byoung Park (Department of History, Ajou University)

Managing Editor

Ho-Yoon Jung (Pukyong National University)

In-Hye Oh (Jeonbuk National University)

Editorial Board

Gian Luca Gardini (School of Business, Economics and Society, Friedrich-Alexander-Universität
ErlangenNürnberg)

Gioconda Herrera (Departamento de Sociología y Estudios de Género, FLACSO Ecuador)

Guillermo Salas-Carreño (Departamento Académico de Ciencias Sociales- Sección Antropología, Pontificia
Universidad Católica del Perú)

Hae-Sung Choe (Department of Hispanic Language &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Jie Guo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Peking University)

Jonathan Brown (Department of History,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Jung-Won Park (Department of Spanish, Kyung Hee University)

Junyoung Veronica Kim (Department of Hispanic Languages & Literatures, Univ. of Pittsburgh)

Mi-Jung Lee (Institute of Latin American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Nobuaki Hamaguchi (Research Institute for Economics and Business Administration, University of Kobe)

Sam-Gyo Oh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Uiduk University)

Sang-Sub Ha (Institute of Latin American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u-Jin Lim (Facult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s, University of Colima)

Suk-Kyun Woo (Institute of Latin Americ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ae-Kyoon Lim (Institute of Latin Americ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Yong-Seok Noh (Division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Young-Seok Kim (Department of Spanish and Latin American Studies, Keimyung University)

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 라틴아메리카연구 -

Vol. 38 No. 3

2025

Contents

Articles

- 001 페루 정치 불안정의 제도적 요인(2016-2025) 김유경
- 043 19세기 아르헨티나의 국민 국가 형성에 대한 비판적 분석: 포섭과 배제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손혜현
- 065 '통합된 집단'에서 '분화된 주체'로: 트럼프 시대 라티노 정치 재편의 구조적 요인 이은아
- 097 로베르토 볼라노의 『먼 별 Estrella distante』에 나타난 칠레 파시즘의 기원에 대한 탐구 정승희
- 119 마오와 그람시 사이에서: 리카르도 피글리아의 『가명』에 나타난 지식인과 대중 관계의 재고 최영균

Articles

페루 정치 불안정의 제도적 요인(2016-2025)

김유경*

전북대학교 스페인·중남미연구소

ABSTRACT

Institutional Factors of Political Instability in Peru (2016-2025): This study investigates Peru's severe political instability (2016-2025)—marked by six presidents and nine impeachment attempts—through institutional rather than economic or corruption-focused lenses. Using process tracing and comparative analysis, it applies a framework integrating three institutional dimensions: impeachment thresholds, party system institutionalization (PSI), and legislative fragmentation (ENP), synthesized into a Composite Risk Index (CRI). Analysis of four presidential cases reveals that weak party institutionalization, extreme legislative fragmentation, and a low impeachment threshold with ambiguous constitutional provisions interact multiplicatively to produce systematic instability. Each president faced relentless impeachment pressures regardless of ideology or strategy, demonstrating that institutional deficiencies override individual agency. The study concludes that without fundamental reforms—strengthening the party system, clarifying impeachment procedures, and implementing electoral reforms—Peru's crisis will persist. These findings underscore institutional design's critical role in democratic stability and offer actionable reform recommendations.

Keywords: Peru, political instability, party system institutionalization, legislative fragmentation, Composite Risk Index, path dependence

* Kim, You Kyoung. Institute of Spanish and Latin American Studies, Jeonbuk National University.

서론

2016년부터 2025년까지 페루는 6명의 대통령, 9번의 탄핵 시도, 4번의 탄핵 성공¹⁾이라는 전례 없는 정치 불안정을 경험했다. 대통령들의 평균 재임 기간은 약 28.25개월(2.35년)에 불과하며, 2025년 10월 볼루아르테 대통령이 124표 만장일치로 탄핵되면서 정치적 혼란은 극에 달했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경제 성과와 부패를 주요 설명 변수로 제시해 왔다²⁾. 그러나 페루의 정치 불안정은 2016-2020년 실질 GDP 성장률이 라틴아메리카 평균(1.8%)과 비슷한 2.1%였음에도(World Bank 2020), 부패인식지수(CPI)가 36점에서 38점으로 개선되었음에도³⁾ 지속되었다. 콜롬비아는 CPI 32점으로 페루보다 낮지만 정치적으로 훨씬 안정적이다. 이는 경제와 부패만으로는 페루의 반복적 불안정을 설명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페루 위기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중요한 통찰을 제공했으나, 다음과 같은 공통된 한계를 지닌다. Levitsky와 Zavaleta(2019)는 페루의 정치 위기를 분석하면서 오데브레히트(Odebrecht) 부패 스캔들과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스캔들이 탄핵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통령과 의회 간 갈등을 '부패한 정치 엘리트 간 권력 투쟁'으로 해석하며, 특히 쿠친스키와 비스카라의 탄핵 과정에서 부패 의혹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왜 동일한 부패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에서는 탄핵이 반복되지 않는지, 그리고 왜 페루에서는 9년간 9차례의 탄핵 시도와 4회의 대통령 교체가 발생했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Levitsky and Zavaleta 2019). Vergara와 Watanabe(2019)는 페루의 정당체계 약화와 포퓰리즘의 부상을 분석하며, 정당 제도화 수준이 낮아 '뿌리 없는 대통

1) 쿠친스키 전 대통령의 사임을 포함한 수치이다. '탄핵 시도'는 단순 제안이 아니라 의회에서 탄핵 절차 개시를 위한 표결이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로 정의한다. 예를 들어, 쿠친스키는 2017년 12월과 2018년 3월 두 차례 탄핵 표결을 받았으며(2회 시도), 비스카라는 2019년 9월과 2020년 11월 두 차례(2회), 카스티요는 2021년 11월, 2022년 3월, 2022년 12월 세 차례(3회), 볼루아르테는 2023년 3월과 2025년 10월 두 차례(2회) 탄핵 표결을 받았다. 총 9회의 탄핵 시도 중, 쿠친스키(사임), 비스카라, 카스티요, 볼루아르테의 네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사임했다(4회 성공).

2) Latin American Public Opinion Project(LAPOP)의 AmericasBarometer 조사 (2020-2023)에 따르면, 정치 만족도는 실업률, 인플레이션, 부패 인식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Moseley and Cordill, 2012; Power and Zucco, 2009). 특히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 신뢰도는 급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3) Transpar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Perceptions Index(2016-2020)

령들이 양산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당 기반이 약한 대통령들이 의회와의 협상 능력이 부족해 통치 위기에 직면한다고 주장했으나, 정당 약화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의회 파편화와 낮은 탄핵 문턱과 상호작용하여 반복적 탄핵을 초래하는지에 대한 제도적 메커니즘 분석은 제시하지 않았다(Vergara and Watanabe 2019). Crisis Group(2024)의 보고서는 페루의 정치 불안정을 사회경제적 불평등, 만연한 부패 인식, 정치적 양극화의 심화로 설명하며, 정치 신뢰의 붕괴가 제도적 위기를 야기했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정책 제안에서 반부패 개혁과 경제적 포용 정책을 강조했다, 선거제도·정당체계 제도화·탄핵 문턱 등 제도적 변수들이 경제적·문화적 요인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분석은 부재했다(Crisis Group 2024). Buben과 Kouba(2024)는 라틴아메리카 민주주의 위기를 비교 분석하며 브라질과 페루의 탄핵 사례를 다루었으나, 제도적 요인보다는 정치 엘리트 간 갈등과 대중 동원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들은 페루의 반복적 탄핵을 '약한 정당체계'의 결과로 지적했으나, 정당체계 약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적 경로를 통해 탄핵 빈도를 높이는지 분석하지 않았다(Buben and Kouba 2024).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페루 정치 불안정의 '결과적 현상'(부패, 경제 위기, 정치 신뢰 하락)을 잘 묘사하지만, '왜 동일한 부패·경제 위기에 페루에서만 반복적 탄핵이 발생하는가?'라는 핵심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 특히 선거제도, 정당체계 제도화 수준(PSI), 의회 파편화(ENP), 탄핵 문턱 등 제도적 변수들을 핵심 독립변수로 설정한 연구는 거의 없으며, 이들 제도적 변수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반복적 탄핵이라는 제도적 경로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체계적 분석은 부재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서 출발한다. '왜 페루는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 유사한 경제·사회적 조건 하에서도 유독 심각한 정치 불안정을 겪고 있는가?'

이에 본 연구는 페루의 정치 불안정에 대한 요인을 경제 성과와 부패 수준이 아니라 제도적 요인에서 찾고자 한다⁴⁾. 즉, 경제적 어려움과 부패는

4) George and Bennett(2005)의 과정추적(process tracing) 방법론에서, 배경 조건(background conditions)과 직접 원인(direct causes)의 구분이 강조되었다. 19-22 참조. Devarajan et al.(2003)는 경제 성과를 단기적·변동적 요인(cyclical factors)으로, 제도를 장기적·구조적 요인(structural factors)으로 구분했다. 또한 Cheibub and Limongi(2011)

정치 위기의 필요조건일 수 있으나, 반복적인 대통령 탄핵과 정치 불안정의 충분조건은 제도적 결합에 있음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역사적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경로의존성 개념을 중심으로 헌법 설계에서의 대통령-의회 관계, 정당체계 제도화 수준, 의회 파편화를 주요 설명변수로 설정했다. 나아가 이들 세 변수의 상호작용이 갖는 부정적 시너지 효과를 ‘복합위험지수(Composite Risk Index, CRI)’로 정량화하여 측정하고자 했다. 그리고 CRI가 갖는 방법론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쿠친스키, 비스카라, 카스티요, 볼루아르테 네 정부에 대한 체계적 비교와 경로 추적 분석을 통해 각각의 제도적 요인들이 반복적 정치 불안정으로 전환되는 메커니즘을 실증하고자 했다.

본 논문의 II장은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 III장은 제도적 요인 분석, IV장은 사례 분석과 비교, V장은 결론과 정책적 함의를 다룬다.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

제도의 중요성과 경로의존성

정치 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 제도의 역할은 핵심적이다. 제도는 "사회의 게임 규칙이며, 사회와 특히 경제의 인센티브 구조를 형성한다"(North 1990, 3).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제도의 장기적인 형성 과정과 우발적 사건의 중요성, 그리고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데(Hall and Taylor 1996), 이는 Pierson(2000)이 발전시킨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과 맞닿아 있다.

경로의존성은 "초기의 작은 사건이나 우연이 자기강화 메커니즘을 통해 특정 경로로 고착되는 현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 경로의존성은 초기 조건의 우연성과 자기강화 메커니즘이라는 핵심 요인에 의해 어떻게 초기 제도적 선택이 이후의 정치 발전 경로를 제약하는지, 왜 특정 제도가 비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지를 설명한다(Pierson 2000, 251-253). 따라

의 광범위한 비교 분석(1946-2008, 전 세계 192개국)에 따르면, 1인당 GDP를 통제한 후에도 대통령제의 정치적 안정성은 제도 설계의 차이에 의존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서 특정한 경로의존성의 전환은 특정 제도의 문제가 결정적 분기점(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헌법 개정이나 정권 전환과 같은 결정적 순간의 선택에 따르며, 이때의 선택은 이후 수십년 간의 정치적 안정성을 좌우하게 된다(Mahoney 2000).

대통령제와 정치 안정성

Linz(1990; 1994)는 대통령제가 의회제에 비해 구조적으로 민주주의 안정성에 불리하다고 주장하며 네 가지 핵심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통령제는 1) 이중 정당성, 2) 고정 임기의 경직성, 3) 승자독식 구조, 4) 취약한 연합 형성 때문에 안정적인 민주주의 작동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과 의회가 각각 독립적인 정치적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 의회의 정치적 견해가 다를 경우 심각한 갈등과 교착상태를 초래한다. 대통령제는 고정된 임기로 인해 위기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렵고 무능하거나 부패한 대통령을 제거하기 어렵다. 이는 역설적으로 탄핵이라는 극단적 수단을 유일한 해결책으로 만든다. 또한 대통령 선거는 제로섬 게임으로 승자가 모든 행정권을 독점하고 패자는 차기 선거까지 체제 내 역할이 제한된다. 이는 정치적 양극화를 조장하고, 패자가 민주적 규칙을 준수할 인센티브를 약화시킨다. 대통령은 이미 선거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의회 내 연합 형성에 대한 동기가 약하며, 야당 역시 차기 대선을 위해 대통령과 거리를 두려 한다(Linz 1990, 52-64).

Linz의 주장에 대하여 Cheibub와 Limongi는 대통령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제가 작동하는 맥락이 중요하다고 반박했다(Cheibub and Limongi 2011, 220-225). Cheibub(2007)는 1946년부터 2008년까지 세계 모든 민주주의 국가를 분석한 결과, 대통령제 자체가 민주주의 붕괴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대통령제 국가들의 민주주의 생존율이 낮은 것은 제도 자체 때문이 아니라 경제적 저발전, 군부의 정치 개입 전통, 약한 정당 제도화 등 맥락적 요인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대통령제 내에서도 '연합정부 형성 능력', '효과적인 정당 시스템', '제도적 견제 장치' 등이 갖춰지면 안정적 민주주의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치 불안정의 제도적 요인

Cheibub의 주장은 후속 연구들에서 구체적인 제도 변수들로 정교화되었다. 이로부터 대통령제와 민주주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핵심적인 제도적 차원-헌법적 차원, 정당 차원, 의회 차원-을 도출할 수 있었다.

1) 헌법적 차원: 탄핵 제도

헌법적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탄핵 문턱(impeachment threshold)'⁵⁾이다. Pérez-Liñán(2007)은 라틴아메리카 18개국의 탄핵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탄핵 문턱과 정치 불안정 간의 체계적 관계를 밝혔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탄핵 요건이 낮을수록(필요 의석 비율이 낮을수록)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할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탄핵 문턱이 낮으면 야당 의원들이 탄핵을 '실행가능한 전략'으로 인식하며 실제로도 높은 문턱(예: 2/3 이상)에서는 초당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낮은 문턱(예: 60% 미만)에서는 야당 연합만으로도 탄핵이 가능하다. 탄핵이 쉬워지면 정책 불일치나 작은 스캔들도 탄핵 사유로 정치화된다. 지속적인 탄핵 위협은 대통령의 정책 추진력과 협상력을 약화시킨다. 이는 다시 정부 효과성 저하로 이어져 추가적인 탄핵 압력을 낳는 악순환을 형성한다.

Hochstetler(2006)는 여기에 '탄핵 사유의 모호성'이라는 추가 변수를 제시한다. 헌법상 탄핵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으면 의회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커지기 때문이다.

2) 정당 차원: 정당 제도화

Mainwaring과 Scully(1995)는 정당 시스템의 제도화 수준이 대통령제가 안정적인 민주주의를 유지하게 하는 핵심적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정당 시스템의 제도화는 정당 간 경쟁의 안정성, 정당의 사회적

5) 페루 헌법 제113조는 대통령 탄핵을 위한 의결 정족수를 재적 2/3(66.9%)로 규정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대통령 탄핵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를 '탄핵 문턱(impeachment threshold)'으로 지칭한다.

기반, 정당의 정당성, 정당 조직의 강도로 측정된다.⁶⁾ 이후에 Mainwaring(1999)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정당 제도화 지수(Party System Institutionalization Index, PSI)'를 산출하여 낮은 제도화가 대통령-의회 갈등을 심화시킨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3) 의회 차원: 의회 파편화

의회 내 정당 수가 많을수록(정당 파편화가 심할수록) 안정적 연립 구성이 어려워진다. 의회 파편화는 주로 '유효 정당수(Effective Number of Parties, ENP)'로 측정된다.

한편, Mainwaring과 Shugart(1997)는 '어려운 조합(difficult combination)'의 경우를 제시했다. 그들은 대통령제가 다당제와 결합할 때, 안정적인 민주주의에 특히 해롭다고 주장한다. 대통령이 의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예산을 확보하려면 최소한 단순 과반, 많은 경우 특별 다수(2/3)가 필요하다. 그러나 다당제, 특히 극단적으로 파편화된 정당 시스템에서는 단일 정당이 과반을 확보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이는 대통령이 다당 연합을 형성해야 함을 의미한다. 문제는 Linz(1990)가 지적한 바와 같이, 대통령제에서는 연합 형성이 의회제보다 훨씬 어렵다는 것이다. 의회제에서는 연합이 무너지면 정부가 교체되지만 의회는 유지된다. 따라서 정당들은 연합을 유지할 인센티브가 있다. 반면 대통령제에서는 연합이 무너져도 대통령은 임기가 보장되므로, 정당들은 연합을 이탈할 유인이 크다. 또한 야당들은 차기 대선을 위해 대통령과 거리를 두려 하므로, 연합에 참여

6) 정당 시스템의 제도화(PSI)는 Mainwaring and Scully가 개발한 지수로, 0-10의 척도에서 4가지 차원으로 측정된다: (1) 선거 경쟁의 안정성, (2) 정당의 사회적 뿌리, (3) 정당과 선거의 정당성, (4) 정당 조직의 견고성. 수치가 높을수록 제도화 되어 있다(Mainwaring and Scully 1995, 1-4). 정당 간 경쟁의 안정성은 주요 정당들이 선거마다 일관되게 출현하는 정도를 뜻한다. 이는 Pedersen 지수로 측정되며, 낮은 값은 안정적 경쟁 구조를 의미한다. 정당의 사회적 기반은 정당과 유권자 간의 안정적 연계이다. 강한 기반을 가진 정당일수록 단계적 인기 변동에 덜 취약하다. 정당의 정당성은 시민들이 정당을 민주주의의 필수 제도로 인정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정당 조직의 강도는 정당 내부의 조직력과 규율을 보여주며, 정당 조직이 약하면 의원들의 이탈과 배신의 빈도가 높다(Mainwaring and Scully 1995, 4-8). 본 연구에서는 PSI를 동적으로 계산하기 위해 Pedersen 지수를 활용했다. 페더슨 지수(Pedersen Index)는 연속된 두 선거 사이의 정당별 득표율(또는 의석률) 변동의 합을 2로 나눈 값이다: 페더슨 지수 = $\sum |V_{i,t} - V_{i,t-1}| / 2$ (V 는 각 정당의 득표율 또는 의석률). 값이 클수록 정당 시스템이 불안정하다.

할 동기가 약하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제 + 다당제 + 의회 파편화의 조합은 입법적 교착상태(*legislative gridlock*) 가능성을 극대화한다. 만일 대통령이 다수 연합 형성에 실패하면 입법이 마비되고 정책 교착이 발생하며 이는 정치적 위기로 이어지게 된다(Mainwaring and Shugart 1997, 394-439).

Neto(2002)는 ENP와 내각 안정성의 관계를 분석하여 ENP 5 이상에서는 연립정부의 평균 수명이 급격히 감소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는 대통령제에서 '안정적 통치의 임계점(*threshold of governability*)'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제도적 요인들의 상호작용과 복합적 효과

최근의 신제도주의 연구들은 개별 제도의 독립적 효과를 넘어 제도 간 상호작용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Negretto(2006)는 동일한 제도라도 다른 제도와의 조합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토한 세 가지 제도적 차원 또한 서로의 조합에 따라 서로를 증폭하거나 완화하는 복합적인 효과를 낳는다. 만일 Mainwaring이 지적한 것처럼 어려운 조합 즉, 세 가지 불리한 조건이 동시에 존재하면 '제도적 악순환'이 형성된다. 즉, 탄핵 문턱이 하락하면 의회가 탄핵을 일상적 정치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한다. 탄핵 위협이 상시화되면 소수정당들이 탄핵 찬반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 하게 된다. 이는 정당의 난립을 부추길 수 있다. 빈번한 탄핵과 정당의 이합집산은 정당 정체성을 훼손하고 이는 정당 제도화 수준을 약화시킨다. 약한 정당 시스템 제도화는 다시 의회의 예측 불가능성을 높이고 또다시 탄핵을 시도하는 악순환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헌법적 차원(대통령-의회 관계에서 도출된 탄핵 문턱), 정당 차원(정당 시스템의 제도화), 의회 차원(의회 파편화)의 상호작용이 갖는 복합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복합위험지수(Composite Risk Index, CRI)⁷⁾를 활용했다. CRI는 세 가지 제도적 위험 요인을 곱하여 산출한 통합

7) 복합위험지수(CRI)는 탄핵 문턱의 역수, 정당 시스템 제도화 지수(PSI)의 역수, 유효정당수(ENP)를 조합하여 제도적 불안정성을 측정하는 지수이다. 공식: $CRI = [(1/\text{탄핵 문턱}) \times (1/PSI) \times ENP] \times 100$. 수치가 높을수록 제도적 위험이 크다. 이는 Cheibub(2007)의 제도적 조건론과 Mainwaring and Shugart(1997)의 다당제 이론을 통합한 조작 정의에

지표이다. CRI는 정치 시스템 내 불안정 요인들이 어떻게 결합되어 시스템 전체의 취약성을 형성하는지 보여준다.

CRI의 한계 및 보완 방안

CRI는 제도적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정량화하는 유용한 도구지만, 몇 가지 방법론적 한계를 갖는다. 첫째, 제도의 질적 전환점(예: 초과편화 단계)을 수치만으로 완전히 포착하기 어렵다. 둘째, 실제 정치 과정의 비선형적 상호작용과 임계점 효과를 반영하지 못한다. 셋째, 대통령의 정치적 기술행위자 수준 변수를 포함하지 않는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과정 추적(process tracing), 제도 변수 상호작용 패턴 분석, 비교 사례 분석 등의 방법론적 전략을 병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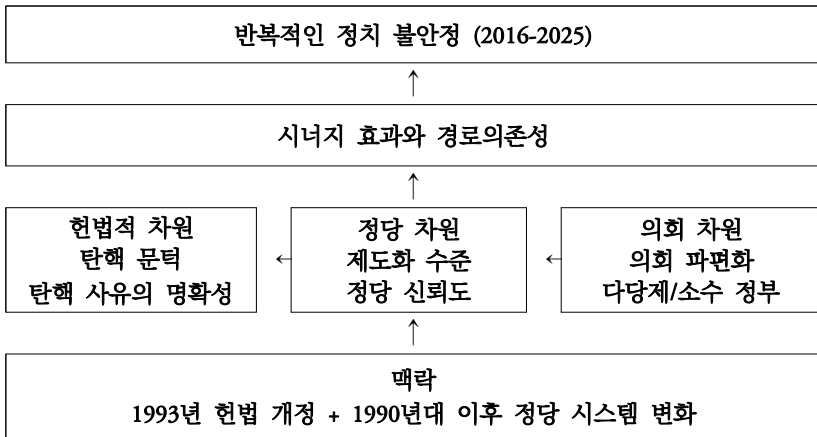


그림 1. 정치 불안정과 제도적 요인 간 상호작용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의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도출된 그림 1의 분석틀을 적용해서, 페루의 정치 불안정을 설명하는 세 가지 제도적 요인의 구체적 작동 방식과 이들의 상호작용이 페루 정치 불안정의 구조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것이다.

따라 저자가 고안한 지수이다.

제도적 요인 분석: 페루 사례 적용

헌법적 차원: 준대통령적 헌법 설계의 문제

1) 약한 대통령-강한 의회의 역설

페루 1993년 헌법의 권력 구조는 Shugart와 Carey(1992)의 분석틀에서 "모순적 혼합형(contradictory hybrid)"으로 분류된다. 형식적으로는 긴급명령권(Article 118.19), 내각 임명권, 조건부 의회 해산권(Article 134) 등을 통해 중강도 대통령제로 보이지만, Article 113의 *vacancia* 조항이 낮은 수준의 탄핵 문턱(66.9%)과 모호한 사유("도덕적 무능력")를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의회 우위 체제로 작동한다. 이는 대통령의 '입법적 권한'과 '비입법적 권한' 사이의 극심한 불일치 즉, 제약적 대통령의 유산과 의회 우위의 현실 사이의 괴리가 있음을 시사한다.

1993년 헌법의 권력 구조는 학술적 논쟁의 주요 쟁점이었다. Cameron(1998)은 1993년 헌법의 권력 구조를 '초대통령제(hyper-presidentialism)'로 평가한 반면(Cameron 1998, 132), Pérez-Liñán(2007)은 '지역에서 가장 약한 대통령 보호 장치'로 반박했다(Pérez-Liñán 2007, 136-137). 이러한 학술적 논쟁은 제도 설계의 내재적 모순을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헌법 문서상의 권한을 보면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2016-2025년 기간 동안 9회의 탄핵 시도와 4회의 성공은 약한 대통령-강한 의회 구조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은 1993년 헌법에 나타난 대통령-의회 관계를 해석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지적을 고려했다. Shugart와 Carey에 따르면, "일부 헌법들은 대통령이 상당한 선제적 권한을 보유하지만 의회의 침해에 대한 반응적 방어 수단은 결여하고 있는 모순적 인센티브를 창출한다"(Shugart and Carey 1992, 25). 특히 "1993년 헌법은 후지모리 재임 기간 동안 그의 개인적 권력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으나, 의도치 않게 그의 퇴장 이후 폭발할 제도적 지뢰를 설치하게 되었다"(Levitsky and Cameron

2003, 19-20)는 지적은 본 논문에서 활용한 CRI가 유의미함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해준다. 후지모리의 집권기에는 그의 권한을 강화했던 헌법 조항들이 이후 정당 시스템의 붕괴 및 의회 파편화라는 두 가지 조건과 결합하면서 오히려 대통령의 의회에 대한 우위가 뒤집히는 역설적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2) 낮은 탄핵 문턱과 모호한 탄핵 사유

페루 헌법 제113조는 대통령직 공석(vacancia)의 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La Presidencia de la República vaca por: ... 2. Su permanente incapacidad moral o física, declarada por el Congreso(공화국 대통령직은 다음의 경우 공석이 된다: ... 2. 의회가 선언하는 영구적 도덕적 또는 신체적 무능력)"

헌법 제113조항이 가진 제도적 문제점은 대통령 탄핵 사유가 매우 모호하다는 점이다. 특히 '도덕적 무능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헌법에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부패 혐의, 정치적 무능력, 심지어 의회와의 정책 차이까지 모두 '도덕적 무능력'으로 해석할 수 있다. 비스카라, 카스티요, 볼루아르테까지 2016년 이후 페루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모두 대통령의 '도덕적 무능력'이었으나 실질적인 사유는 상이했다. 이렇듯 모호한 탄핵 사유는 의회가 구체적인 범죄의 입증 없이도 정치적 동기만으로 헌법에 기반한 탄핵이 가능하게끔 함으로써 정치적 무기화의 명분이 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모호한 탄핵 사유와 더불어 페루의 낮은 탄핵 문턱은 대통령 탄핵을 더욱 쉽게 만드는 요인이다. 페루 헌법에 따르면 탄핵을 위해 필요한 의결 정족수는 130명 의원의 2/3에 해당하는 87명의 찬성(66.9%)이다⁸⁾. 페루의 탄핵 문턱(66.9%)은 브라질(66.7%), 에콰도르(66.7%)와 유사하나, '도덕적 무능력'이라는 모호한 탄핵 사유가 페루에만 존재하여 실질적 탄핵 문턱을 낮춘다.

8) 130명 의원 중 87명. $87/130 = 0.669 = 66.9\%$

표 1. 라틴아메리카 주요국 헌법상 대통령 탄핵 제도 비교

국가	의회 구조	탄핵 정족수	탄핵 절차	사법적 견제
페루	단원제	2/3(66.9%)	단일 의회	
브라질	양원제	하원 2/3, 상원 2/3	하원 소추+상원 심판	대법원장 주재
칠레	양원제	하원 과반, 상원 2/3	하원 소추+상원 심판	대법원 관여
콜롬비아	양원제	하원 과반, 상원 2/3	하원 소추+상원 심판	대법원 관여
아르헨티나	양원제	하원 2/3, 상원 2/3	하원 소추+상원 심판	대법원 관여
에콰도르	단원제	2/3	단일 의회	헌법재판소

출처: Llanos and Marsteintredet(2023), pp. 152-160(페루), pp. 160-187(비교국); Pérez-Liñán(2007), pp. 45-68, 136-137.

3) 단원제와 사법 심사의 부재

페루는 단원제 의회를 채택하고 있어 의회의 탄핵 결정에 대한 다른 기관의 견제가 부재하다. 일반적으로 양원제를 채택한 국가들에서는 하원이 탄핵 소추를 하고 상원이 탄핵 심판을 하여 두 개의 독립적인 의회가 각각 견제하는 구조를 보인다. 또한 탄핵 절차에서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가 관여하여 사법적 견제를 추가한다. 그러나 페루는 단원제이기 때문에 단일 의회가 탄핵의 소추와 결정 표결을 모두 담당하며, 의회가 최종 판단자이다.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또는 상원과 같이 의회의 결정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과 절차 자체가 부재하다. 이러한 절차적 견제 장치의 부재는 페루의 실질적 탄핵 문턱을 수치상 비율보다 훨씬 낮게 만든다.

정당 차원: 정당 시스템 제도화의 붕괴와 최저치의 정당 신뢰도

1) 정당 시스템 제도화의 붕괴: 낮은 PSI 값

Mainwaring과 Scully(1995)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정당 시스템 제도화 수준을 크게 세 부류로 구분했다. 첫째, '제도화된 정당 시스템 (institutionalized)'으로 칠레, 우루과이, 코스타리카, 콜롬비아가 여기에 속한다. 둘째, '약한 정당 시스템(inchoate)'으로 브라질, 에콰도르, 볼리비아가 해당한다. 셋째, '미형성/유동적 정당 시스템(fluid/nascent)'으로 페루와 베네수엘라가 이 범주에 속한다.

표 2. 페루의 4개 차원 PSI, 2020년대 평균
(선거안정성+사회적뿌리+정당성+조직견고성/4)

차원	측정 지표	계산 공식	점수 (0-10)	중남미 평균 ¹	격차	순위 (18개국)
선거 안정성	Pedersen 지수 역수	$(100-P)/10$	1.6	6.8	-5.2	18위 (최하)
사회적 뿌리	정당 일체감	일체감(%)/10	1.2	5.5	-4.3	18위 (최하)
정당 정당성	신뢰도 지표	$[(B21+B13+DEM2)/3]/10$	1.9	5.1	-3.2	18위 (최하)
조직 견고성	질적 평가	질적→정량 변환	2.0	5.8	-3.8	17-18위
PSI 종합	4차원 평균	산술평균	1.7	5.8	-4.1	18위 (최하)

출처: Pedersen(1979); Mainwaring and Bizzarro(2021); LAPOP(2023)

페루는 미형성/유동적 정당 시스템을 가진 국가로 분류되며, '정당 간 경쟁이 극도로 불안정하고, 정당-유권자 연계가 약하며, 정당이 정당성을 결여하고, 조직이 개인 중심적인 체계'를 보인다.

이후 Mainwaring과 Bizzarro(2021)는 정당 시스템의 제도화를 측정하는 네 가지 요소 즉, 선거 안정성, 사회적 뿌리, 정당 정당성, 조직 견고성을

종합한 4개 차원 정당 시스템 제도화 수준(PSI) 지수를 개발했다. 페루의 4개 차원 PSI와 4개 차원 지표는 표 2와 같다.

페루의 PSI 1.7은 라틴아메리카 18개국 중 최하위이며, 네 가지 차원 모두에서 최하위권에 속한다. 즉, 페루는 사실상 정당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2) 정당의 취약성과 정당 간 경쟁의 불안정성: 높은 페데슨 지수(Pedersen Index)값

정당 간 경쟁의 안정성은 주로 페데슨 지수(Pedersen Index)로 측정된다. 페데슨 지수는 연속된 두 선거 사이에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의 변화를 합산하여 2로 나눈 값으로 선거 변동성을 측정한다. 수치가 높을수록 정당 시스템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 페루 주요 정당별 변화 (2016-2021)

정당	2011 득표율(%)	2016 득표율(%)	2020 득표율(%)	2021 득표율(%)
Fuerza Popular	23.6	36.3	7.3	11.3
APRA	6.4	4.8	-	-
Acción Popular	-	5.4	10.3	9.0
Alliance for Progress	-	7.2	8.0	7.5

출처: JNE 공식 통계 보고서(2011); JNE Resolución 0660-2016-JNE, ONPE 100% 집계 (2016); ONPE 100% 집계, JNE 최종 확정(2020); JNE Resolución 0602-2021-JNE(2021)을 토대로 저자 작성.

표 3과 표 4는 페루 주요 정당들이 2011년 선거에서부터 2021년 선거까지 얻은 득표율과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페데슨 지수를 보여준다. 이를 통해, 페루 정당들의 취약성과 정당 시스템 내에서 정당들간 선거 경쟁 안정성이 어느 정도로 붕괴했는지를 보여준다. 4번의 선거에서 의미있는 득표를 얻은 주요 정당은 Fuerza Popular가 유일할 정도로 매 선거마다 페루의 기존 정당들은 의회에 진입하지 못하는 표를 얻어 소멸되거나 새롭게 부각

되기도 했으며, 이외에 신생 정당이 한 번의 선거에 등장했다가 다음 선거에서 사라지는 경우도 많았다.

표 4. 페루 선거별 페더슨 지수 추이(2011-2021)

선거 연도	페더슨 지수	설명
2011-2016	55.0	높은 변동성 지속
2016-2020	70.0	극도로 높은 변동성과 전체 정당 구도 재편
2020-2021	45.0	여전히 높은 변동성
구조적 평균	56.7	일부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높음

출처: ONPE, 2011/2016/2020/2021 Peruvian election data.

표 5. 선거별 정당 시스템 제도화 수준(PSI 지수)

시점	페더슨 지수	선거 안정성 점수*	PSI (시점별)**	정치적 상황
2016	55	$(100-55)/10 = 4.5$	2.4	쿠친스키 소수정부 출범
2020	70	$(100-70)/10 = 3.0$	2.1	비스카라 시기 극단적 파편화
2021	45	$(100-45)/10 = 5.5$	2.7	카스티요/볼루아르테 시기
평균 (구조적)	56.7	$(100-56.7)/10 = 4.3$	2.4	2011-2021 전체

출처: 모든 득표율은 JNE/ONPE 공식 집계 기준. Pedersen 지수 계산은 Pedersen(1979)의 원공식.

*선거 안정성 점수 = $(100 - \text{Pedersen Index}) / 10$.

** PSI (시점별) = $(\text{선거안정성} + 1.2 + 1.9 + 2.0) / 4$. 나머지 3개 차원(사회적 뿌리 1.2, 정당 정당성 1.9, 조직 견고성 2.0)은 상수

표 3에 활용된 데이터들로 정당의 선거득표율 변동을 계산한 페더슨 지수(표 4)를 선거별로 계산한 PSI 지수는 표 5⁹⁾와 같다.

9) 본 연구는 PSI를 동적으로 계산하기 위해 표 5와 같이 선거별 페더슨 지수를 기반으로 선거 안정성 점수를 재계산했다. 2016-2021년 평균 페더슨 지수 56.7%로부터 도출된 선거 안정성 점수는 4.3이며, 이를 포함한 구조적 PSI는 2.4로 산출되었다. 이는 표 2에서 Mainwaring and Bizzarro(2021)가 제시한 2020년대 평균 PSI 1.7보다 다소 높은 값이다. 이러한 차이는 선거 안정성 측정 방법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Mainwaring의 PSI 1.7은

Mainwaring과 Scully(1995) 및 Mainwaring과 Bizzarro(2021)에 따르면, 이러한 수치는 매우 낮은(사실상 붕괴 직전에 이르는) 정당 시스템 제도화를 의미한다.

3) 정당 신뢰도 하락과 반정당 정서: PSI의 3번째 차원

정당의 정당성(Party Legitimacy)은 PSI의 세 번째 차원으로, 유권자들이 정당을 민주주의의 필수 제도로 인정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LAPOP(Latin American Public Opinion Project) 2023년 설문조사 결과는 페루 국민들의 정당에 대한 극단적 불신을 보여준다. 표 6의 데이터는 페루가 표 2에서 확인한 정당 정당성 점수 1.9(라틴아메리카 18개국 중 최하위)의 구체적 내용을 보여준다.

표 6. 페루의 정당 및 대의기관 신뢰도

질문 항목	페루 응답 (%)	라틴아메리카 평균 (%)	페루 순위 (18개국)	해석
정당을 신뢰하는가?	4.2%	22.8%	18위 (최하위)	극단적 정당 불신
의회를 신뢰하는가?	9.1%	31.5%	18위 (최하위)	대의기관 정당성 붕괴
정당 없이 민주주의 가능한가?	78.3%	42.1%	1위 (최고)	반정당 정서 극대화
정당은 필요한가:(정당은 필요악인가?)	81.7%	53.4%	1위	반정당 정서 극대화

출처: LAPOP(2023)

페루 국민의 78.3%는 "정당 없이도 민주주의가 가능하다"고 응답했으며, 81.7%는 "정당은 필요악일 뿐"이라는 반정당 정서를 표출했다. 이는 라틴아메리카 18개국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정당 신뢰도 4.2%와 의회

2006-2020년 전체 기간의 구조적 평균을 반영하여 선거 안정성 점수 1.6을 사용한 반면, 본 연구의 PSI 2.4는 2016-2021년 선거별 페더슨 지수를 직접 계산하여 도출한 선거 안정성 점수 4.3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후 분석에서 PSI 2.4를 사용하나, 두 값 모두 페루 정당 시스템의 극단적 저제도화 상태를 확인시켜 주는 것에는 동일하다.

신뢰도 9.1%는 라틴아메리카 평균(22.8%, 31.5%)과 비교하면 각각 18.6%p, 22.4%p 낮아 대의 민주주의의 정당성이 붕괴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극단적 불신은 표 2의 정당 정당성 점수 1.9가 라틴아메리카 평균 5.1보다 3.2점 낮은 원인을 설명한다.

4) 정당 조직의 약화와 'transfuguismo': PSI의 4번째 차원

정당 조직의 견고성은 PSI의 네 번째 차원으로, 정당이 구조화된 조직과 규율을 갖추고 있는지를 측정한다. 페루 정당 조직의 약화는 'transfuguismo(당적 이탈)'라는 극단적 현상으로 나타났다.

Transfuguismo는 의원들이 당선 이후 소속 정당을 이탈하여 다른 정당으로 옮기거나 무소속이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2016-2021년 기간 동안 페루 의회에서는 130명 의원 중 약 57명(43.8%)이 당적을 이탈했다(JNE 2022). 이는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며, 표 2에서 확인한 조직 견고성 점수 2.0(라틴아메리카 평균 5.8보다 3.8점 낮음, 17-18위)의 구체적 증거다.

파편화되고 약한 정당 시스템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보여준다. 대통령은 안정적 의회 연합을 구축할 파트너를 찾을 수 없고, 의원들은 당 규율이 없어 언제든 배신할 수 있으며, 유권자들은 정당을 통한 책임성 요구 수단을 상실한 것이다.

의회 차원: 극단적인 의회 파편화

1) ENP 지수를 통해 본 극단적인 의회 파편화

의회 파편화는 유효정당수(Effective Number of Parties, ENP)¹⁰로 측정된다. Laakso와 Taagepera(1979)가 개발한 이 지수는 단순히 정당 수를 세는 것이 아니라, 각 정당의 상대적 크기를 고려하는 것이며 의회 내 정당의 분포를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표 7은 페루의 의회 파편화 정도의 추이를, 표 8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10) 유효정당수(ENP)는 각 정당의 상대적 크기를 고려한 가중평균 정당 수를 나타낸다. 공식: $ENP = 1 / \sum(\text{각 정당 의석률 제곱})$. 여기서 의석률은 0과 1 사이의 소수로 표현된다 (예: 30% = 0.30).

의 의회 파편화 정도를 페루와 비교한 것이다.

표 7. 페루 ENP(정당 파편화) 상세 추이(2016-2025)

시점	의회 정당 수	최대 정당 의석률	ENP	변화율	정치적 배경
2016 선거	6개	56.2% (Popular Force)	4.1	-	후지모리파 과반 확보
2020 중간	8개	35% 내외	5.8	+41%	비스카라 탄핵 과정
2021 선거	10개	28.5% (Peru Libre)	6.2	+7%	극단적 파편화 시작
2024 현재	14개+	18.5% (Peru Libre)	12.62	+104%	라틴아메리카 최고
2025 예측	15개+	15-17% 예상	13.5-14.0	+7-11%	더욱 악화 전망

출처: ONPE, JNE.

표 8 라틴아메리카 국가별 ENP 비교(2016-2025 대표값)

파편화 수준	국가	ENP 범위	정당 시스템 특징
극단적 파편화 (ENP 10+)	페루(2024)	12.62	정당 시스템 붕괴
	브라질(2022)	9.91	연방제+비례대표제
	에콰도르(2021)	8.5	포폴리스트 난립
중간 파편화 (ENP 3-6)	콜롬비아(2022)	5.9	전통적 다당제
	볼리비아(2020)	6.1	MAS 약화 후 파편화
	아르헨티나(2021)	5.2	페론주의 vs 반페론주의
낮은 파편화 (ENP < 3)	우루과이(2019)	2.9	사실상 양당제

출처: IPU Parline Database(2023); V-Dem Institute(2023)을 토대로 저자 작성

페루의 의회 파편화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정도가 심한 것을 알 수 있으며, 2024년 ENP 지수 12.62는 라틴아메리카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2016년 선거 직후 ENP 4.1에서 2024년 12.62로 불과 8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는 선거 결과만이 아니라 임기 중 정당 이합집산(transfuguismo)으로 인한 '동적 ENP' 메커

니즘'의 결과이다.

페루의 ENP 12.62는 Neto(2002)가 제시한 '통치 가능성 임계점(threshold of governability)'을 나타내는 ENP 5의 2.5배를 초과한다. 이는 페루 대통령이 안정적인 다수 연합을 형성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거의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2) 의회 파편화의 제도적 원인

페루의 ENP 12.62라는 극단적 의회 파편화는 다음의 제도적 조합에서 기인한다(Nohlen 2005; Tuesta 2014). 첫째, 봉쇄 조항(threshold) 부재이다. 페루는 법적 의석 배분 문턱이 없어 전국 득표 0.77%(실효 문턱, 130석 중 1석)만 얻어도 의회 진입이 가능하다. 2021년 선거에서 Somos Peru는 3.8% 득표로 5석을 확보했다. 둘째, 개방형 명부 비례대표제이다. 유권자가 정당이 아닌 개인 후보를 선택하므로, 정당 조직력보다 개인 인지도가 중시된다. 이는 무소속 성향 의원 증가로 이어지고, 정당 규율을 약화시킨다. 셋째, 정당 등록 요건 완화이다. 2005년 정당법 개정으로 서명 수집만으로 창당이 가능해져 2016년 이후 80개 이상의 정당이 난립했다. 넷째, 선거구 설계의 문제이다. 26개 선거구로 분할된 구조는 지역별 소수 정당도 의석 확보를 가능하게 하여 전국 통합 정당 형성을 저해한다. 다섯째, *transfuguismo*의 만연이다. 2016-2021년 43.8%의 의원이 당적을 이탈하여 선거 결과로 형성된 ENP 2.73을 10.6으로 급증시켰다. 이러한 제도적 조합이 ENP 12.62라는 라틴아메리카 역사상 최고 수준의 파편화를 야기했다.

정당 규율이 약하고 당적 이탈이 빈번한 상황에서, 의회 내 다수파는 이슈마다 계속 변한다. 대통령은 어떤 정당과 연합을 맺더라도 그 연합이 언제 붕괴될지 예측할 수 없다.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 메커니즘인 선거적 책임성(electoral accountability)이 작동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유권자들은 어떤 정당에 투표했는지와 무관하게 의원들의 행태를 통제할 수 없고, 의원들은 당선 이후 정당을 배신하더라도 제재받지 않는다.

3) 의회 파편화와 정책 마비

페루의 극단적 의회 파편화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결과를 낳았다. 첫째, 입법 효율성의 급격한 하락이다. 2016-2018년 쿠친스키-비스카라 정부에서 대통령이 제출한 법안의 통과율은 약 32%에 불과했다(Congreso de la República 2019). 이는 같은 기간 칠레(68%), 콜롬비아(57%)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둘째, 예산 집행의 지연이다. 2021년 카스티요 정부는 2022년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수십 개의 소수정당과 개별 협상을 해야 했고, 예산안은 예정보다 4개월 늦게 통과되었다(Ministerio de Economía y Finanzas 2022). 셋째, 정책 일관성의 상실이다. 파편화된 의회에서는 이슈마다 다수파가 바뀌기 때문에,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비스카라 정부의 부패 방지 법안은 의회에서 수차례 수정되어 원안과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통과되었다(Transparencia 2020).

페루 정치 불안정의 사례 분석 (2016-2022)

본 장에서는 II장에서 제시한 이론적 분석틀을 적용하여 쿠친스키, 비스카라, 카스티요, 볼루아르테 시기를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각 사례는 제도적 조건에서 출발하여 대통령-의회 관계의 경로를 추적하고, 임계점을 거쳐 최종 결과에 이르는 인과 메커니즘을 규명한다. 이를 통해 페루 정치 불안정의 구조적 원인을 밝히고자 한다.

사례 1: 페드로 파블로 쿠친스키 (2016-2018)

1) 제도적 조건과 극소수 정부의 딜레마

페드로 파블로 쿠친스키(PPK)는 2016년 6월 대통령 결선투표에서 50.12% 대 49.88%라는 극소한 차이로 케이코 후지모리를 꺾고 당선되었다. 그러나 PPK의 정당 Peruanos Por el Cambio는 의회 130석 중 단 18석(13.8%)만을 확보했다. 반면 패배한 후지모리의 Fuerza Popular는 73석(56.2%)으로 단독 과반을 장악했다. 2016년 의회의 유효 정당수

(ENP)는 약 2.7으로 200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나, 이는 Fuerza Popular의 압도적 우위를 반영한 것이었다.

쿠친스키 정부의 제도적 조건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의회 내 극소수 의석(13.8%)으로 입법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둘째, 야당은 73석(56.2%)으로 의회 과반을 차지했으나, 탄핵 정족수인 87석(66.9%)에는 미달했다. 셋째, 정당 시스템 제도화(PSI) 2.4는 라틴아메리카 최저 수준으로, 안정적 연합 형성이 어려웠다. 넷째, 복합위험지수(CRI) 168.2는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이는 야당의 압도적 우위가 ENP를 낮춘 결과일 뿐 구조적 안정을 의미하지 않았다.

2) 협상 실패의 경로

PPK는 브라질식 "연합주의(coalitional presidentialism)"를 시도했다. 2017년 초 각료 개편을 통해 야당 인사를 포함시키고 주요 법안에서 양보를 제시했다. 그러나 페루 정당 시스템의 제도화 수준은 매우 낮았기 때문에 장기적 협력 인센티브가 없었다. 게다가 Fuerza Popular는 PPK를 정치적 적으로 규정하고, 탄핵을 통한 조기 대선을 추진했다. 13.8%의 극소수 의석으로는 어떠한 연합도 형성할 수 없었으며, 후지모리파의 단독 과반은 대통령을 완전히 고립시켰다.

3) 임계점: Odebrecht 스캔들

2017년 10월, 브라질 건설회사 Odebrecht가 PPK에게 약 78만 달러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PPK는 처음에 부인했으나, 이후 자신의 컨설팅 회사가 Odebrecht로부터 돈을 받았음이 드러났다. 2017년 12월 21일 첫 번째 탄핵 투표는 78표 찬성으로 필요한 87표에 미달하여 실패했다. 그러나 2018년 3월 비밀 녹음이 공개되면서 PPK는 두 번째 탄핵 투표 하루 전인 3월 21일 사임을 선택했다.

4) 평가

PPK 사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실을 보여준다. 첫째, 극단적으로

파편화된 의회에서 13.8%의 의석만 가진 대통령은 생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PPK 정당의 13.8% 의석은 Mainwaring과 Shugart(1997)가 제시한 "효과적 의석수" 기준인 최소 30%에 크게 못 미쳤다. 둘째, 제도화되지 않은 정당 시스템(PSI 1.34)에서는 연합 형성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셋째, 헌법 제113조 "도덕적 무능력" 조항은 정치적 무기로 남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Odebrecht 스캔들은 형사적 부패라고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으나, 의회는 탄핵 카드를 지속적으로 활용했다.

사례 2: 마르틴 비스카라 (2018-2020)

1) 의회 해산과 파편화의 심화

마르틴 비스카라는 2018년 3월 PPK의 부통령으로 대통령직을 승계했다. 그는 '반부패'를 정당성의 핵심으로 삼았으며, 높은 대중적 지지를 바탕으로 의회와 대립했다. 2019년 9월, 비스카라는 헌법적 권한을 사용하여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실행했다. 2020년 새로운 의회는 9개 정당으로 구성되었으며, ENP는 약 7.9로 상승해 의회 파편화가 더욱 심화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비스카라는 후지모리파를 약화시켰으나(73석→15석), 그와 연합할 안정적 다수 정당을 확보하는데는 실패했다. 가장 큰 정당인 Acción Popular도 25석(19.2%)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2) 반부패 vs 의회의 대립 경로

비스카라는 의회 해산 후 여론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으나, 새 의회는 더욱 파편화되어 협력이 어려웠다. 2020년 의회의 67%가 정당이 설립된 지 3년 미만의 신생 정당이었으며, 52%는 2020년에 처음 출현한 정당이었다. 비스카라는 의회와의 협상을 거부하고 대중 지지에 의존하는 포퓰리스트 전략을 선택했다. 그러나 의회는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견제 대상으로 인식했다.

3) 임계점: Richard Swing 스캔들

2020년 중반, 비스카라가 무명 가수 Richard Swing에게 약 5만 달러를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와중에 발생한 이 스캔들은 비스카라의 지지율을 약화시켰다(70%→52%). 2020년 9월 첫 번째 탄핵 투표는 32표 찬성으로 실패했으나, 11월 9일 두 번째 시도에서 105표의 찬성으로 탄핵이 가결되었다. 이는 헌법 제113조에 근거한 첫 탄핵 성공 사례였다.

4) 평가

비스카라 사례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첫째, 대중적 지지만으로는 의회의 탄핵을 막을 수 없다. 70%의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탄핵을 강행했다. 이는 Linz(1990)가 지적한 "이중 정당성" 문제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였다. 둘째, 의회 해산은 파편화를 더욱 심화시켰다. ENP는 약 2.7(2016)에서 약 7.9(2020)로 약 190% 증가했으며, 신생 정당의 비율이 급증했다. 셋째, 헌법 제113조 "도덕적 무능력" 조항이 정치적 무기로 완전히 정착했다. Richard Swing 스캔들은 형사적 부패로 입증되지 않았으나, 의회는 모호한 조항을 활용하여 대통령 탄핵에 성공할 수 있었다.

사례 3: 페드로 카스티요 (2021-2022)

1) 역사상 최악의 파편화와 이념적 양극화

페드로 카스티요는 2021년 극좌 정당 Perú Libre의 후보로 예상을 뒤엎고 당선되었다. 농촌 교사 출신으로 정치 경험이 전무했던 그는 결선투표에서 케이크 후지모리를 50.13% 대 49.87%로 간신히 꺾었다. 2021년 의회의 ENP는 6.2로 2020년 대비 하락했으나, 이는 일시적 현상이었고 임기 중 transfuguismo로 인해 다시 급증했다. 카스티요의 좌파 정당은 37석(28.5%)을 확보했으나, 의회 다수파(중도우파 및 우파, 약 72%)와 지속적으로 충돌했다.

2) 극좌 vs 중도우파의 전면 대결

카스티요는 집권 초기부터 의회와 전면 충돌했다. 17개월 동안 5번의 내각 교체를 단행했으며, 의회는 각료들에 대한 불신임을 반복했다. 카스티요의 좌파 정책(헌법 개정, 광업 국유화)은 의회의 압도적 반대에 부딪혔다. 28.5%의 의석으로는 어떠한 정책도 추진할 수 없었으나, 카스티요는 다른 정당과의 연합을 시도하기보다 대중 동원을 통해 돌파를 시도했다. 그러나 부패 스캔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지지율은 급락했다(40%→25%).

3) 임계점: 친위쿠데타 시도

의회는 2021년 11월, 2022년 3월, 11월 세 차례에 걸쳐 탄핵을 시도했으나 모두 87표를 획득하지 못해 실패했다. 2022년 12월 7일 아침, 카스티요는 국영 TV를 통해 "의회를 해산하고, 헌법을 정지하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다. 이는 명백한 친위쿠데타 시도였다. 그러나 군과 경찰이 명령을 거부했고, 의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101표 찬성으로 카스티요를 탄핵했다. 카스티요는 멕시코 대사관으로 도피하려다 경찰에 체포되었다.

4) 평가

카스티요 사례는 페루 대통령제의 구조적 한계를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첫째, 극단적 파편화와 이념적 양극화가 결합되면 어떠한 협력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실하게 인식시켰다. 카스티요의 극좌 이념은 의회의 72%와 양립할 수 없었다. 둘째, 28.5%의 의석으로 생존조차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효과적인 의석수의 기준을 최소 30%로 본다면, 카스티요의 Perú Libre가 얻은 28.5%는 이에 못 미쳤다. 셋째, 제도적 교착상태에서 대통령이 위헌적 선택(친위쿠데타)을 할 위험이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카스티요의 친위쿠데타 시도는 Linz가 경고한 대통령제의 승자독식 딜레마가 극단화된 사례라 할 수 있다.

사례 4: 디나 볼루아르테 (2022-2025)

1) 초파편화와 역대 최저 수준의 정당 시스템 제도화

디나 볼루아르테는 2022년 12월 7일 카스티요의 친위쿠데타 실패 직후 부통령에서 승계하여 페루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되었다. 그러나 그녀의 정통성은 처음부터 논란의 대상이었다. 카스티요를 지지했던 남부 안데스 지역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으며, 2023년 1-2월 경찰과 군의 진압 과정에서 60명 이상이 사망했다. 2024년 의회의 ENP는 12.62로 추정되며, 이는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의회는 15개 이상의 정당으로 쪼개졌으며, 가장 큰 정당도 약 15-18석(11.5-13.8%)에 불과했다.

2) 생존 게임의 한계

볼루아르테는 집권 초기부터 '생존'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그녀는 카스티요의 좌파 정책을 포기하고 중도우파로 선회했다. 주요 전략은 의회 다수파(중도우파 및 우파)와의 실용적 협력, 각료 임명에서 의회 의견 수렴,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유지였다. 이러한 전략은 볼루아르테 집권 초기에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였고 볼루아르테는 2023년 3월 첫 번째 탄핵 시도를 무력화시켰다. 그러나 ENP 12.62의 초파편화 의회에서는 안정적 다수 형성이 불가능했다. 15개 정당은 일관된 정책 선호가 없었고 단기적 이익에 따라 입장을 바꿨다.

3) 임계점: 롤렉스 게이트

2024년 3월, 페루 언론은 볼루아르테가 고가의 롤렉스 시계(약 14,000달러)와 카르티에에 팔찌(약 40,000달러)를 착용한 사진을 공개했다. 검찰 수사 결과, 볼루아르테는 이 사치품들을 지방 정치인으로부터 선물로 받았음이 드러났다. 이는 명백한 이해충돌이자 부패 혐의였다. 볼루아르테의 지지율은 12%에서 6%로 추락했으며, 2025년 경제 침체와 범죄율 급증이 겹치면서 대중의 불만이 폭발했다. 2025년 10월 10일, 의회는 124표 만장일치로 볼루아르테를 탄핵했다. 페루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정당이 탄핵에 찬성한 것이었다.

4) 평가

볼루아르테 사례는 페루 정치 불안정이 구조적 문제임을 확실하게 보여준 사례였다. 첫째, ENP 12.62는 Mainwaring과 Shugart(1997)가 제시한 "안정 가능 범위(2-5)"를 훨씬 초과한 수치이다. 이 수준의 의회 파편화에서는 어떠한 연합도 형성할 수 없다. 둘째, PSI 2.7은 여전히 라틴아메리카 최저 수준으로, 정당들이 프로그램적 일관성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124표 만장일치는 이념에 따른 정당 간의 연합이 아니라 단기적 이익으로 쉽게 움직인다는 반증이었다. 셋째, 볼루아르테 정부의 복합위험지수(CRI) 698.2는 페루 정치사에서 가장 높은 제도적 위험 수준을 기록했다.

비교 분석: 공통 메커니즘과 차이점

1) 제도적 지표의 악화 추이

표 9¹¹⁾는 앞에서 살펴본 4개 사례의 제도적 지표가 지속적으로 악화됨을 보여준다.

표 9. 4개 사례의 제도적 지표 종합 비교

대통령	의석률	ENP	PSI	탄핵 문턱	CRI	탄핵 시도	결과
쿠친스키 (2016)	13.8%	2.7	2.4	66.9%	168.2	2회	사임
비스카라 (2020)	0%	7.9	2.0	66.9%	590.5	2회	탄핵
카스티요 (2021)	28.5%	6.2	2.7	66.9%	343.1	3회	탄핵/체포
볼루아르테 (2025)	0%	12.62	2.7	66.9%	698.2	2회	탄핵

출처: ONPE, JNE; Mainwaring and Bizzarro(2021)을 토대로 저자 작성

11) ENP는 해당 대통령이 직면한 선거 직후 의회의 유효 정당수. 비스카라 재임기간은 전기(2018-2020, 14개월)와 후기(2020, 18개월)를 합산한 32개월. 탄핵시도는 의회에서 실제로 표결이 이루어진 경우만 포함. 볼루아르테 재임기간은 2025년 10월까지를 기준으로 했음.

ENP는 2016년에서 2020년 사이에 2.7에서 7.9로 급증하여 의회 파편화가 심화되었다. PSI는 2.0-2.7 범위에서 유지되었으나, 여전히 라틴아메리카 최저 수준으로 구조적 붕괴 상태가 지속되었다. 복합위험지수(CRI)는 쿠친스키 정부에서 비스카라 정부로 넘어오며 정당 시스템 제도화 수준이 조금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422.3 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ENP 증가와 PSI 하락의 복합 효과라 볼 수 있다. 또한 볼루아르테 재임 기간의 698.2는 제도적 요인들의 상호작용이 역대 최고의 부정적 효과를 가져왔음을 알 수 있다. 이는 2021년 선거 이후의 ENP가 급증한 것을 반영한다. 표 9가 보여주는 것은 ENP 즉, 의회 파편화가 제도간 상호작용의 부정적 효과를 나타내는 복합위험지수(CRI)의 가장 강력한 동인이라는 점이다. 특히 2021년 선거는 낮은 탄핵 문턱과 극단적 의회 파편화가 결합되어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짐을 알게 해준다.

2) 공통 인과 메커니즘

4개 사례는 다음의 5단계 공통 인과 메커니즘을 보여준다:

① **1단계 극단적 파편화 악화:** ENP가 2.7에서 12.62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의회는 점점 더 많은 정당으로 쪼개졌다. 안정적 다수 형성이 불가능해졌으며, 최대 정당의 의석률도 56.2%에서 11.5%로 급락했다.

② **2단계 정당 시스템 제도화 실패 심화:** PSI는 2.0-2.7로 여전히 라틴아메리카 최저 수준이었다. 정당들은 프로그램적 일관성을 상실했다. 정당들은 이념이나 정책이 아닌 단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작동했다. 신생정당의 비율이 67%에 달했다.

③ **3단계 대통령 고립 심화:** 모든 대통령이 의회에서 소수파였으며(최대 28.5%, 승계 대통령은 0%), 연합 형성에 실패했다. 제도화되지 않은 정당들과는 장기적 협력이 불가능했다.

④ **4단계 헌법 제113조의 정치적 무기화:** "도덕적 무능력" 조항의 모호성과 66.9%의 낮은 탄핵 문턱이 결합되면서 탄핵이 일상화되었다. 4개 사례 모두 형사적 부패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으나 탄핵되었다.

⑤ **5단계 대통령 제거와 악순환 반복:** 4개 사례 모두 탄핵 또는 사임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평균 재임 기간은 약 28.25개월이었다. 이 악순환은 제도적 위험(CRI)을 더욱 증가시켰다.

3) 사례별 차이점

4개 사례는 공통 메커니즘을 공유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도 존재한다.

① **의석 비율의 차이:** 쿠친스키(13.8%)와 카스티요(28.5%)는 자신의 정당 의석을 가졌으나, 비스카라와 볼루아르테는 승계 대통령으로 의회 기반이 전혀 없었다(0%). 그러나 카스티요의 28.5%도 생존에 충분하지 않았다.

② **협상 전략의 차이:** 쿠친스키는 연합주의를 시도했고, 비스카라는 대중 지지에 의존했으며, 카스티요는 대결을 선택했고, 볼루아르테는 실용적 협력을 추구했다. 그러나 모든 전략이 실패했다. 이는 전략의 문제가 아닌 구조의 문제임을 시사한다.

③ **임계점의 성격:** 4개 사례 모두에서 탄핵 사유로 헌법 제113조 “도덕적 무능력” 조항이 적용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쿠친스키와 볼루아르테는 부패 스캔들로, 비스카라는 작은 스캔들과 의회와의 대립 격화로, 카스티요는 친위쿠데타 시도로 탄핵되었다는 차이점을 보인다.

④ **이념적 위치의 차이:** 쿠친스키(중도우파), 비스카라(중도), 카스티요(극좌), 볼루아르테(중도좌파→중도우파)는 각기 다른 이념적 성향을 가졌으나, 모두 동일한 결과에 직면했다. 이는 이념이 아닌 제도적 조건이 결과를 결정함을 의미한다.

4) CRI를 통한 제도 간 상호작용 효과 분석

앞서 분석한 네 정부의 사례는 단순히 개별 제도 요인의 합이 아닌, 제도 간 곱셈적 상호작용(multiplicative interaction)을 통해 정치 불안정이 심화되었음을 보여준다. 복합위험지수(CRI)는 페루의 정치 불안정을 야기하는 핵심적인 제도적 요인들이 독립적이 아니라 상호작용하여 곱셈적 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만든 수량적 기준이다. 이는 Helmke와 Levitsky가 강조한 "제도 간 상호작용"의 중요성(Helmke and Levitsky 2006, 5-12)을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먼저 네 정부의 사례에서 나타난 제도 간 상호작용의 메커니즘은 다음의 과정이 중층적으로 이루어지며 작동함을 알 수 있었다.

① 상호작용 1: 준대통령적 설계×정당 약화 → 명확하지 않은 책임 소재

대통령제적 구조(각료회의 의장의 이중 책임)는 강한 정당들이 있을 때는 작동할 수 있다. 정당들이 안정적이고 제도화되어 있으면, 각료회의 의장은 의회 다수당/연합의 대표로서 명확한 정치적 기반을 가진다. 그러나 페루처럼 정당들이 극도로 약한 상황(PSI 2.0-2.7)에서는 각료회의 의장이 대통령과 의회 양자의 신임을 받아야 하는데, 의회 내에 명확한 다수파가 존재하지 않고 정당들이 수시로 입장을 바꾸기 때문에 누구의 신임을 받아야 하는지조차 불명확하다. 이는 2016-2025년 기간 동안 23명의 각료회의 의장 임명과 평균 재임 기간 4.8개월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② 상호작용 2: 모호한 탄핵 조항×의회 우위 → 탄핵의 정치화

모호한 탄핵 조항(Article 113 ‘도덕적 무능력’)이 있을 경우, 균형 잡힌 권력 구조라면 헌법재판소나 사법부가 이를 해석하고 제약할 수 있다. 그러나 페루처럼 의회가 압도적 우위를 가진 구조(탄핵 문턱 66.9%, 사법심사無)에서는 의회가 ‘도덕적 무능력’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견제 장치가 작동하지 않으며, 대통령은 의회 해산권도 제한적이므로(임기 중 1회, 의회의 내각 불신임 2회 후 가능) 대응 수단이 없다. 결과적으로 2016-2025년 기간 동안 탄핵은 정치적 갈등 해결의 일상적 도구가 되었고, 의회는 대통령을 압박하는 정치 무기로 탄핵을 남발하며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

③ 상호작용 3: 정당 파편화×분점정부 → 연합 형성의 불가능

임계치를 훨씬 넘는 정당 파편화(ENP 2.7→12.62)는 그 자체로 문제지만, 대통령이 의회 다수를 가진 경우에는 관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페루처럼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 의회 내 소수인 분점정부 상황(쿠친스키 13.8%, 비스카라-볼루아르테 0%, 카스티요 28.5%)에서 대통령은 최소 7-8개 정당과 연합해야 하는데, 정당들이 이념적 일관성이 없고(PSI 2.0-2.7) 정당의 견고성이 약해 의원들이 수시로 당을 이탈하며(43.8% 당적 이탈률), 상호 신뢰가 부재하므로 안정적인 연합 형성은 거의 불가능하다. 2016-2025년 기간 동안 모든 대통령은 의회 내 소수정당 소속이거나 아예 소속된 정당이 없었고, 안정적 연합이 성공한 경우는 전무했다.

④ 상호작용 4: 준대통령적 설계×정당 약화×의회 파편화 → 최악의 시너지

이 세 요인이 동시에 작동할 때 발생하는 시너지는 극단적인 정치 불안정을 낳는다. 준대통령제적 설계가 의회에게 탄핵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제공하고(탄핵 문턱 66.9%), 정당 시스템의 약화로 대통령이 안정적 지지 기반을 구축할 수 없으며(PSI 2.0-2.7), 의회 파편화로 인해 어떤 정당도 책임 지지 않고 탄핵에 동조할 수 있다(ENP 2.7→7.9). 이 조합의 결과는 극단적이고 반복적인 정치 불안정의 악순환이다. 탄핵의 정치적 비용은 없고, 대통령은 방어 수단이 없으며, 의회는 대통령보다도 낮은 지지율(9.1% vs 대통령 평균 30-40%)을 가지고도 정치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 요인의 조합은 2016-2025년 기간 동안 4명의 대통령 탄핵/사임 성공과 극심한 정치 불안으로 귀결되었다.

이러한 제도 간 상호작용 메커니즘은 각 정부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발현되었으나, 모두 동일한 결과(탄핵/사임)를 낳았다.

① 쿠친스키 정부 (2016-2018): CRI 168.2

쿠친스키 정부의 CRI 168.2는 네 정부 중 가장 낮았으나, 이는 야당 후지모리파의 압도적 의석(56.2%)이 ENP를 2.7로 낮춘 결과였다. 즉, ‘안정적 파편화’가 아니라 ‘야당 지배 구조’였다. 상호작용 2(탄핵 조항×의회 우위)가 가장 강력하게 작동했다. PSI 2.4와 탄핵 문턱 66.9%가 결합하면서 후지모리파는 탄핵을 정치적 무기로 활용할 수 있었다. 상호작용 3(파편화×분점정부)도 작동했다. 쿠친스키의 13.8% 의석으로는 연합 형성이 불가능했고, 후지모리파의 단독 과반은 어떤 타협도 필요로 하지 않았다. 오데브레히트 스캔들은 촉발 요인이었을 뿐,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이 이미 사임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② 비스카라 정부 (2018-2020): CRI 590.5

비스카라 정부의 CRI 590.5는 2020년까지 가장 높은 제도적 위험도를 기록했다. 2020년 의회 해산 후 ENP가 7.9로 급증하고 PSI가 2.0으로 하락하면서 제도적 위험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네 가지 상호작용이 모두 극대화되었다. 상호작용 1(준대통령제×정당 약화)로 각료회의 의장이 평균 3개월마다 교체되었고, 상호작용 3(파편화×분점정부)으로 승계 대통

령으로서 의회 기반이 전혀 없었던(0%) 비스카라는 연합 형성이 불가능했다. 상호작용 4(세 요인의 시너지)가 결정적이었다. 70% 지지율이라는 대중적 인기도 높은 CRI를 무력화시킬 수 없었다. Richard Swing 스캔들은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제도들의 부정적 시너지 효과는 105표(80.8%)의 압도적 탄핵을 가능하게 했다.

③ 카스티요 정부 (2021-2022): CRI 343.1

카스티요 정부의 CRI 343.1은 쿠친스키 다음으로 낮았으나, ENP 6.2와 PSI 2.7의 조합은 극좌 성향 대통령에게 치명적이었다. 상호작용 3(파편화×분점정부)이 핵심이었다. 28.5%의 의석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PSI는 당내 규율 붕괴로 이어졌다(Peru Libre 내부 분열). 상호작용 1(준대통령제×정당 약화)로 각료회의 의장이 5번 교체되었고, 상호작용 2(탄핵 조항×의회 우위)로 3회의 탄핵 시도를 견뎌야 했다. 친위쿠데타 시도는 CRI가 만들어낸 "생존 불가능 구조"에 대한 극단적 반응이었다. 탄핵 문턱 66.9%는 101표(77.7%)의 압도적 탄핵을 가능하게 했다.

④ 볼루아르테 정부 (2022-2025): CRI 698.2

볼루아르테 정부의 CRI 698.2는 네 정부 중 최고치이자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제도적 위험도를 기록했다. 주목할 점은 카스티요와 볼루아르테는 동일한 2021년 총선을 기반으로 집권했으나, ENP는 6.2에서 12.62로 103.5%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는 2021-2025년 사이 공식 총선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빈번한 정당 이탈과 정당 분열로 인해 의회 내 실질적 정당 수가 급증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페루의 낮은 정당제도화 수준(PSI 2.7)을 반영한다. 의원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정당에 대한 충성도가 낮은 환경에서, 볼루아르테의 매우 낮은 지지율(2-3%)은 의원들의 생존을 위한 기회주의적 정당 이동을 가속화했다. 그 결과 2021년 총선 직후 약 10개였던 의회 내 정당이 2024-2025년에는 12-13개 이상으로 분화되었으며, 이는 볼루아르테 정부의 CRI가 698.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게 된 구조적 원인이다.

ENP 12.62, PSI 2.7, 의석 0%, 2% 지지율의 조합은 사상 최악의 조건이었다. 상호작용 4(세 요인의 시너지)가 완전히 발현되었다. 준대통령제

구조는 의회에게 절대적 우위를 부여했고, 정당 약화로 볼루아르테는 어떤 지지 기반도 없었으며, 극단적으로 파편화된 의회는 책임 소재 없이 탄핵에 동조할 수 있었다. 실용적 협력 전략으로 34개월을 생존했으나, ‘물렉스 게이트’ 스캔들은 CRI 698.2가 만들어낸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냈다. 124표 만장일치 탄핵(95.4%)은 정당 간 이념적 연합이 아니라, 제도화되지 않은 정당들의 단기적 이익 계산의 결과였다.

복합위험지수(CRI)는 쿠친스키 정부에서 비스카라 정부 시기에 급증했고, 이후 카스티요 정부에서 일시 하락했다가 볼루아르테 정부에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ENP와 PSI의 동적 변화를 반영한다. 비스카라 시기 CRI 590.5는 2020년 의회 해산이 의도와 달리 파편화를 더욱 악화시켰음을 보여준다(상호작용 3의 극대화). 그러나 볼루아르테 시기에는 Transfuguismo에 기인한 정당 이탈과 이합집산으로 예측된 ENP가 12.62로 폭등하면서 CRI가 698.2로 급증했다. 이는 페루의 의회 분절화가 통제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CRI의 지속적 고위험 상태(168.2-698.2, 평균 450.0)는 페루가 ‘정상적 불안정(normal instability)’을 제도화했음을 의미한다. 네 가지 제도 간 상호작용 메커니즘이 항시적으로 작동하는 구조가 고착화된 것이다. 특히 CRI 300을 초과하는 구간(비스카라 590.5, 카스티요 343.1, 볼루아르테 698.2)에서 모든 탄핵 시도가 집중되었으며, 가장 낮은 쿠친스키(168.2)조차 사임으로 귀결되었다. 이는 페루의 대통령이 구조적으로 생존 불가능한 시스템임을 입증한다.

CRI 지수를 기준으로 비교한 네 정부 사례에서의 제도적 상호작용 효과와 이익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실들을 포착하게 해준다. 첫째, 동일한 CRI라도 구성요소의 조합과 상호작용 메커니즘에 따라 취약성의 형태가 다르다(쿠친스키의 '상호작용 2 중심'과 비스카라의 '상호작용 4 극대화'). 둘째, CRI는 대통령의 전략, 이념, 인기와 무관하게 결과를 결정한다(비스카라 70% 지지율 → 탄핵). 셋째, 네 가지 제도 간 상호작용 메커니즘은 어느 하나만으로도 불안정을 야기하지만, 동시에 작동할 때 곱셈적 효과를 통해 극단적 불안정을 낳는다. 넷째, CRI는 시간에 따라 누적되고 증폭되며, 이는 우선적인 방안으로 제도의 개혁을 필요로 한다.

라틴아메리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페루의 특수성은 더욱 두드러진

다. 첫째, 탄핵 문턱은 유사하나 사법 심사의 유무가 결정적이다. 페루의 탄핵 문턱(66.9%)은 브라질, 에콰도르, 볼리비아(66.7%)와 거의 동일하다. 그러나 페루는 단원제이며 사법 심사가 없는 반면, 브라질과 볼리비아는 양원제에 사법 심사가 있고, 에콰도르는 단원제이지만 헌법재판소의 심사가 존재한다. 이는 페루의 실질적 탄핵 문턱을 훨씬 낮게 만든다. 둘째, 페루의 ENP와 PSI와 브라질을 비교하면, 선거변동에 있어서는 브라질보다 안정적이지만 정당체계 제도화 수준이 낮기 때문에 브라질 정당들이 페루보다 더 제도화되어 있어 연합 형성이 가능하다. 셋째, 페루의 2025년 CRI(698.2)는 라틴아메리카 비교 국가들 중 압도적으로 높다. 표 10에서 볼 수 있듯이 최신 총선 데이터를 기준으로, 페루는 브라질(390.94)보다 1.8배, 에콰도르(255.02)보다 2.7배, 볼리비아(216.00)보다 3.2배, 칠레(210.42)보다 3.3배 높은 위험 수준을 보인다.

표 10. 라틴아메리카 주요국의 제도적 측면 주요 지수들

국가	총선연도	ENP	PSI	탄핵 문턱	CRI	페루 대비
페루	2025	12.62	2.7	66.9%	698.2	기준값
브라질	2022	9.91	3.8	66.7%	390.94	1.8배 낮음
에콰도르	2023	3.40	2.0	66.7%	255.02	2.7배 낮음
볼리비아	2025	3.60	2.5	66.7%	216.00	3.2배 낮음
칠레	2025	3.51	2.5	66.7%	210.42	3.3배 낮음

출처: IPU Parline Database(2022-2025), V-Dem Institute(2024), International IDEA(2023)을 토대로 저자 작성.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페루의 CRI가 2016년 168.2에서 2025년 698.2로 315% 증가하여 제도적 위험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브라질, 에콰도르, 볼리비아의 CRI는 대체로 안정적이거나 미세하게 변동했다. 이는 페루가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취약한 제도적 구조를 가진 대통령제일 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제도적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는 국가임을 의미한다. 넷째, 제도적 취약성은 탄핵 빈도로 직접 연결된다. 페루는 2016-2025년 동안 9번의 탄핵 시도 중 4번이 성공했다(성공률 44.4%). 브라질은 같은 기간 2번 시도 중 1번 성공(50%), 에콰도르는 3번 시도 중 0번 성공(0%),

볼리비아는 탄핵 시도가 없었다. 페루의 탄핵은 빈도와 성공률 모두 압도적이다. 특히 페루는 10년간 4명의 대통령 모두가 탄핵/사임으로 귀결되어 평균 재임 기간이 28.25개월(헌법상 60개월의 47%)에 불과했다. 이는 페루의 탄핵이 구조적으로 남용되고 있으며, 대통령제가 사실상 작동 불능 상태임을 보여준다.

결론에 대신하여: 제도적 개혁 방안

본 연구는 2016-2025년 페루의 정치 불안정을 제도적 관점에서 분석했다. 이 기간 동안 페루는 6명의 대통령, 9번의 탄핵 시도, 4번의 탄핵 성공이라는 전례 없는 정치적 혼란을 경험했다. 본 연구는 경제 성과나 부패 수준이 아닌 제도적 구조가 이러한 반복적 불안정의 근본 원인임을 밝혔다.

핵심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 가지 제도적 요인의 동시적 작용이 정치 불안정을 구조화한다. 낮은 탄핵 문턱(66.9%)과 모호한 사유(도덕적 무능력), 단원제와 사법 심사 부재는 탄핵을 일상적 정치 도구로 만들었다. 정당 시스템 제도화의 붕괴는 안정적 연합 형성을 불가능하게 했다. 극단적 의회 파편화는 통치 불가능성을 초래했다. 둘째, 제도적 요인들의 상호작용은 곱셈 효과를 낳는다. 복합위험지수(CRI)는 168.2에서 698.2로 315% 증가했다. 이러한 복합적 효과는 개별 변수의 단순 합보다 훨씬 강력한 불안정 압력을 만든다. 셋째, 4개 사례(쿠친스키, 비스카라, 카스티요, 볼루아르테) 분석은 제도적 구조가 개인의 선택을 압도함을 보여준다. 이념(중도우파-극좌), 전략(연합주의-대결), 의석(13.8%-28.5%-0%)이 모두 달랐으나, 모든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평균 재임 기간은 28.25개월에 불과했다. 넷째, 라틴아메리카 비교 분석은 페루의 특수성을 확인시킨다. 유사한 ENP를 가진 브라질도 더 높은 PSI(3.8) 덕분에 안정적이다. 에콰도르도 단원제이지만 헌법재판소 심사로 탄핵을 견제한다. 페루만이 세 가지 불리한 조건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발견은 페루의 정치 불안정이 일시적 위기가 아니라 ‘정상 상태(new normal)’로 고착되었음을 시사한다. 제도적 개혁 없이는 이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 물론 페루의 정치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 문화 개선, 사회경제적 불평등 완화, 부패 척결 등 다차원적 노력이 필요하다.

페루 국민의 78.3%는 “정당 없이도 민주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81.7%는 “정당은 필요악”이라는 반정당 정서를 가지고 있다(LAPOP 2023). 또한 지역 간 불평등과 부패 문제도 정치 불안정을 증폭시킨다. 이러한 요인들은 장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본 연구가 밝힌 바와 같이, 정치 문화나 사회경제적 요인만으로는 페루의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정치 불안정을 설명할 수 없다. 제도적 구조—낮은 정당 제도화(PSI 2.7), 극단적 의회 파편화(ENP 12.62), 낮은 탄핵 문턱(66.9%)과 모호한 탄핵 사유—가 어떠한 대통령도 생존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었다. 따라서 제도 개혁은 페루 정치 안정화의 필요조건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세 차원의 제도 개혁을 제안한다. 첫째, 정당 시스템 제도화 강화이다. Transfuguismo(당적 이탈)에 대한 제재 강화, 조건부 정당 보조금 확대, 정당 등록 요건 강화, 예비선거 의무화 등을 통해 정당의 제도화를 촉진해야 한다. 이는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칠레 등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된 바 있다. 둘째, 탄핵 제도 개혁이다. ‘도덕적 무능력’이라는 모호한 탄핵 사유를 헌법 위반, 중대한 형사 범죄, 직무 수행 불능 등 구체적 사유로 명확화하고, 탄핵 문턱을 2/3(66.9%)에서 3/4(75%)로 상향하며, 헌법재판소의 사전 심사를 도입하고, 탄핵 절차를 단계화(조사→소추→심사→결정)해야 한다. 이는 브라질, 에콰도르, 독일 모델을 참고한 것이다. 셋째,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의회 파편화 완화이다. 전국 득표율 5% 봉쇄 조항 도입, 지역구별 명부식 비례대표제 전환(선거구당 10-15석), 혼합형 선거제도(MMP) 도입, 폐쇄형 명부로의 전환 등을 통해 ENP를 5-7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이는 독일, 뉴질랜드, 한국 등에서 채택된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제도 개혁은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제도 개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정치적 신뢰 회복을 위한 투명성 제고, 사회경제적 불평등 완화, 부패 척결, 시민 교육 확대 등 보완적 접근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보완적 노력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도 제도적 기반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 제도 개혁은 필요조건이며, 그 위에 정치 문화와 사회경제적 개선이라는 충분조건이 쌓여야 페루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한 안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이론적으로, 본 연구는 대통령제 안정성 연구에 기여한다. Linz(1990)

와 Cheibub(2007) 간의 논쟁에서, 본 연구는 Cheibub의 ‘맥락적 조건론’을 지지하며 구체적인 제도 변수들을 제시했다. 페루 사례는 대통령제 자체가 아니라 ‘대통령제 + 낮은 정당 제도화 + 극단적 파편화 + 낮은 탄핵 문턱’의 조합이 불안정을 야기함을 보여준다. 둘째, Mainwaring과 Shugart(1997)의 ‘어려운 조합(difficult combination)’ 가설을 실증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본 연구는 ENP 10 이상의 ‘초파편화’가 통치 불가능성의 임계점임을 시사한다. 셋째, 제도 간 상호작용의 곱셈 효과를 정량화했다. CRI는 개별 변수의 합이 아닌 곱으로 제도적 취약성을 측정하며, 이는 제도들이 독립적이 아니라 시너지 효과를 가지며 작용함을 보여준다.

정책적으로, 본 연구는 페루뿐 아니라 유사한 제도적 조건을 가진 국가들에 교훈을 제공한다. 첫째, 정당 시스템 제도화가 우선순위이다. 페루를 포함해 PSI 3 이하인 국가들은 정당 강화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둘째, 탄핵 제도는 신중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낮은 문턱과 모호한 사유는 탄핵을 정치적 무기로 만들며, 사법 견제가 필수적이다. 셋째, 선거제도 개혁은 비례성과 통치 효율성 사이의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 5% 봉쇄 조항과 혼합형 제도는 이 균형을 달성하는 실현 가능한 방안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방법론적 한계를 동시에 노정하고 있다. 특히 복합위험지수(CRI)의 개발과 적용이 갖는 한계를 언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복합위험지수(CRI)는 제도적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정량화하는 유용한 도구였으나, 네 가지 방법론적 한계를 갖는다. 첫째, CRI는 수치적 변화를 잘 포착하지만, 제도의 질적 전환점을 완전히 반영하기 어렵다. 둘째, 실제 정치 과정의 비선형적 상호작용과 임계점 효과를 반영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ENP 5 이하는 관리 가능하나 ENP 8 이상에서는 연립 형성이 거의 불가능하다(Neto 2002). 셋째, 대통령의 정치적 기술, 의회 리더십 등 행위자 수준 변수를 포함하지 않는다. 넷째, CRI는 특정 시점의 제도적 조건을 측정하지만, 선거와 *transfuguismo*로 인한 동적 변화는 구분하지 못한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네 가지 방법론적 전략을 채택했다. 첫째, 과정 추적 방법으로 각 정부의 탄핵 과정을 시간 순서에 따라 추적하여 제도 변수들의 구체적 상호작용과 임계점(Odebrecht, Richard Swing, 친위쿠데타, 롤렉스 게이트)을 분석했다(George and Bennett

2005). 둘째, 제도 변수 상호작용 패턴 분석으로 쿠친스키(후지모리파 단독 과반으로 인한 고립)와 볼루아르테(초파편화로 인한 고립)의 서로 다른 취약성 패턴을 질적으로 분석했다. 셋째, 비교 사례 분석으로 페루를 브라질, 에콰도르, 볼리비아와 비교하여 CRI가 포착하지 못하는 제도적 질의 차이(예: 브라질의 사법 심사와 높은 PSI)를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RI의 정교화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의 비교분석은 향후 연구 과제로 남겨둘 수밖에 없었다.

페루의 정치 불안정은 일시적 위기가 아니라 제도적 구조의 문제이다. 낮은 정당 제도화, 극단적 의회 파편화, 낮은 탄핵 문턱이라는 세 가지 제도적 요인의 복합적 상호작용이 2016-2025년의 반복적 탄핵과 정부 붕괴를 초래했다. 경제 성과나 부패는 촉발 요인일 뿐, 구조적 원인은 제도에 있다.

본 연구가 제시한 제도 개혁안—정당 제도화 강화, 탄핵 사유 명확화 및 문턱 상향, 선거제도 개혁—은 페루가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다. 그러나 제도 개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정치적 신뢰 회복, 불평등 완화, 부패 척결 등 보완적 노력이 필요하다.

페루의 경험은 라틴아메리카뿐 아니라 전 세계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에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민주주의는 선거만으로 유지되지 않으며,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면 언제든지 붕괴할 수 있다. 특히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들은 정당체계 제도화와 의회 파편화 완화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참고문헌

- Buben, R., & Kouba, K. (2024). "Democracy and Institutional Change in Times of Crises in Latin America". *Journal of Politics in Latin America*, 16(1), 3-30.
- Cameron, M. A. (1998). Self-coups: "Peru, Guatemala, and Russia". *Journal of Democracy*, 9(1), 125-139.
- Cheibub, J. A. (2007). *Presidentialism, Parliamentarism, and Democrac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eibub, J. A., & Limongi, F. (2011). "From Conflict to Coordination: Perspectives on the Study of Executive-Legislative Relations". *Revista Ibero-Americana de Estudios Legislativos*, 1(1), 220-225.
- Congreso de la República del Perú. (2019). Reporte de Eficiencia Legislativa. Lima: Congreso de la República. <https://www.congreso.gob.pe> (검색일: 2025년 10월 27일)
- Crisis Group. (2024). Peru's Political Instability: Addressing Inequality and Corruption. Brussels: International Crisis Group. <https://www.crisisgroup.org> (검색일: 2025년 11월 17일)
- Devarajan, S., Dollar, D. R., & Holmgren, T. (Eds.). (2003). *Aid and Reform in Africa: Lessons from Ten Case Studies*. Washington, DC: World Bank Publications.
- George, A. L., & Bennett, A. (2005). *Case Studies and Theory Development in the Social Sciences*. Cambridge, MA: MIT Press.
- Hall, P. A., & Taylor, R. C. (1996). "Political Science and the Three New Institutionalisms". *Political Studies*, 44(5), 936-957.
- Helmke, G., & Levitsky, S. (2006). "Informal Institutions and Comparative Politics: A Research Agenda". *Perspectives on Politics*, 2(4), 725-740.
- Hochstetler, K. (2006). "Rethinking Presidentialism: Challenges and Presidential Falls in South America". *Comparative Politics*, 38(4), 401-418.
- IDEA International. (2024). "Peruvian Impeachment and Constitutional Mechanisms," Constitutional Database. <https://www.idea.int> (검색일: 2025년 10월 27일).

- International IDEA. (2023). The Global State of Democracy Indices Codebook, Version 7. <https://www.idea.int/gso-d-indices/dataset-resources> (검색일: 2025년 10월 27일).
- Instituto de Estudios Peruanos. Estudios de Opinión. <https://estudiosdeopinion.iep.org.pe> (검색일: 2025년 11월 17일)
- Inter-Parliamentary Union. (2022). Brazil: Chamber of Deputies election held on 2 October 2022. Parline Database. <https://data.ipu.org/parliament/BR/BR-LC01/election/BR-LC01-E20221002> (검색일: 2025년 12월 19일)
- Inter-Parliamentary Union. (2023). Parline Database on National Parliaments. Geneva: IPU. <https://data.ipu.org> (검색일: 2025년 10월 23일)
- Inter-Parliamentary Union. (2023). Ecuador: National Assembly election held on 20 August 2023. Parline Database. <https://data.ipu.org/parliament/EC/EC-LC01/election/EC-LC01-E20230820> (검색일: 2025년 12월 19일)
- Inter-Parliamentary Union. (2025a). Bolivia: Chamber of Deputies election held on 17 August 2025. Parline Database. <https://data.ipu.org/parliament/BO/BO-LC01/election/BO-LC01-E20250817> (검색일: 2025년 12월 19일)
- Inter-Parliamentary Union. (2025b). Chile: Chamber of Deputies election held on 16 November 2025. Parline Database. <https://data.ipu.org/parliament/CL/CL-LC01/election/CL-LC01-E20251116> (검색일: 2025년 12월 19일)
- JNE (Jurado Nacional de Elecciones). (2011). Reporte Estadístico Oficial de Elecciones. Lima: JNE. <https://portal.jne.gob.pe> (검색일: 2025년 10월 27일)
- JNE (Jurado Nacional de Elecciones). (2016). Resolución N° 0660-2016-JNE. Lima: JNE. <https://portal.jne.gob.pe> (검색일: 2025년 10월 27일)
- JNE (Jurado Nacional de Elecciones). (2021). Resolución N° 0602-2021-JNE. Lima: JNE. <https://portal.jne.gob.pe> (검색일: 2025년 10월 27일)
- Laakso, M., & Taagepera, R. (1979). "The Effective Number of Parties: A Measure with Application to West Europe".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12(1), 3-27.

- Latin American Public Opinion Project (LAPOP). (2020-2023). AmericasBarometer Surveys. Nashville, TN: Vanderbilt University. <https://www.vanderbilt.edu/lapop> (검색일: 2025년 10월 23일)
- Latin American Public Opinion Project (LAPOP). (2023). Legitimacy of Democracy and Trust in Political Parties. Nashville, TN: Vanderbilt University. <https://www.vanderbilt.edu/lapop> (검색일: 2025년 10월 23일)
- Levitsky, S., & Cameron, M. A. (2003). "Democracy without Parties? Political Parties and Regime Change in Fujimori's Peru". *Latin American Politics and Society*, 45(3), 1-33.
- Levitsky, S., & Zavaleta, M. (2019). "Why No Party-Building in Peru?" in M. Levitsky, J. Loxton, B. Van Dyck, & J. Domínguez (Eds.), *Challenges of Party-Building in Latin Americ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inz, J. J. (1990). "The Perils of Presidentialism". *Journal of Democracy*, 1(1), 51-69.
- Linz, J. J. (1994). Presidential or Parliamentary Democracy: Does It Make a Difference? in J. J. Linz & A. Valenzuela (Eds.), *The Failure of Presidential Democracy*. Baltimore, MD: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Llanos, M., & Marsteintredet, L. (Eds.). (2023). *Presidential Breakdowns in Latin America: Causes and Outcomes of Executive Instability in Developing Democracies*. Cham: Palgrave Macmillan.
- Mahoney, J. (2000). "Path Dependence in Historical Sociology". *Theory and Society*, 29(4), 507-548.
- Mainwaring, S. (1999). *Rethinking Party Systems in the Third Wave of Democratization: The Case of Brazil*.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Mainwaring, S., & Bizzarro, F. (2021). "The Fates of Third-Wave Democracies". *Journal of Democracy*, 32(2), 99-113.
- Mainwaring, S., & Scully, T. R. (Eds.). (1995). *Building Democratic Institutions: Party Systems in Latin America*.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Mainwaring, S., & Shugart, M. S. (Eds.). (1997). *Presidentialism and Democracy in Latin Americ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 Press.
- Ministerio de Economía y Finanzas. (2022). Reporte de Ejecución Presupuestaria. Lima: MEF. <https://www.mef.gob.pe> (검색일: 2025년 10월 27일)
- Moseley, M., & Cordill, C. (2012). *Economic Performance and Public Approval*. AmericasBarometer Insights, 78, 1-10.
- Negretto, G. L. (2006). "Minority Presidents and Democratic Performance in Latin America". *Latin American Politics and Society*, 48(3), 63-92.
- Neto, O. A. (2002). "Presidential Cabinets, Electoral Cycles, and Coalition Discipline in Brazil". in S. Morgenstern & B. Nacif (Eds.), *Legislative Politics in Latin Americ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ohlen, D. (2005). *Elections in the Americas: A Data Handbook* (Vol. 2).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North, D. C. (1990).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ficina Nacional de Procesos Electorales. (2016). Resultados Electorales Generales 2016. Lima: ONPE. <https://www.onpe.gob.pe> (검색일: 2025년 10월 27일)
- Oficina Nacional de Procesos Electorales. (2020). Resultados Electorales Generales 2020. Lima: ONPE. <https://www.onpe.gob.pe> (검색일: 2025년 10월 27일)
- Oficina Nacional de Procesos Electorales. (2021). Resultados Electorales Generales 2021. Lima: ONPE. <https://www.onpe.gob.pe> (검색일: 2025년 10월 27일)
- Pedersen, M. N. (1979). "The Dynamics of European Party Systems: Changing Patterns of Electoral Volatility".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7(1), 1-26.
- Pérez-Liñán, A. (2007). *Presidential Impeachment and the New Political Instability in Latin Americ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ierson, P. (2000). "Increasing Returns, Path Dependence, and the Study of Politic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4(2), 251-267.
- Power, T. J., & Zucco, C., Jr. (2009). "Estimating Ideology of Brazilian Legislative Parties, 1990-2005". *Latin American Research*

- Review*, 44(1), 218-246.
- Shugart, M. S., & Carey, J. M. (1992). *Presidents and Assemblies: Constitutional Design and Electoral Dynam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ransparencia. (2020). Análisis de Modificaciones a la Ley Anticorrupción. Lima: Asociación Civil Transparencia. <https://www.transparencia.org.pe> (검색일: 2025년 10월 27일)
- Transparency International. (2016-2020).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Berlin: Transparency International. <https://www.transparency.org/en/cpi> (검색일: 2025년 9월 30일)
- Tuesta, F. (2014). *Una Onda Expansiva: Las Revocatorias en el Perú y América Latina*. Lima: Jurado Nacional de Elecciones.
- Varieties of Democracy(V-Dem) Institute. (2023). Party System Linkage Indicators, V-Dem Dataset. Gothenburg: V-Dem Institute, University of Gothenburg. <https://www.v-dem.net> (검색일: 2025년 10월 23일)
- Varieties of Democracy(V-Dem) Institute. (2024). V-Dem Dataset Version 14. <https://www.v-dem.net/data/the-v-dem-dataset/> (검색일: 2025년 10월 23일)
- Vergara, A., & Watanabe, M. (2019). "Paraguay and Peru: The Mechanisms of Democratic Erosion". in C. de la Torre (Ed.), *Routledge Handbook of Global Populism*. London: Routledge.
- World Bank. (2020).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Washington, DC: World Bank. <https://databank.worldbank.org/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 (검색일: 2025년 10월 23일)

Article Received: 2025. 11. 27.

Revised: 2025. 12. 19.

Accepted: 2025. 12. 19.

19세기 아르헨티나의 국민 국가 형성에 대한 비판적 분석: 포섭과 배제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손혜현**

단독/고려대학교

ABSTRACT

A Critical Analysis of 19th-Century Argentine Nation-State Formation: Focusing o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Inclusion and Exclusion; This study reinterprets nineteenth-century Argentine nation state formation as a process shaped by selective inclusion and systematic exclusion rather than national integration. While the state promoted universal citizenship through constitutional reforms, education, conscription, and immigration policy, meaningful incorporation was largely limited to urban elites and European-descended populations. Indigenous peoples, Afro-Argentines, gauchos, rural workers, and women were marginalized through violence, disciplinary control, statistical erasure, and gendered citizenship norms. The study argues that Argentina's nation-building relied on constructing hierarchical boundaries that defined who counted as a full citizen.

Keywords: Argentine Nation-State Formation, Inclusion and Exclusion, Citizenship, Indigenous Peoples-Afro-Argentines-Gauchos, European white / 아르헨티나 국민 국가 형성, 포섭과 배제, 시민권, 원주민-흑인-가우초, 유럽계 백인

* 2023년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3S1A5C2A02095568)

** Hye-Hyun Son is a research professor of the Institute of Hispanic Studies at Korea University. Korea (alexandrason@korea.ac.kr)

서론

본 논문은 19세기 아르헨티나 국가형성을 기존의 제도화·중앙집권·근대화 중심의 서술에서 벗어나, 국가가 국민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포섭과 배제가 어떻게 제도화되었는가에 대한 관점에서 재해석하였다. 아르헨티나의 국민 국가 형성은 단순한 행정적 통합이나 영토 확장의 결과가 아니라, 누가 국민으로 포함되고 누가 비국민으로 배제되는가를 둘러싼 정치적 과정이었다.

1810년 5월 혁명은 자유롭고 평등한 공화국 수립을 표방했지만, 그 공화국이 상정한 ‘국민’의 범주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경제적 이해를 ‘국민’의 이름으로 정당화함에 따라 내륙의 농민, gaucho, 원주민, 흑인, 여성 등은 구조적으로 주변화되었다. 따라서 5월 혁명 이후 70여 년간 지속된 아르헨티나의 정치적 분열은 단순한 권력 투쟁이 아니라, 국가를 구성할 자격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었다.

아르헨티나 국가형성의 전통적 연구는 1853년 헌법 제정, 1880년 부에노스아이레스 연방화, 카우디요의 약화, 중앙집권적 행정의 확립 등을 근대국가 완성의 지표로 제시하며, 1880년을 근대국가의 ‘완성 시점’으로 규정해왔다(Halperín Donghi 1972: 213-220; Botana 1977: 9-14; Sabato, 1998: 11-13). 그러나 최근 연구는 아르헨티나의 국가형성이 통합의 과정이 아니라 포섭과 배제를 제도적으로 조직하는 과정이었음을 강조한다(Sabato 2018: 1-5; Quijada 2000: 31-38). 전통적 접근이 국가형성 과정의 폭력·배제·인종적 위계 등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O'Donnell, 1993: 1358-1361; Soifer 2015: 18-24).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헌법과 법제, 군사·노동 동원, 이민정책, 교육제도가 어떻게 특정 집단을 국민으로 포섭하는 동시에 다른 집단을 비국민으로 배제했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아르헨티나 국가형성은 보편적 시민권의 점진적 확대 과정이 아니라, 국민의 경계를 설정하고 사회적 위계를 조직하는 정치적 과정이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이론적 배경

선행연구 검토

19세기 아르헨티나 국가형성에 관한 연구는 크게 제도화와 중앙집권의 완성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 연구, 정치·사회사적 관점에서 국가형성을 재해석한 수정주의 연구, 그리고 최근의 시민권·정체성·배제 문제를 중심으로 한 비판적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전통적 연구는 독립 이후 약 70년에 이르는 내전과 정치적 분열을 하나의 발전 단계로 이해하며, 국가의 제도화가 1880년경에 비로서 완성되었다는 관점을 유지해 왔다. 대표적으로 리카르도 레베네(Ricardo Levene)는 국가 조직이 1880년에 이르러 완전히 통합되었다고 명시하며 국가발전의 선형적 구조를 강조하였다(Levene 1955:214). 이와 유사하게 알페린 동히(Halperín Donghi)의 고전적 저술은 1853년 헌법제정과 1880년 연방 수도의 확립을 아르헨티나 국가형성의 핵심 분기점으로 제시하며, 근대국가 제도의 안정화를 역사적 귀결로 설정하였다(Halperín Donghi 1972: 213-220; 1982: 15-18).

1960년대 이후 이러한 해석은 수정주의 연구에 의해 도전받았다. 가요(Ezequiel Gallo), 치아라몬테(José Carlos Chiamonte), 사바토(Hilda Sabato) 등은 전통적 국가완성론이 지나치게 중앙집권적이며, 지역 엘리트, 카우디요, 연방주의 등의 역할을 축소했다고 비판하였다. 특히 치아라몬테는 연방주의-중앙주의 갈등을 단순한 내전이나 파벌주의가 아니라 서로 다른 주권 개념의 충돌로 해석하며, 독립 시기 아르헨티나의 정치적 분열을 사상사적·제도사적 관점에서 접근했다(Chiamonte 1997: 31-35). 또한 사바토는 시민적 참여의 확대와 지역 수준의 정치 네트워크를 강조하며, 19세기 정치체제가 단순히 하향적 국가 건설 과정이 아니라 지방정치 사회가 국가를 구성해가는 상향적 과정이었음을 강조하였다(Sabat 2008: 55-60).

1980년대 후반 이후에는 국가형성을 갈등·폭력·배제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비판적 연구가 본격적으로 부상하였다. 이는 톨리(Charles Tilly)와 푸코(Michel Foucault) 등의 국가론과 탈식민주의 연구의 영향을 받아, 국가는

단순한 제도적 완성체가 아니라 폭력의 독점과 사회적 배제의 장치가 제도적으로 공고화되는 과정으로 파악하려는 시도였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독립전쟁(1810-1820), 연속적 내전, 지방 카우디요의 군사 동원, 황무지 정복(1870s-1880s) 등이 국가폭력 체제의 기반을 형성하였다. 대표적으로 마요(Carlos Mayo)와 디 메글리오(Gabriel Di Meglio)는 독립전쟁과 내전이 근대적 폭력 장치의 제도화를 촉발했다고 분석하며, 군사력·징병제·민병대 조직의 재편이 국가 형성의 핵심 동력임을 보여준다(Mayo 1995: 33-40; Di Meglio 2012: 67-72). 이러한 관점은 기존의 질서 회복=국가 건설의 논리와는 달리, 폭력과 무력 동원이 국가의 제도화 과정 전체에 구조적으로 내재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원주민 배제와 동화 정책을 국가형성의 핵심 요소로 파악하는 연구들은 포섭·배제 관점의 중요한 축을 이룬다. 델리오네는 파타고니아 지역에서의 ‘황무지 정복(conquista del desierto)’을 국가형성의 필수적 단계로 해석하며, 이 과정이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니라 원주민 공동체의 체계적 박탈과 강제 동화 정책이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분석은 아르헨티나 국가의 보편주의적 정체성 뒤에 숨겨진 폭력적 배제의 구조를 폭로한다(Delrio 2005: 25-32, 89-97). 이들은 원주민 박해와 토지 압수를 아르헨티나가 근대국가로 되기 위해서는 폭력적 정복이 필연적이었음을 강조한다.

시민권과 정치적 포섭과 배제의 문제를 분석하는 연구 역시 중요한 선행 연구의 흐름을 형성한다. 전통적 역사학이 강조해온 제도적 안정·영토 통합·근대화의 관점 대신, 누가 ‘국민’의 범주에 포함되고, 누가 제도적으로·사회적으로 배제되었는지를 중심으로 국가 건설의 성격을 재해석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국가형성의 과정이 단일하고 선형적인 제도 구축이 아니라, 시민권·폭력·노동·인종·성별·이주 정책을 통해 특정 집단을 정치공동체에 편입하거나 제외하는 정치적 선택이었음을 강조한다.

포섭과 배제를 중심으로 둔 논의의 핵심은 ‘국민’의 범주가 독립 이후 모두에게 열려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법적·사회적·문화적 경계를 통해 지속해서 재편되고 제한되었다는 사실을 밝히는 데 있다. 19세기 국가 건설 과정에서 특정 사회집단, 특히 하층민, 원주민, 흑인, 이민노동자, 여성 등이 배제되었다.

사바토는 19세기 아르헨티나 시민권이 보편적 권리라기보다 지속적인 배제의 장치로 작동했음을 지적하며, 국가형성을 포섭과 배제가 중첩적으

로 작동하는 정치적 실천의 결과로 해석한다(Sábato 2018: 1-5).

이민자 관련 연구에서도 포섭과 배제의 관점이 발전해왔다. 아르헨티나는 19세기 후반 대규모 유럽 이민을 받아들이면서 스스로 백인 공화국으로 재구성했고, 살레시(Salessi, 1995: 41-48)나 앤드류(Andrews, 1980: 5-12) 등의 연구는 이 과정에서 ‘인종의 위계화’가 제도적·문화적 기제로 사용되었음을 분석하였다.

또한 노동과 군사 동원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은 포섭이 종종 ‘동원 가능성’을 기준으로 이루어졌음을 밝힌다. 메글리오는 하층민과 농민이 민병대·군대 동원을 통해 제한적으로 ‘포섭’되었지만, 이 포섭이 정치적 권리의 확대로 이어지기보다는 노동력·군사력의 활용이라는 기능적 목적에 종속되었다는 점을 지적한다(Maglio, 2012: 91-96).

국내 연구 역시 이러한 흐름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며 라틴아메리카 국가 형성 일반론 또는 아르헨티나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해 왔다. 아르헨티나의 국가형성을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제한적인 편이나, 라틴아메리카 국가형성, 국민국가와 정체성, 시민권과 배제의 문제를 다룬 연구들이 있다. 특히 국내 연구는 아르헨티나를 라틴아메리카 근대국가 형성의 대표적 사례로 평가하며, 공화국의 제도적 수립과 실제 시민권의 작동 사이의 괴리를 비판적으로 조명해 왔다. 조영실(2011)의 연구는 아르헨티나 공화국 수립 과정을 단순한 독립 이후의 제도 정비 과정으로 파악하지 않고, 주권의 소재와 국가 권력의 조직 방식을 둘러싼 지속적인 정치적 투쟁의 결과로 이해하였다. 조영실의 연구는 아르헨티나 공화국 수립 과정의 정치적 맥락과 제도적 불안정성을 이해하는 데는 가치가 있으나, 주로 정치세력 간의 갈등과 헌정 질서의 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바, 국민이 어떻게 구성되고 위계화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전용갑(2016)은 「아르헨티나 국가 형성기 지적담론 연구: 37세대를 중심으로」에서 사르미엔토와 알베르디를 포함한 19세기 자유주의 지식인들이 상정한 국가와 국민 개념이 정치적 현실 속에서 어떻게 배타적으로 구성되었는지를 보여주었다. 이 연구는 아르헨티나 국가형성 과정이 특정한 국민상을 전제한 담론적 기획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서성철(2014)의 연구는 라틴아메리카 근대국가 형성에서 ‘국민국가’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를 정치사·사상사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라틴아메리

카의 국민 개념이 식민지 유산, 인정적·사회적 위계, 엘리트 중심의 정치문화 속에서 법적 평등의 원리보다는 통치 가능성을 기준으로 선별되었다는 지적은 아르헨티나에서 원주민·가우초·흑인이 국민 범주에서 어떻게 배제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근거를 제시한다.

박병규(2010)는 아르헨티나 문화정체성 형성과 근대 담론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사르미엔토의 문명화 담론이 남성 중심적 시민성을 전제하고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이순주(2025)는 「선별적 환대와 배제를 통한 ‘백색국민 만들기’: 아르헨티나 이민정책의 역사적 변천」에서 아르헨티나의 대규모 유럽 이민정책을 경제발전이나 노동력 수급의 문제로 환원하지 않고, 국가가 스스로 ‘백인·유럽 국가’로 재구성하기 위한 인구정치적 전략으로 해석하였다. 이 연구는 백인 이민자 포섭이 동시에 원주민과 비유럽계 인구의 배제를 강화하는 효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한다.

현재까지 진행된 국내 연구는 대체로 제도, 담론, 이민, 젠더 중 특정 요소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강하며, 헌법과 법제, 군사·노동 동원, 폭력이 어떻게 결합하여 국민과 비국민을 동시에 생산했는지를 하나의 분석 틀로 통합적으로 검토하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한계가 있다. 특히 ‘포섭’과 ‘배제’를 국가형성의 핵심 작동 메커니즘으로 명시적으로 조작화하고, 이를 다양한 정책과 텍스트에 체계적으로 적용한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국내외 선행연구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포섭과 배제를 분석의 중심 개념으로 설정함으로써 국가 형성 과정의 정치·제도적 성격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론적 틀: 포섭과 배제의 제도화

근대국가 형성론은 오랫동안 국가의 제도적 구축, 폭력 독점, 영토 통일과 같은 가시적 성취를 중심으로 분석되어 왔다(Tilly 1992: 67-70; Mann 1986: 112-118).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종종 국가의 형성 과정에서 누가 국민으로 포함되었으며, 누가 체계적으로 배제되었는가에 대한 본질적 질문을 주변화한다.

따라서 틸리의 ‘폭력-국가형성론’은 유럽 국가를 설명하는 데 유효하지만, 아르헨티나의 국가형성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아르헨티나에서 폭

력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국가 내부의 타자를 배제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장치로 작동했기 때문이다. 아르헨티나의 국가가 국민을 형성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폭력과 전쟁 중심의 분석이나 민족적 통합 중심의 이론으로는 그 복잡한 사회적, 정치적 갈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국가가 단지 전쟁을 통해 강해진 조직체가 아니라, 사회적 경계를 설정하고 시민권을 분배하는 권력체였다는 점을 부각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국민 국가 형성은 국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배제된 계층과 그들의 사회적 포섭이 이루어지지 않는 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 국가는 자연적 공동체가 아니라, 특정 역사적 맥락 속에서 국가가 제도·교육·담론·폭력의 장치를 동원하여 ‘국민’이라는 범주를 창출하는 정치적 구성물이다(Anderson 1983: 6-7). 국민 국가 형성은 본질적으로 두 가지 상호 연결된 행위를 포함한다.

첫째, 포섭의 과정이다. 국가는 헌법적 권리, 교육제도, 군 복무, 국가 상징(국가·국가·공휴일)의 공유를 통해 특정 집단을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인다. 이는 국민 정체성의 확립을 위한 긍정적 기제로서 기능한다. 둘째, 배제의 과정이다. 포섭이 누구를 국민으로 포함할지 결정한다면, 배제는 누구를 비국민으로 밀어낼지를 결정한다. 배제는 단순한 차별이 아니라, 국가형성의 구성적 조건으로서 작용한다.

이러한 이중 구조는 아르헨티나의 경우 특히 뚜렷하게 나타난다. 19세기 아르헨티나는 법적으로는 ‘모든 자유인은 시민’이라는 보편주의적 담론을 유지했지만, 실제 정치적 권리와 사회적 인정은 인종, 문해력, 계급, 거주 지역에 따라 극히 제한적으로 부여되었다. 따라서 국가형성은 법적 포섭과 사회적 배제가 겹쳐진 선별적·위계적 시민성 체제 구축의 과정이었다.

도밍고 파우스티노 사르미엔토(Domingo Faustino Sarmiento)의 『파쿤도 Facundo』(1845)는 아르헨티나 국가 건설의 이데올로기적 기반을 제공한 문헌으로 간주된다. 사르미엔토는 “문명은 도시이며, 유럽이며, 진보이고, 야만은 들판이며, 가우초이며, 원주민이며, 폭력이다”(Sarmiento 1845/2003: 51)라고 규정함으로써, 국가 건설의 방향을 ‘야만의 제거’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세계관은 국민을 ‘문명화된 국민’과 ‘통제가 필요한 국민’으로 이분화함으로써 원주민·가우초·흑인·농촌 빈민은 근대적 시민의 기준

에서 벗어난 ‘비국민’으로 규정하였다. 국가는 배제를 폭력이 아니라 국가발전의 필요조건으로 정당화하였다. 1879년의 ‘황무지정복’은 ‘문명과 야만’이라는 담론 속에서 집행되었으며, 이는 폭력이 통치의 한 양식으로 작동함을 보여준다.

아르헨티나는 19세기 내내 유럽 이민을 국가 정체성의 핵심 요소로 삼았다. 엘리트들은 백인성(whiteness)과 유럽적 생활양식을 근대적 시민의 기준으로 설정했다. 그 결과 원주민·흑인·가우초·농촌 빈민은 비국민으로 간주되었다. 학교 제도는 유럽 모델을 모범으로 삼았고, 표준화된 스페인어 능력은 시민성의 평가 기준이 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원주민의 언어·지역 방언·구전 문화 등을 ‘낙후성’으로 규정하였다. 정치 제도는 겉으로는 포괄적이었지만, 실제 참여는 교육·문해력·재산을 기준으로 제한되었다. 이는 시민권이 법적으로는 평등하나, 실제로는 문화적 자본의 독점을 통해 불평등하게 배분되었음을 보여준다.

국가 형성은 국민 범주를 구성하는 과정이다. 특정 집단을 국민으로 만들고 타자를 구조적으로 배제한다. 아르헨티나의 국민국가는 포섭과 배제를 통해 구성된 위계적 근대국가 체제로 국민국가는 통합의 산물이 아니라 배제의 제도화 결과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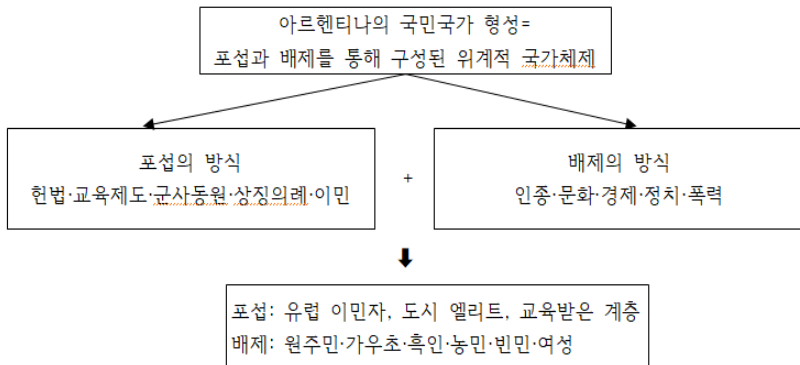


그림 1. 분석틀

출처: 저자작성

본 연구에서 ‘포섭’과 ‘배제’는 국가의 통합 여부를 규범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개념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 범주를 구성하는 과정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적 도구로 사용된다. 즉, 포섭과 배제는 추상적 이념이나 결과가 아니라, 19세기 아르헨티나 국가형성 과정에서 법·제도·정책·담론·폭력의 작동 속에서 관찰 가능한 사회적 과정으로 조작화 한다.

본 연구에서 포섭은 국가가 헌법, 법제, 교육, 군사·노동 동원, 이민정책 등을 통해 특정 인구를 형식적인 시민으로 인정하거나 국민으로 호명하는 제도적·담론적 장치를 의미한다. 반면 배제는 동일한 장치가 실제 권리 행사, 사회적 인정, 정치적 대표성의 차원에서 특정 집단을 구조적으로 제한하거나 주변화하는 작동 방식을 가리킨다. 이때 포섭과 배제는 상호 배타적인 과정이 아니라, 동일한 제도와 정책 안에서 동시에 작동하는 중첩적 과정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개념 정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포섭과 배제를 다음의 네 가지 분석 차원에서 조작화 하였다. 첫째, 법·제도적 차원에서 포섭은 헌법과 법률이 보편적 시민권을 선언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며, 배제는 참정권, 법적 행위능력, 정치 참여 요건에 부과된 조건을 통해 구체화된다. 둘째, 제도의 실제 작동 차원에서 포섭은 국민 통합을 표방하는 제도의 형식적 설계로 나타나고, 배제는 해당 제도에 대한 접근성이 특정 집단에게만 허용되는 운영 방식에서 관찰된다. 셋째, 담론적 차원에서 포섭은 ‘국민’, ‘문명’, ‘공화국’의 이상적 표준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수행되며, 배제는 그 기준에서 벗어난 집단을 ‘야만’ 또는 ‘관리 대상 인구’로 규정하는 표상에서 드러난다. 넷째, 폭력과 인구정치의 차원에서 포섭은 군사·노동 동원을 통해 국민으로 일시적으로 호명되는 과정으로 나타나고, 배제는 동원 이후 권리와 보호가 부여되지 않은 채 다시 주변화되는 구조에서 확인된다.

이와 같은 조작화를 통해 본 연구는 포섭과 배제를 개별 정책의 성과나 실패로 환원하지 않고, 국가가 국민의 경계를 설정하고 사회적 위계를 조직하는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정치적 실천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아르헨티나 국가형성은 통합의 선형적 과정이 아니라, 포섭과 배제가 중첩적으로 작동하는 경계 정치의 과정으로 해석된다.

포섭의 제도화: 국민 범주 구성과 제도적 통합 전략

아르헨티나에서 포섭은 국가가 특정 집단을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형식적으로 인정하거나, 그렇게 보이도록 만드는 제도적 장치의 확립 과정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포섭은 보편주의적 시민권의 확장이 아니었으며, 근본적으로 국가에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집단을 선별적으로 통합하는 기능적 포섭에 가까웠다(O'Donnell 1993: 1358-1361; Sabato 2018: 4-6).

헌법과 법제를 통한 형식적 포섭

19세기 아르헨티나에서 헌법과 법제의 정비는 국가가 국민을 포섭하는 가장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장치로 기능하였다. 특히 1853년 헌법은 자유주의적·공화주의적 원리를 바탕으로 ‘모든 자유인은 시민이며, 법 앞의 평등이 보장된다’는 보편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다양한 인구를 단일한 정치공동체로 포함하는 것처럼 보이는 포괄적 시민권 질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헌정 질서는 국제사회에 근대국가의 외형을 갖추었음을 선언하는 동시에, 국내적으로는 긴 내전과 분열 이후 통합된 정치체제로의 이행을 가능하게 하는 상징적 효과를 발휘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헌법적 보편주의는 실제 정치·사회 질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인구가 시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실질적 보편성을 보장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표면적 포섭을 통해 배제를 은폐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실제로 헌법이 선언한 포섭은 정치적 권리의 실질적 행사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엄격한 제도적 조건에 의해 제약되었다. 참정권은 일정 수준 이상의 문해력, 재산, 정주 요건을 충족한 남성에게만 부여되었고, 이는 헌법적 보편주의와 현실의 정치 참여 사이에 구조적 간극을 형성하였다. 여성, 원주민, 흑인, 가우초, 농촌 하층민 등은 법적으로 시민 범주 안에 속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제도·행정 접근성·사법 구조 등에서 지속해서 배제되었다. 이처럼 헌법상의 시민 범주는 누구나 접근 가능한 것처럼 제시되었지만, 실제 제도적 작동은 소수 엘리트에게만 실질적 시민권을 보장함으로써 배제를 제도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헌법은 포섭의 언어를 통해 국가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배제의 현실을 정당화하는 상징적 장치로 기능하였다. 형식적 평등의 선언은 국가가 모든 이에게 시민권을 부여했다는 외형을 유지하게 했지만, 제도적으로 구축된 조건들은 특정 집단만이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다. 이러한 구조는 오도넬이 지적한 법적 시민권과 실제 시민권의 괴리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법제가 포섭을 약속하더라도, 국가 권력의 시행 능력과 사회적 불평등이 결합할 때 실제 시민권은 극도로 분절되어 나타난다(O'Donnell 1993: 1358-1361; 2000: 14-16). 결국 헌법과 법제를 통한 포섭은 통합의 완성이라기보다, 국민 범주를 규정하는 기준을 상징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국가의 근대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기능을 수행하였고, 그 이면에서는 누가 '실제' 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선별하는 위계적 질서를 제도화하였다.

따라서 헌법적 포섭은 국가가 스스로를 포괄적·근대적 국민국가로 표상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으나, 그 실질적 결과는 제한적 시민권 구조를 견고히 하는 것이었으며, 아르헨티나의 19세기 국가형성은 이러한 표면적 포섭과 구조적 배제가 중첩된 체제 속에서 전개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교육제도의 확립과 국민 만들기의 상징적 포섭

교육제도는 국민 국가 형성 과정에서 단순히 문해력을 확산시키는 기능을 넘어서, 국민이라는 상상의 공동체를 구체적 경험으로 전환하는 핵심 장치로 작동하였다. 앤더슨이 지적하듯, 국민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집단이 아니라, 인쇄자본주의·교육·국어의 표준화 등을 통해 구성되는 상상된 공동체이다(Anderson 1983: 6-7). 학교는 이러한 상상의 공동체를 일상적 실천과 규율의 차원에서 체화시키는 장소였다.

또한 부르디외의 관점에서 보면, 교육제도는 국가가 승인한 특정 언어·문화·규범을 '합법적 문화'로 설정하고, 이를 내면화한 집단에 상징자본을 부여하는 장치이다(Bourdieu 1994: 88-95). 이 과정에서 교육은 겉으로는 보편적 기회 제공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특정 계층·인종·지역의 문화를 정상으로, 다른 문화들을 야만으로 범주화함으로써 상징적 폭력을 행사한다.

따라서 교육제도의 확립과 국민 만들기의 상징적 포섭이란, 한편으로는

다양한 인구를 국민이라는 동일한 범주로 통합하는 작업이면서, 동시에 국민이 될 자격이 있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문화적 기준을 통해 선별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도밍고 F. 사르미엔토(Domingo F. Sarmiento)는 『파쿤도(Facundo)』(1845)에서 문명의 핵심 도구로 학교와 교육제도를 상정했다. 사르미엔토와 그의 추종자들은 공교육의 확립을 통해 표준 스페인어, 유럽식 역사·지리·도덕 교과과정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다양한 지역·계층 출신의 인구를 동일한 언어·담론·상징 속에 묶어내는 ‘국민 만들기’가 가능하다고 보았다(Sábato 2018: 31-35).

19세기 아르헨티나에서 교육제도의 확립은 단순한 문해력 향상을 넘어, 국가가 국민을 만들어내는 핵심 장치로 기능하였다. 교육을 받은 집단은 점차 동일한 언어와 규범을 공유하는 국민으로 인정되었고, 교육제도는 이러한 정체성을 일상적으로 체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이러한 포섭은 결코 보편적이지 않았다. 교육 접근성은 도시와 농촌, 유럽계와 비유럽계, 부에노스아이레스 중심부와 내륙 지역 사이에서 극명하게 달랐고, 그 결과 교육을 통해 국민으로 편입된 집단은 주로 도시·중산층·유럽계 인구에 한정되었다. 반대로 원주민·흑인·가우초·내륙 농민 등 많은 집단은 학교라는 국가적 통합 장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 따라서 교육은 포섭의 수단이면서도 동시에 배제를 심화시키는 기제가 되었다.

결국 19세기 교육제도는 ‘국민 만들기’라는 명분 아래 통합을 구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선택적으로 포섭할 대상을 정하고,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집단을 배제하거나 주변부로 밀어내는 상징적 권력 장치였다.

군사·노동 동원을 통한 기능적 포섭

19세기 아르헨티나에서 군사적·노동적 동원은 국가가 대중을 포섭하는 가장 직접적이고도 전략적인 방식으로 기능하였다. 독립전쟁과 그 이후의 내전이 장기간 지속된 정치적 맥락에서, 국가는 광범위한 하층민·가우초·내륙 농민·흑인을 전쟁, 국경 방위, 치안 유지, 토지 개척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대규모로 동원하였다(Di Meglio 2012: 67-72; Halperin Donghi 1982: 73-78). 이러한 동원은 국가가 형식적으로는 이들에게 ‘조국의 수호자’라는

상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 호명하는 행위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권리의 확대 또는 정치적 대표성으로 이어지지 않은 점에서 기능적·도구적 포섭으로 규정할 수 있다¹⁾.

군사 동원은 이러한 기능적 포섭의 성격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준다. 독립 전쟁 시기 민병대와 정규군의 핵심 구성원은 가우초와 도시 빈민이었으며, 로사스 체제 역시 광범위한 민병대를 통해 하층민을 전쟁과 치안의 자원으로 활용하였다(Mayo 1995:33-40; Di Meglio 2012:91-96). 그러나 전쟁 참여는 이들에게 시민권의 확대를 가져오지 않았고, 군복무는 종종 국가에 의한 통제와 처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특히 가우초는 부랑자로 분류되면 강제 징집이 가능했으며, 이는 그들이 국민으로 포섭되기보다는 치안·징병 장치로 통제되는 인구로 취급되었음을 보여준다(Suriano 1999). 즉, 군사 동원은 이들이 국가에 기여하는 순간에는 포섭을, 평시에는 배제를 적용하는 이중적 구조를 형성하였다.

노동 동원 역시 동일한 논리를 따른다. 국가는 농업 확장, 도로 건설, 국경 개척 등에서 가우초·농민·원주민을 불안정한 형태의 노동력으로 활용하였다(Halperin Donghi 1972: 145-148). 이러한 동원은 국가발전을 위한 포섭처럼 제시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노동권·사회적 보호·자산 축적의 기회 제공과는 거의 연결되지 않았다. 특히 원주민과 가우초의 노동은 종종 강제성 또는 준 강제적 형태로 조직되었으며, 국가는 이들의 노동을 필요에 따라 동원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시민적 권리나 사회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²⁾ 이처럼 노동 동원은 경제적 포섭을 표방하면서도, 그 대상을 주변부로 고정시키는 배제적 포섭의 성격을 강화하였다.

유럽 이민자 포섭 : 인구정치학적 포섭

19세기 후반 아르헨티나의 대규모 유럽 이민자 유치는 단순한 노동력

-
- 1) 군사 동원은 국가가 하층민을 국민으로 상징적으로 인정하는 장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들을 전쟁자원으로 활용한 뒤 다시 사회적 주변부로 되돌리는 순환 구조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군사 동원은 포섭보다 규율과 통제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 권력의 기술로 이해될 수 있다.
 - 2) 원주민과 가우초의 노동은 국가·지방 엘리트의 경제적 필요에 따라 동원되었으나,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정치적 권한 부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노동이 포섭의 이름을 빌려 수행된 구조적 착취였음을 보여준다.

충원이나 인구증가를 넘어서 국가 정체성을 백인·유럽적 정체성과 결합하는 인구정치학적 포섭 전략이었다(Andrews 1980: 5-12; Salessi 1995: 41-48, 이순주: 2025: 198-199).

자유주의 엘리트들은 유럽 이민을 문명·교육·규율·근대성의 담지자로 상상하며, 국가발전의 중심적 주체로 인식했다(Sarmiento 1845/2003). 이러한 구상은 아르헨티나 국민국가의 정체성을 백인·유럽적 요소에 기반해 재구성하려는 시도로, 곧 ‘백인 공화국’의 형성을 목표로 한 담론적·정책적 노력으로 발전하였다(Quijada 2000: 31-35).

국가는 이민자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토지 분배, 농업 식민지 설치, 신속한 시민권 획득 경로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유럽 이민을 선별적으로 포섭하였다(Scobie 1971: 88-92). 도시 지역에서는 이탈리아·스페인 등 남유럽 이민이 상공업·서비스·수공업 분야를 빠르게 장악하며 새로운 중간계급을 형성하였다(Baily 1999: 55-60). 이러한 경제적·사회적 구성은 유럽 이민자 집단이 국가의 이상적 국민상에 가장 근접한 존재로 인정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Andrews 1980: 5-12).

그러나 유럽 이민의 포섭은 포섭 자체보다 배제를 동반하는 인구학적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국가가 유럽 이민을 국민 범주의 중심으로 상정하는 동시에, 원주민·흑인·가우초 등 비 백인 집단은 국민 만들기과 제도적 보호에서 점차 주변화되었다(Salessi 1995; Delrio 2005: 89-97). 황무지정복 이후 원주민은 물리적·법적·문화적 배제의 대상으로 재정의되었고, 흑인은 전쟁·질병·혼혈·통계적 삭제 등을 통해 국가의 공식 기억에서 사라지기 시작했다. 국가가 인정하는 ‘국민’의 표준이 백인성과 유럽성에 기반하면서, 시민권은 형식적으로는 보편적이지만, 실제로는 인종·문화에 의해 위계화된 권리로 재편되었다(O'Donnell 1993: 1362-1366; 이순주 2025: 200-201).

결국 유럽 이민의 포섭은 아르헨티나가 스스로를 백인·유럽 국가로 재구성하기 위한 의도된 인구학적 설계였으며, 포섭과 배제가 동시에 작동하는 국민 형성 전략이었다. 이로써 19세기 후반 아르헨티나는 국가적 단일성을 인종적·문화적 동질성으로 동일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갔고, ‘백인 공화국’이라는 자기 정체성이 제도와 담론 속에 공고히 자리 잡았다.

배제의 제도화 : 비국민의 생산

포섭이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구를 국민 범주 안으로 끌어들이는 과정이었다면, 배제는 그 범주 밖에 남겨질 집단을 결정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고정하는 과정이었다. 아르헨티나의 국민 국가 형성에서 배제는 법·교육·폭력·담론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실행되었다.

원주민: 황무지정복과 폭력적 배제

19세기 후반 아르헨티나에서 진행된 황무지정복은 단순한 영토 확장 정책이 아니라, 국가형성 과정에서 원주민을 체계적으로 배제하고 비국민으로 재정의하는 폭력적 인구정치의 절정이었다. 자유주의 엘리트들은 남부와 파타고니아 지역을 인구가 없는 황무지로 규정하고, 그 안에 존재하던 원주민과 그들의 영토를 정복 가능한 공간으로 상징화하였다(Delrio 2005: 25-32; Quijada 2000: 31-35).

이러한 담론은 원주민을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이 아니라, 국가가 문명화를 위해 제거·정복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는 이데올로기적 틀을 제공했다. 특히 사르미엔토가 제시한 문명/야만(civilización/barbaric)의 이분법은 원주민에 대한 폭력을 ‘문명의 확장’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하는 핵심 논리로 작동하였다(Sarmiento 1845/2003).

1870년대 후반 로카(Julio Argentino Roca)가 이끈 군사 원정은 이러한 인식 틀을 실질적 폭력으로 전환하는 행위였다. 국가군은 원주민 거주지를 공격했고, 그 과정에서 살상, 포로화, 강제 이주, 공동체 해체가 대규모로 발생하였다(Halperín Donghi 1982: 201-205; Delrio 2005: 89-97). 남성들은 전투 중 살해되거나 강제노동에 동원되었고, 여성과 아동은 포로로 잡혀 도시 가정·농장·군사시설 등으로 강제 배치되었다(Bohoslavsky 2017: 64-70). 이러한 조치는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원주민 공동체의 사회적 기반을 해체하고 인구를 분산·통제하려는 국가적 기획이었다.³⁾

정복 이후 국가는 원주민 사회가 오랫동안 점유했던 광대한 영토를 국유

3) 군사 원정 이후 많은 원주민 아동·여성이 ‘구제(protección)’의 명목으로 가정·농장·교회에 분산 배치되었으며, 이는 실질적으로 강제동화와 노동 착취의 체제였다는 점이 여러 연구에서 지적된다(Delrio 2005).

지로 편입한 뒤, 이를 대지주·군 장교·유럽 이민 식민지에 분배함으로써 원주민의 토지 권리 박탈을 제도화하였다(Halperín Donghi 1982: 210-215). 원주민은 경제적·정치적·법적 측면에서 국민 범주의 주변부로 밀려났고, 국가 행정 문서에서는 ‘문명화가 필요한 인구,’ 노동·복무의 대상으로 관리해야 하는 존재’로 규정되었다(Delrio 2005: 101-108). 주민이 단지 군사적 폭력의 희생자일 뿐 아니라, 법·행정 체계 속에서도 체계적으로 비 국민화된 집단이었음을 보여준다.

흑인 : 보이지 않는 국민 생산

19세기 아르헨티나에서 흑인 공동체는 국가형성과정 속에서 점진적·구조적 비가시화의 대상이 되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와 주요 도시에는 19세기 초까지 상당한 규모의 흑인 공동체가 존재했다. 이들은 독립전쟁과 내전에 적극적으로 동원되었지만, 전후 사회에서 점차 통계·담론·공적 기억에서 사라지는 집단이 되었다. 특히 자유주의 엘리트의 담론에서 ‘문명’은 백인성과 유럽성에 결부되었으며, 흑인 공동체는 국가발전의 상징적 공간에서 배제된 집단이 되었다(Salessi 1995: 41-48). 이처럼 흑인 인구는 법적으로는 시민 범주에 포함되면서도, 문화적·사회적·통계적 측면에서는 점진적으로 지워지는 ‘보이지 않는 국민(invisible citizens)’으로 재구성되었다.

흑인 공동체의 비가시성은 국가 통계와 인구조사에서 드러난다. 19세기 후반 인구조사에서 ‘흑인’·‘혼혈’·‘유색인’ 분류가 점차 축소되고 삭제되면서, 흑인 인구는 서류상 국가 기록에서 지워졌다(Andrews 1980: 35-40). 이는 곧 국가가 스스로 백인·유럽 국가로 정의하는 데 필요한 통계적 조작이자, 인구의 ‘백인화(blanqueamiento)’ 과정의 일부였음을 말해준다. 혼혈 인구가 인종 분류상 ‘백인’으로 재편입되면서, 흑인 공동체는 통계적·행정적 차원에서 점점 더 축소되어 나타났고, 이는 비가시화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였다.

군사·노동 동원 또한 흑인 공동체의 축소와 비가시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독립전쟁과 내전에서 흑인 병사들은 주요 전투력을 구성하였지만, 그들의 희생은 시민권의 실질적 확대로 이어지지 않았다(Andrews 1980:58-63). 오히려 높은 전쟁 사망률과 열악한 생활 환경은 흑인 인구 감소를 가속화 하였고, 국가는 이를 구조적 폭력의 결과가 아닌 자연적 감소로 설명함으로써 책임을 회피했다(Salessi 1995: 41-48). 이

문화적·상징적 영역에서도 흑인 지우기는 뚜렷했다. 19세기 후반 신문·문학·예술 담론은 흑인의 존재를 과거의 잔재, 식민지의 유물로 묘사했고, 도시 문화에서 흑인의 역할은 점차 축소되거나 카니발·춤 같은 민속적 이미지로만 표상되었다(Salessi 1995: 55-60). 국가적 역사 서술 역시 흑인의 기여를 배제하거나 미미하게 취급했고, 이는 아르헨티나의 국민 서사에서 흑인을 보이지 않는 존재로 만들었다(Andrews 1980: 58-63; Bohoslavsky 2017: 112-115).

법·행정적 측면에서도 흑인들은 포섭과 배제가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 속에 놓였다. 법적으로는 시민권을 부여받았으나, 실제로는 사법 접근, 정치 참여, 교육 기회 등에서 심각한 제약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법적 시민권과 실제 시민권의 괴리로 설명될 수 있다.(O'Donnell 1993: 1362-1366).

이같이 흑인은 통계적 삭제, 군사·노동 동원 이후의 방치, 문화·기억에서의 주변화, 제도적 차별 등을 통해 국가 내부에 존재하나 국가가 인정하지 않는 ‘보이지 않는 국민(*invisible citizens*)’으로 재구성되었다.

가우초와 농촌 하층민: 내부의 타자화

19세기 아르헨티나의 국민 국가 형성 과정에서 가우초와 농촌 하층민은 이중적인 위치를 부여받았다. 이들은 독립전쟁과 내전, 국경 방어, 토지 개척 등에 동원되는 핵심 인적 자원이었지만, 자유주의 엘리트와 도시 지식인 담론 속에서 문명에 위협이 되는 위협한 인구, 즉 규율과 통제의 대상이 되는 ‘내부의 타자’로 규정되었다(Sarmiento 1845/2003: 60-65; Halperín Donghi 1972: 145-148). 특히 광범위한 이동성, 계절적·유동적 노동, 약한 정주성이 특징인 가우초의 생활양식은, 근대국가가 요구하는 정주·규율·조세·징병 체제와 충돌하는 요소로 인식되었다(Mayo 1995: 33-36).

사르미엔토의 『파쿰도』에서 가우초는 자연 상태에 가까운 존재, 폭력과 충돌, 개인적 용맹의 세계에 사는 인물로 묘사되면서, 도시·교육·유럽을 중심으로 한 ‘문명’과 대비됐다(Sarmiento 1845/2003: 60-65). 여기서 가우초는 야만의 표상으로 국가형성을 지연시키는 존재로 묘사된다.

19세기 중반 이후 지방 당국과 중앙정부는 일정한 고용·정주 관계를 갖지

않고 방랑하는 가우초와 농촌 하층민을 부랑자로 범주화하여 이들을 형벌·강제노역·징집의 대상으로 규정하였다(Mayo 1995; Suriano 1999).

목축 중심의 수출경제가 확장되고 대토지 소유제가 강화되면서, 많은 소농·소작농·무토지 농민은 임시·계절 노동, 유동적 고용에 의존하게 되었다(Halperín Donghi 1982: 160-165; Gallo 1984: 55-60). 국가는 이들을 근대적 농업경제의 지지 기반으로 포섭하기보다는, 저임금·유동적 노동력으로 활용하였다. 이처럼 농촌 하층민은 국민경제의 토대를 형성했음에도, 시민권·사회적 보호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치안과 통제 대상으로 다루어졌다.

여성: 남성 중심의 젠더화된 시민권

19세기 아르헨티나에서 시민권은 명백히 남성 중심적이었다. 여성은 가정·도덕·도시 문명 유지에 필수적인 존재로 인정되었지만, 정치적 주체로는 거의 고려되지 않았다. 헌법과 민법은 여성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았으나, 여성에게 부여된 사회적 역할을 가정·도덕·재생산의 영역으로 한정함으로써, 여성을 정치적 시민권의 주체로 인정하는 데에는 소극적이었다(Guy 1991; Nari 2004). 이 때문에 여성은 법적으로 국민의 범주 안에 포함되었지만, 현실에서는 참정권·공적 대표·정치적 결정권에서는 일관되게 배제되었다(O'Donnell 1993).

근대 자유주의 엘리트가 상정한 시민의 표준은 재산·교육·정치적 이성을 갖춘 공적 영역의 남성이었고, 여성은 도덕적 정숙, 가사, 양육 등의 덕목에 기반한 주체로 규정되었으며, 이는 여성의 공적 권리 제한을 정당화하는 담론적 기반을 제공하였다(Sarmiento 1845/2003; Lobato 2000). 이처럼 시민권이 성별 분업을 전제로 조직되면서, 여성은 국민국가의 재생산과 도덕적 기반을 떠받치는 핵심적 존재로 동원되었음에도,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으로는 완전히 포함되지 못한 불완전한 시민으로 남았다.

법제 또한 이러한 젠더화된 시민권 구조를 강화하였다. 기혼 여성은 민법상 남편의 법적·경제적 권위 아래 종속되었고, 재산권·계약권·행위능력은 제한적으로만 행사할 수 있었다(Nari 2004: 30-32). 이로써 여성은 국가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법적 주체가 아니라, 가족 단위를 매개로 한 간접적 시민성을 부여받았다. 특히 선거제도는 여성의 정치 참여를 완전히 배제하였으

며, 여성의 사회활동은 자선·종교·교육 운동 등 비공식 영역으로 제한되었다(Lobato 2000: 23-25). 이는 여성이 공적 공간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 자체를 구조적으로 차단하였다.

교육제도 역시 여성의 시민권 배제를 재생산하였다. 여성 교육은 확대되었지만, 그 목적은 도덕적 어머니와 가정 교사의 양성에 맞추어져 있었으며, 정치적 주체 형성이나 시민적 참여를 지향하지 않았다(Guy 1991). 즉, 교육은 여성에게 제한적 교양을 부여하는 동시에, 공적 영역에서의 배제를 자연화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

결론

본 연구는 19세기 아르헨티나 국가형성을 기존의 제도화·중앙집권·근대화 중심의 통합 서사에서 벗어나, 국가가 ‘국민’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포섭과 배제가 어떻게 제도화되었는가를 관점을 통해 재해석하였다. 분석 결과 아르헨티나의 국가형성은 통합의 역사라기보다, 특정 집단을 선택적으로 포함하고 동시에 다른 집단을 체계적으로 배제하는 과정 속에서 구축된 복합적 정치구조였음이 드러났다. 다시 말해, 1810년 혁명에서 1880년 자유주의 국가체제의 정착에 이르기까지의 시기는 ‘국민’의 범주를 확장하는 과정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선별적으로 창출하고 인구를 위계적으로 분류하는 역사였다.

첫째, 헌법·법제·교육제도·국가 상징 등은 모두 보편적 시민권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문해력·재산·성별·인종·지역을 기준으로 시민권을 제한하는 ‘표면적 포섭’의 장치였다. 국가는 자신을 근대적 공화국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보편주의적 언어를 사용했지만, 제도의 실질적 작동은 소수의 도시 엘리트와 유럽계 중산층만을 완전한 시민으로 인정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법적 시민권과 실제 시민권의 극심한 괴리를 보여주며, 국가 제도는 포섭을 약속하면서 동시에 배제를 은폐하는 이중 구조로 기능했다.

둘째, 국가형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군사·노동 동원은 대중을 정치공동체로 통합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국민으로 호출했다가 다시 주변부로 되돌리는 기능적 포섭이었다. gaucho·하층민·흑인 공동체 등은 독립전쟁과 내전에 동원되었으나, 그 기여는 시민권의 확대로 이어

지지 않았고 오히려 전쟁·치안·징병을 통한 규율·통제의 장치로 이용되었다. 이는 포섭이 곧 배제를 위한 기술로 작동했음을 보여준다.

셋째, 19세기 후반의 대규모 유럽 이민정책은 아르헨티나를 스스로 ‘백인 공화국’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인구정치적 기획이었다. 유럽 이민자는 포섭의 대상이 되었지만, 그 포섭은 곧 원주민·흑인·가우초를 비국민으로 재정의하는 배제의 기제로 작동하였다. 시민권은 인종적·문화적 기준을 통해 위계화되었고, 이는 국가 정체성과 국민 범주가 인종적 동질성에 기반해 재편되는 과정이었다.

넷째, 원주민과 흑인 공동체에 대한 폭력적·상징적 배제는 아르헨티나 국가형성의 핵심적 기제였다. 사막정복은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니라 인구의 제거·재배치·동화·삭제를 통한 비국민의 생산이었으며, 이는 근대국가 건설을 위한 필수적 단계로 정당화되었다. 흑인 공동체의 경우 통계·기억·문화에서의 체계적 삭제를 통해 ‘보이지 않는 국민’으로 전락하였다. 이들은 국가 내부에 존재했지만 국가의 인정과 보호로부터 배제된 집단이었다.

이상을 종합하면, 아르헨티나 국가형성은 기존의 해석처럼 1880년에 ‘근대국가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 포섭과 배제를 제도적으로 조직하고 국가-사회관계를 위계화하는 과정이 19세기 내내 누적되면서 형성된 정치적 구성물이었다. 국가는 통합의 담론 속에서 끊임없이 경계를 설정하고 특정 인구를 시민권의 중심으로, 다른 인구를 주변부·비국민으로 밀어내는 방식으로 자신을 구축해 왔다. 따라서 국가형성은 곧 누가 국민이며 누가 국민이 아닌지를 결정하는 경계정치의 역사였으며, 이는 이후 아르헨티나 사회의 불평등·정치적 갈등·정체성 분열의 구조적 기반을 형성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서 아르헨티나 국가형성을 단일한 제도 발전이나 현정주의적 진보의 역사로 보지 않고, 포섭과 배제가 중첩된 정치사회적 과정으로 재구성함으로써, 19세기 국가형성 연구에 새로운 분석적 시각을 제시한다. 나아가 국가를 통합의 기구가 아니라 사회적 위계를 조직하고 차등적 시민권을 배분하는 권력체로 이해할 때, 아르헨티나뿐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 전체의 국가형성을 보다 비판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분석틀을 제공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국가가 어떻게 사회를 구성하고, 사회가 어떻게 국가를 규정하는가라는 보다 넓은 비교정치·역사사회학적 논의에도 기여한다.

참고문헌

- 박병규.(2010). 「아르헨티나 문화정체성의 형성과 보르헤스」 . *이베로아메리카 연구*, 12(2), 65-92.
- 서성철.(2014).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아프로.아르헨티나인: 19세기 흑인 인구의 은폐 과정, *라틴아메리카연구*, 제 27권 2호, 109-132.
- 이순주.(2025). 「선별적 환대와 배제를 통한 ‘백색국민 만들기’: 아르헨티나 이민 정책의 역사적 변천」 . *국제지역연구*, 29(4), 197-215.
- 전용갑.(2016). 아르헨티나 국가형성기 지적담론 연구: 37세대를 중심으로. *서양사론*, 131, 93-125.
- 조영실.(2011). 「독립 후 아르헨티나공화국의 수립과정 연구: 연방파와 통합파의 갈등을 중심으로」 , *이베로아메리카*, 제 13권 1호, 287-317
- Anderson, B. (1983).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Verso
- Andrews, G. R. (1980). *The Afro-Argentines of Buenos Aires, 1800-1900*.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Baily, S. (1999). *Immigrants in the lands of promise: Italians in Buenos Aires and New York City, 1870-1914*. Cornell University Press.
- Bohoslavsky, E. (2017). *La frontera de la violencia estatal*. Buenos Aires: Prometeo.
- Bourdieu, P. (1998). *Practical Reason: On the Theory of Action*.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Delrio, W. (2005). *Memorias de expropiación: Sometimiento e incorporación indígena en la Patagonia*. Universidad Nacional de Quilmes.
- Di Meglio, G. (2012). *¡Viva el bajo pueblo!: La plebe urbana de Buenos Aires y la política entre la revolución de mayo y el rosismo*. Sudamericana.
- Guy, D. (1991). *Sex and danger in Buenos Aires: Prostitution, family, and nation in Argentina*.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Halperín Donghi, T. (1972). *De la revolución de independencia a la confederación rosista*. Buenos Aires: Paidós.
- Halperín Donghi, T. (1982). *Proyecto y construcción de una nación. Buenos Aires*. Ariel.
- Chiaromonte, José Carlos (1997), *Nación y Estado en Iberoamérica, Buenos Aires*. Sudamericana.
- Foucault, M. (2003). *Society must be defended: Lectures at the Collège de France, 1975-1976 (D. Macey, Trans.)*. Picador.

- Gallo, E. (1984). *La pampa gringa*. Buenos Aires: Sudamericana.
- Mayo, Carlos(1995). *Estancia y sociedad*, Buenos Aires: Sudamericana, 1995.
- Levene, Ricardo(1955). *Historia de la Nación Argentina*, Buenos Aires: Academia Nacional de la Historia.
- Lobato, M. (2000). *Historia de las trabajadoras en la Argentina (1869–1960)*. Buenos Aires: Edhasa.
- Nari, M. L. (2004). *Políticas de maternidad y maternalismo político: Buenos Aires, 1890–1940*. Buenos Aires: Biblos.
- O'Donnell, G. (1993). On the state, democratization and some conceptual problems: A Latin American view with glances at some postcommunist countries. *World Development*, 21(8), 1355–1369.
- O'Donnell, G. (2000). Democracy, law, and comparative politics. *Studies in Comparative International Development*, 36(1), 7–36.
- Romero, L. A. (2001). *Breve historia contemporánea de la Argentina*. Buenos Aires: FCE.
- Quijada, M. (2000). *La construcción del ciudadano*. Buenos Aires: FCE.
- Sabato, H. (2008). *The Many and the Few*, Stanford University Press.
- Sabato, H. (2018). *Republics of the New World: The revolutionary political experiment in nineteenth-century Latin America*.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alessi, J. (1995). *Medicina, educación y cultura en la formación del estado argentino*. Beatriz Viterbo Editora.
- Sarmiento, D. F. (2003). *Facundo: Civilización y barbarie (1845)*. Buenos Aires: Losada.
- Scobie, J. (1971). *Argentina: A city and a n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Suriano, J. (1999). Introducción: Una aproximación a la definición. In J. Suriano (Comp.), *Anarquistas: Cultura y política libertaria en Buenos Aires, 1890–1910*(pp. 9–24). Buenos Aires: Manantial.
- Tilly, C. (1990). *Coercion, capital, and European states, AD 990–1990*. Basil Blackwell.

Article Received: 2025.12.02.

Revised: 2025.12.17.

Accepted: 2025.12.19.

‘통합된 집단’에서 ‘분화된 주체’로: 트럼프 시대 라티노 정치 재편의 구조적 요인

이은아*

서울대학교

ABSTRACT

From a ‘Unified Bloc’ to ‘Differentiated Subjects’: Structural Factors of Latino Political Realignment in the Trump Era: This study analyzes the growing political diversification and the rise of conservatism among Latino voters in the United States, a trend that has deepened since the Trump era. Once regarded as a stable Democratic constituency, the Latino electorate has undergone a structural transformation marked by the emergence of a conservative bloc and internal ideological fragmentation. The analysis identifies five interrelated factors driving this political differentiation: stratification by legal status, economic class division and labor market competition, discursive framing and affective politics, cross-class solidarity and the rise of multiracial populism, and generational and national-origin diversity leading to the de-homogenization of political identity. These factors operate in mutually reinforcing ways, and Trump strategically politicized these latent internal cleavages to expand his political base. The rise of Latino conservatism has broadened the spectrum of political demands while simultaneously dispersing the group’s collective influence. Moreover, the institutional configuration of American federalism and the two-party system constrains the prospects for permanent Latino political reintegration. One pole consists of conservative Latinos—those emphasizing legality, economic achievement, and individual mobility—who have strengthened their alignment with the Republican Party. The other pole comprises progressive Latinos—those more vulnerable to institutional exclusion—who have deepened their attachment to the Democratic Party. These developments indicate a paradigmatic shift in Latino politics from a unified minority bloc to a network of differentiated political actors that form issue-based and contingent

* Euna Lee is an assistant professor at the Institute of Latin Americ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novela63@snu.ac.kr)

coalitions. How the structurally rigid two-party system will absorb or adapt to these pluralized Latino demands remains a critical question for future research.

Keywords: Latino politics, Latino conservatism, Political differentiation, Trump era, Multiracial populism / 라티노 정치, 라티노 보수주의, 정치적 분화, 트럼프 시대, 다인종 포퓰리즘

들어가며

21세기 들어 미국 정치에서 라티노 유권자는 단순한 인구통계적 범주를 넘어, 시민권·귀속·다문화주의·치안과 같은 핵심 쟁점에서 미국 민주주의의 규범적 향방을 가늠하게 하는 정치적 행위자로 부상했다. 인구 증가와 선거에서의 비중 확대는 라티노를 ‘정책 수혜 집단’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누가 시민으로 인정받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이 충돌하는 공론장의 중심으로 끌어올렸다. 이 과정에서 ‘누가 시민적 주체인가’라는 질문은 정체성 담론을 넘어, 제도와 권리의 배분을 둘러싼 첨예한 정치 쟁점으로 재구성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라티노 유권자는 민주당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지지해 왔으며 포괄적 이민개혁과 다문화주의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이러한 경향은 단순한 정책 선호의 일치라기보다 억압과 배제의 경험을 공유하는 집단 간 연대 의식, 즉, ‘연결된 운명(linked fate)’의 정치적 정서가 작동해 온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Sánchez and Vargas 2016).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를 거치며 이러한 연대의 지형에는 깊은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를 지지한 라티노 유권자는 약 28%에 불과했으나, 2020년에는 32%, 2024년에는 조사 기관에 따라 40% 초반에서 최대 48%에 이르는 지지율을 기록하며 공화당 지지세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승하였다.¹⁾ 특히 히스패닉 남성층의 과반 이상이 트럼프를 지지한 점²⁾은 오랜 기간 민주당의 ‘안정적 기반’으로 여겨졌던 라티노 공동체 내부에서 이념적 전환과 정체성의 재구성이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1) <https://www.pewresearch.org/race-and-ethnicity/2024/09/24/in-tight-u-s-presidential-race-latino-voters-preferences-mirror-2020/>

2) <https://www.edisonresearch.com/latino-male-voters-shift-toward-trump-in-2024-election/>

이러한 정치적 재편은 학계에서 ‘라티노 정치적 분화(Latino Political Differentiation)’로 개념화되고 있다. 이 개념은 라티노 공동체를 더 이상 단일한 정치적 주체로 환원할 수 없으며, 계급·세대·출신국·이주 경로·법적 지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상이한 정치적 선호가 나타난다는 점을 강조한다(Beltrán 2010; Fraga, García, Hero, Jones-Correa, Martínez-Ebers, and Segura 2006; Fraga, Vélez, and West 2024). 따라서 라티노 내부의 이질성과 정치적 다양성은 이제 라티노 정치학의 핵심 분석 단위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라티노 공동체는 왜, 그리고 어떻게 분화하는 가’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트럼프 시대 이후 가시화된 라티노 유권자의 정치적 분화 양상(내부적 다양화와 이질성 증대)을 분석하고 향후 재통합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분화를 추동하는 구조적 동인을 규명하고, 그 가운데서도 보수주의 대두가 지니는 정치사적 함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 시기의 이민정책과 라티노 사회의 다양한 반응에 관한 연구 성과, 그리고 라티노 정치사에 대한 헤랄도 카다바(Geraldo Cadava)가 제시한 역사적 관점을 적극 검토하되, 논의의 초점은 현재의 분화 양상과 향후 전개 방향에 둔다.

라티노 유권자의 내부 이질성은 역사적으로 존재해 왔지만, 본 논문은 그 이질성이 선거 국면에서 정당 선택의 분화로 구체화되는 방식이 트럼프 시기(2016-2020) 이후 더욱 뚜렷해졌다는 점에 분석 초점을 둔다. 따라서 본고의 질문은 ‘어떤 구조적 조건이 잠재된 분화를 선거 결과와 정책 갈등의 핵심 변수로 가시화했는가’에 있다. 나아가 미국의 제도적 환경과 정치적 맥락을 배경으로 라티노 공동체의 분화 또는 재통합 시나리오에 영향을 미칠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다.

정치적 분화의 원인과 양상

라티노 유권자의 정치적 성향 분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라티노 공동체 내부의 이질성을 형성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³⁾ 표면적으로는 동일한 라티노 범주로 인식되지만, 실제로 이 집단 내부

3) 본 논문은 ‘라티노 공동체’와 ‘라티노 유권자’를 구분해 사용한다. 라티노 공동체는 인구 센서스와 여론에서 구성되는 인종적·사회문화적 범주로서, 출신국·세대·계급·종교·법적

에는 역사적 경험과 사회적 위치에 따른 심층적 분화가 존재한다. 기존 문헌과 최근의 실증적 연구들은 라티노 집단의 정치적 분화를 촉발하는 핵심 요인으로 다음과 같은 구조적 동인들을 제시한다: (1) 법적 지위와 시민권 획득 과정에서 비롯되는 합법성의 위계, (2) 경제적 계층 분화 및 노동시장 내 경쟁 구조, (3) 정치 엘리트의 전략적 프레이밍과 동원 전술, (4) 계급 기반 연대 의식과 포퓰리즘적 호소의 정동적 결합, (5) 세대·출신국 다양성과 정치적 정체성의 탈동질화다. 이러한 구조적 축들은 독립적으로 작동하기보다 상호 연동되며, 특히 트럼프 시기 정치 담론과 정책 환경은 이 요인들을 정치화하고 가시화하는 촉매 역할을 하고 있다.

법적 지위와 ‘합법성의 정치학’: 시민권의 계층화와 도덕적 경계의 형성

라티노 공동체 내부의 분화는 우선 법적 지위의 위계를 중심으로 형성된다. 시민권자·영주권자·임시체류자·미등록 체류자라는 구분은 단지 행정적 분류가 아니라, 누가 ‘정당한 구성원’으로 인정받는지 가르치는 도덕적 경계로도 작동한다. 이런 맥락에서 미등록 체류자의 존재는, ‘규칙 준수-자격 부여’라는 도덕경계의 규칙을 흔드는 요소로 인식되기 쉽다. 그 결과 일부 합법 체류자들은 자신이 획득한 지위와 인정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과 박탈감을 경험하며, 이는 공동체 내부의 정치적 거리와 상호 불신을 증폭시키는 경로가 된다.

Flores와 Schachter(2018)가 제시한 ‘사회적 불법성(social illegality)’의 개념은 이 법적 지위의 차이가 도덕적 감정·정치적 태도로 번역되는 과정을 분석하는데 유용한 틀을 제공한다. 이들에 따르면 합법적 지위를 취득한 이민자들의 태도는 미등록 이민자를 향한 차별 감정이라기보다, 자신이 ‘규칙을 지켰다’는 사실에서 나오는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확신과 분노에서 기인한다. 합법적 이민자들은 미등록 체류자의 존재를 도덕경계의 기대를 흔드는 요인으로 받아들이며, 그로 인해 자신이 얻은 정당한 자격이 훼손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지위가 교차하는 이질적 집합을 뜻한다. 유권자 집단의 선택은 공동체 내부의 법적 지위·계급·정체성 균열과 연결되어 나타나므로, 공동체 수준의 분화를 유권자 수준의 재배열을 설명하는 배경 조건으로 함께 다룬다.

지니게 된다.

이러한 감정의 구조는 Rodriguez와 Cadava(2023)가 밝히듯, 라티노 보수주의의 심층적 동인으로 작동한다. 반이민 정서가 확산되면서, 이들은 ‘도덕적 시민’과 ‘무임승차자’의 대립적 도식을 통해 합법성에 대한 윤리적 서사를 재구성함으로써 사회적 정당성과 상징적 자본을 획득하려 한다.

이러한 도덕적 구분은 단지 담론적 차원에 머물지 않으며, Asad와 Clair(2018)의 ‘인종화된 법적 지위(racialized legal status)’ 개념이 보여주듯 제도적 위계로 구조화된다. 이들에 따르면, 외견상 인종중립적인 법적 분류는 인종·민족적 소수자에게 차별적으로 작용하며,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공동체에까지 불이익을 확산시키는 사회적 계층화의 축으로 기능한다. 합법적 신분을 가진 이민자들은 이러한 법적 위계를 내면화하여, 자신을 ‘제도와 공정성의 언어를 아는 시민’으로 정의하는 반면, 미등록 이민자들을 ‘시민적 자격이 부족한 타자’로 규정한다. 이 과정에서 시민권은 단순한 법적 지위를 넘어 도덕적 자본의 형태로 기능하며, ‘규칙을 준수한 이민자’ 대 ‘규칙을 위반한 이민자’라는 윤리적 경계를 강화한다.

결과적으로, 법적 지위를 둘러싼 이러한 내부 분화는 라티노 공동체의 정치적 분열을 구조화한다. 제도의 언어가 이민자 자신들이 내면화한 도덕 언어로 전환되고, 그 도덕 언어는 다시 정치적 선택의 논리로 이어진다. 다시 말해, 법적 지위는 제도적 차별의 표지를 넘어, 인정과 배제의 감정 경계를 조직하는 심층 구조이자 보수적 이민정책을 지지하는 라티노 유권자층이 형성되는 정치적 토양이 된다. 이렇듯 ‘합법성의 정치학’은 라티노 정치적 분화의 구조적·정동적 기원을 함께 드러낸다. 이 개념을 통해 제도의 언어가 어떻게 이민자 자신들이 내면화한 도덕 언어로 전환되는가, 그리고 그 도덕 언어가 어떻게 정치적 선택의 논리로 이어지는가 하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경제적 계층 분화와 노동시장 경쟁: 불평등의 체험과 정치적 정동

라티노 정치 분화의 두 번째 구조적 동인은 경제적 계층 분화와 노동시장 내 경쟁 구조가 만들어내는 심리적 긴장과 인식의 분열이다. 표면적으로는

이민자 간의 임금 경쟁이나 일자리 배분 문제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경제적 지위의 불안정성이 개인의 존재적 위협과 도덕적 자격의 문제로 바뀌는 복합적 메커니즘이 작동한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이민이 임금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논쟁적이다. 노동시장 경쟁 모델은 신규 이민자 유입이 저숙련 노동자층에 직접적인 대체 효과를 낳는다고 주장하는 반면(Borjas 2003; Borjas 2015), 상호보완성 모델은 이민자와 기존 노동자가 서로 다른 직무 영역에서 일함으로써 경제 전체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Ottaviano and Peri 2012).⁴⁾ 그러나 이런 통계적 논쟁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적 지표와 무관하게 작동하는 ‘경쟁의 감정정치’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연구들은 노동시장에서의 경쟁 인식은 실제 소득 변화보다 주관적 위협 인식을 거쳐 정치적 태도 형성에 훨씬 더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한다(Hopkins 2010).⁵⁾ 이때 경제적 불안정성은 ‘자신이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한다’는 시민적 불안의 감정으로 바뀐다. 이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올라가고 제도적 통합이 진전될수록, 오히려 신규 이민자 유입에 대한 배타적 태도가 강해지는 역설적 현상이 강해진다(Kehrberg 2025). 라티노 집단 내부에서 이런 역설은 “먼저 온 자와 나중에 온 자”라는 도덕적·경제적 구분으로 드러난다. 합법적 지위를 얻고 일정한 사회경제적 안정을 확보한 1.5세·2세대 이민자들은, 신규 이민자들을 잠재적 경쟁자이자 규범 위반자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⁶⁾

트럼프 행정부는 이 경제적 불안의 정동을 정교하게 포착했다(Rodriguez and Cadava 2023). 그의 정치 담론은 ‘근면한 합법 이민자’ 대 ‘불법적 무임승

4) 이민이 임금·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설명하는 대표적 틀은 (1) 이민자 유입이 유사 기술 노동자를 대체해 임금 하락을 초래한다는 노동시장 경쟁 모델(Borjas 2003)과, (2) 이민자와 내국인이 직무·역할에서 분화되어 상호 보완성을 형성한다는 상호보완성 모델(Ottaviano and Peri 2012)로 요약된다. 두 접근의 대립은 마리엘 보트리프트를 둘러싼 Card(1990)와 Borjas(2015)의 재분석 논쟁에서 대표적으로 드러나며, 이후 Borjas의 추정이 표본 구성 변화에 따른 결과일 수 있다는 반박도 제기되었다(Clemens and Hunt 2017). 본문은 이 논쟁을 ‘효과의 단정’이 아니라, 불평등 체감이 정치적으로 번역되는 조건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으로 활용한다.

5) Hopkins(2010)는 특정 지역에서 이민자 유입이 증가할 때 주민들이 실질적 피해가 없어도 경제적 불안을 느끼며, 이 감정이 보수적 정책 선호로 이어진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제시했다.

6) https://www.pewresearch.org/short-reads/2021/04/20/most-latinos-say-u-s-immigration-system-needs-big-changes/?utm_source=chatgpt.com

차자’라는 도덕적 대비를 통해, 일부 라티노 노동자층의 자기 인식을 재구성하는 강력한 기제로 작동했다. 이런 변화는 전통적인 계급 기반 연대의 정치가 민족적·법적 지위에 따른 도덕적 위계로 대체되어가는 과정이자, 계급적 불평등의 언어가 도덕화된 불평등의 언어로 치환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라티노 정치 분화의 경제적 기반은 단순히 임금·고용의 변화 그 자체라기보다, 불평등을 체감하는 경험이 공정성·자격·존엄의 언어로 재구성되며, 정치적 선택을 구조화하는 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 경제적 위협은 객관적 지표와 별개로, 불안과 정당성의 감정 구조를 통해 작동하는 정치적 체계로 자리 잡는다. 경제적 경쟁은 결국 인정과 배제의 윤리적 구도로 재구성되며, 라티노 내부의 이질성과 거리감을 누적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담론적 프레이밍과 내부 갈등의 정치화: 배제적 포용의 감정정치

라티노 정치 분화의 세 번째 동인은 정치 엘리트들이 담론을 통해 집단 내부의 위계를 재조직하는 방식, 곧 담론적 프레이밍과 감정정치의 결합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구사한 ‘법과 질서(Law and Order)’ 담론은 그 전형적 사례로, 선거 수사나 정책 기조를 넘어 도덕적 질서의 언어를 재구성하는 문화정치 행위로 볼 수 있다. 이 담론의 구조는 겉으로는 질서, 안전, 합법성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호소하지만, 실제로는 라티노 공동체 내부에서 합법적 시민과 불법적 침입자 사이의 내면화된 도덕 경계를 강화한다. 그 결과, 이것은 국가적 통합을 언급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공동체 내부의 균열을 정치적 자원으로 전환하는 배제적 포용의 전략으로 작동한다.

이러한 프레임의 효과는 여러 실증연구에서 확인된다.⁷⁾ 트럼프식 질서 담론은 라티노 내부의 체제 정당화 동기와 결합하면서, 미등록 이민자에 대한 강경 정책 선호를 강화할 수 있다. Pérez 등(2024)은 라티노 표본을 대상으로 한 분석 및 실험을 통해, 체제 정당화(system justification) 성향이 강할수록 미등록 이민자에 대한 더 가혹한 정책을 지지할 가능성이

7) 예컨대, McCabe-Matos-Walker(2021)는 ‘미등록 라티노’라는 합법성 표지를 먼저 떠올리게 하면, 이후 ‘라티노 이민자’ 전체에 대한 인식도 더 부정적으로 이동하는 (일종의 합법성 프라임 효과) 경향이 나타난다고 보고한다.

높아짐을 보여준다. 이런 연구 결과는 정치적 담론이 법적 지위라는 구조적 조건과 결합하여 집단 정체성의 수행을 재구성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메시지의 핵심은 “누가 합법적인가”가 아니라 “누가 합법성을 체현할 자격이 있는가”에 있다.

트럼프의 담론 전략은 바로 이 합법성의 감정 구조를 잘 활용한 것이다. 그는 “합법적 이민자들을 환영한다”는 포용적 수사과 “불법 이민자는 추방되어야 한다”는 배제적 수사를 교묘히 결합함으로써, 상반된 감정을 동시에 조직했다. 이런 이중적 감정 프레임은 합법적 지위를 보유한 라티노들에게는 소속감과 도덕적 인정을, 미등록 이민자들에게는 수치와 배제의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Cadava가 지적하듯, 이러한 전략은 근면과 합법성을 도덕적 미덕으로 재정의하면서 라티노 보수주의의 감정적 토대를 재구성하는데 일조했다.

결국 트럼프식 프레임은 이민정책을 둘러싼 찬반 대립을 넘어, ‘합법적 주체’라는 도덕적 표상을 통해 라티노 공동체의 내적 갈등을 정치화하는 장치로 작동했다. 이런 담론은 정체성의 경계선이 수행되고 감정적으로 내면화되는 무대가 된다. 이러한 배제적 포용의 감정 정치는 라티노 공동체의 정치적 연대를 해체하는 동시에, 보수적 동원의 정당성을 ‘도덕적 질서의 회복’이라는 언어로 포장하며 새로운 정치적 상상력을 구축한다.

계급 횡단적 연대와 인종 정치의 재편: 다인종 포퓰리즘의 출현

라티노 정치 분화의 네 번째 동인은 인종적 경계를 넘어서 계급 기반 정체성에 근거해 새롭게 형성되는 정치적 연대다. 이 현상은 단순한 투표 성향의 변화가 아니라, 미국 정치의 균열 구조가 정체성의 축에서 정동과 계급의 축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학계에서는 이를 다인종 포퓰리즘(multiracial populism)으로 개념화하며, 기존 인종 정치를 대체할 새로운 문화정치적 형식으로 해석한다. 최근 들어 서로 다른 인종 집단 간에 공유되는 사회경제적 불안, 문화적 소외감, 반엘리트 정서가 새로운 감정적 연대(affective solidarity)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 더욱 두드러진다.

NBC News(2024)의 라티노 유권자 인터뷰 분석에 따르면, 블루칼라

직종에 종사하는 라티노 남성들은 물가 상승, 일자리 기회, 소규모 사업 운영의 어려움을 가장 중요한 정치적 쟁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들은 백인 노동자층과 유사하게 경제적 불안감,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⁸⁾

이러한 공통된 사회경제적 좌절감은 반엘리트 포퓰리즘이라는 정치적 표현 양식을 통해 결집되었다. 라티노 노동자들은 트럼프의 ‘워싱턴 기득권과의 투쟁’ 수사를 자신들의 경제적 소외감과 정치적 주변화를 대변하는 목소리로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였다.⁹⁾ 특히 주목할 만한 지점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담론이 일부 라티노 유권자들에게 ‘진정한 미국인으로서의 자격’과 연결되어 수용되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을 ‘법을 준수하며’, ‘세금을 내는’, ‘열심히 일하는’ 정당한 시민이라는 정체성으로 재인식하면서, 그 규범적 틀 안에서 백인 노동자들과 공동의 경제적·문화적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새로운 정치의식을 발전시켰다.¹⁰⁾ 결과적으로 트럼프 집권기를 거치면서 출신국 배경보다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반체제 정서가 새로운 정치적 동맹의 기준점으로 부상하는 새로운 패턴이 강화되었다.¹¹⁾ 이런 인식은 기존의 인종 중심 정체성 정치에서 계급 및 반엘리트 정서 중심의 횡단적 연대로 재조정되는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다인종 포퓰리스트 연대의 지속성과 제도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

-
- 8) Pew Research Center(2021)의 2020년 대선 분석에 따르면, 대학 학위가 없는 라티노 유권자들은 바이든 55%, 트럼프 41%로 14포인트 차이를 보인 반면, 대학 졸업 라티노들은 바이든 69%, 트럼프 30%로 39포인트 차이를 나타냈다. 교육 수준이 낮고 블루칼라 직종에 종사하는 라티노 남성 유권자들이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높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 9) Abrajano & Hajnal (2017)의 질적 연구는 생애사 접근법(life history approach)을 활용하여 참가자들의 이민 경험, 노동 경험, 정치적 사회화 과정, 그리고 현재의 정치적 태도에 이르는 과정을 시간적 흐름에 따라 탐색하였다.
 - 10) Brookings Institution(2024)의 분석은 트럼프가 2020년 대비 2024년에 흑인과 라티노 노동계급 유권자들 사이에서 더 많은 지지를 확보했으며, 이것이 전통적인 백인 노동계급 중심의 공화당 연합을 다인종 노동계급 연합으로 확장시키는 전략적 재편임을 보여준다.
 - 11) 이러한 현상에 대해 Cristina Beltrán은 ‘다인종 백인성(multiracial whiteness)’이라는 개념을 통해 보다 도발적인 해석을 제기한다. 그녀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라티노들이 백인성이 상징하는 권력과 배제의 정치에 동참함으로써 자신들의 인종적 지위를 상승시키려 한다고 분석한다. 아프리카계나 아시아계 미국인보다 상대적으로 인종적 경계가 유동적인 라티노의 경우, 자신을 ‘완전한 시민’이자 ‘명예 백인’으로 위치하려는 복잡한 자의식이 작동할 수 있다. 즉, 이들에게 트럼프 지지는 경제적 선택일 뿐만 아니라, 인종적 불안을 해소하고 주류 백인성(whiteness)을 획득하려는 정치적 수행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다.

중한 평가가 필요하다. 트럼프라는 특정 정치 지도자의 카리스마적 동원에 의존하는 일시적 동맹인지, 아니면 미국 정치의 새로운 균열 구조로 정착할 구조적 변화인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그러나 그가 남긴 담론적 유산은 분명한데, 인종을 탈색시킨 계급적 정서를 통해 미국의 하위계층 다인종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불안과 열망을 새로운 정치 언어로 번역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 민주주의의 감정 지형이 재구성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실제로 최근 실증 연구들은 이러한 현상을 구체적 데이터로 뒷받침하고 있다.

세대·출신국 다양성과 정치적 정체성의 탈동질화

라티노 정치 분화의 마지막 축은 세대적 경험과 출신국적 배경의 교차가 만들어내는 복합적 정치 정체성이다. 라티노라는 범주는 단일한 문화나 이념적 집단이 아니라, 서로 다른 시간적 경험(세대)과 공간적 기원(출신국)이 교차하면서 구성되는 가변적 정치공동체이다.

우선 세대 간 차이는 라티노 내부 정치성향의 가장 뚜렷한 균열선을 형성한다. FiveThirtyEight(2020)가 분석한 Latino Decisions의 2016년 조사에 따르면, 1세대 라티노 유권자의 약 84%가 민주당을 지지한 반면, 3세대 이상에서는 72%로 하락했다.¹²⁾ 이민 제한정책 반대율도 외국 출생인 1세대는 80%였으나 3세대 이상에서는 64%로 낮아졌다.¹³⁾

이 수치는 정치적 동의의 논리가 세대에 따라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1세대는 집단적 기억과 민족적 연대의 감정에 기반해 공동체의 이익을 중심으로 투표하지만, 2세대 이후는 사안 중심 혹은 자기서사적 이해에 따라 투표한다. 즉, 정치적 판단이 ‘우리’의 언어에서 ‘나’의 언어로 이행하면서, 라티노 공동체의 정치적 동질성은 점차 해체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물론 2세대, 3세대 라티노가 특정 상황—예컨대 반이민 담론의 확산, 경찰 폭력, 국경 위기 등—에서 다시 민족적 정체성을 재정체화하는 경향 또한 존재한다.

12) FiveThirtyEight (2020), “There’s no such thing as the ‘Latino vote,’”
<https://fivethirtyeight.com/features/theres-no-such-thing-as-the-latino-vote/>

13) Pew Research Center (2018), “Views of immigration policy,”
<https://www.pewresearch.org/race-and-ethnicity/2018/10/25/views-of-immigration-policy/>

한편, 출신국과 문화적 배경의 다양성 역시 라티노 정치의 탈동질화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라티노라는 명칭은 실은 쿠바, 멕시코, 푸에르토리코, 도미니카, 베네수엘라 등 서로 다른 역사·언어·식민 경험을 가진 집단들을 묶어낸 정치적 범주다. 따라서 그 안에는 처음부터 균질성이 아니라 내재적 이질성이 존재했다. 트럼프 행정부 시기, 이러한 출신국별 정치문화의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났다. 대쿠바 강경 정책과 베네수엘라 제재는 반공 정서가 강한 쿠바계·베네수엘라계 유권자들의 강력한 지지를 이끌어 냈다. 반면, 국경장벽과 강제 추방 정책은 멕시코계와 중미 출신 라티노들에게 직접적 위협으로 인식되어 격렬한 반발을 낳았다. 공통의 라티노 경험은 더 이상 정치적 단일성의 근거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서로 다른 역사·기억·정동이 정치적으로 충돌하는 장으로 변모한 것이다.

이러한 세대적·문화적 차이는 단순히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교차하며 라티노 정치의 다층적 분화를 만들어낸다. 젊은 세대일수록 출신국 차이에 대한 인식이 열어지고, 대신 계급적 인식과 도덕적 자격이 정치적 판단의 핵심으로 부상한다. 반대로 1세대 이민자나 쿠바계·베네수엘라계 집단은 출신국의 정치 경험—권위주의·혁명·망명 등—을 바탕으로 보수적 가치와 반공주의를 강화한다. 결국 라티노 정치 내부의 분화는 세대·계급·출신국이라는 세 축이 시간과 공간의 교차정치로 얽히며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라티노 정치의 분화는 어느 한 시점이나 한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는 단일 현상이 아니다. 세대적 기억과 출신국 경험이 중첩되는 과정에서, 라티노 공동체는 단일한 소수집단을 넘어 다중적 정체성과 교차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복합적 정치 공간으로 재구성되고 있다. 라티노 공동체 내부에는 이전부터 잠재적 균열 요인이 존재했으며, 트럼프 시대는 이를 가시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라티노 보수주의의 함의: 역사적 연속성과 정치적 전환

미국 정치 지형에서 라티노 유권자들의 보수주의적 경향 심화, 특히 트럼프 공화당에 대한 상당한 지지는 기존 이민 정치의 분석 틀을 재고하게 하는 중대한 변곡점을 제시한다. 본고에서 말하는 ‘라티노 보수주의’는 라티노 유권자층이 공화당으로 이념적 전향을 하거나 수적 지지를 보낸다는 차원을 넘어선다. 이보다 구체적으로 공화당으로의 정당 재정렬(realignment), 치안·국경 통제·종교 및 가족 가치에 기반한 쟁점별 보수화, 무엇보다 법적 지위와 계급적 성취에 따라 ‘도덕적 시민권’을 주장하며 내부를 구별짓는 능동적인 정치적 표현을 아우른다. 이런 의미에서 라티노 보수주의의 부상 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라티노 공동체 정치사 내부에 잠재해 온 보수적 흐름이 현대의 양극화된 정치·사회경제적 조건과 결합하여 새로운 정치적 주체성으로 가시화된 구조적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카다바(2020, xvii)는 『히스패닉 공화당원 *The Hispanic Republican*』에서 “라티노들은 본질적으로 자유주의자도, 보수주의자도 아니며, 그들의 정치적 정체성은 선형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며, 라티노의 정치적 주체성이 역사적, 사회경제적 조건 속에서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역동적 실체임을 강조한다. 카다바의 통찰은 라티노 정치 연구에서 지배적이었던 ‘단일 투표 블록’이라는 고정 개념을 비판적으로 해체하며, 라티노 공동체 내부의 이질성을 학술적으로 조명하는 데 기여한다. 그럼에도 라티노 보수주의에 대한 체계적인 학술 연구는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카다바 스스로도 공화당원을 “히스패닉 공동체의 정치사 일부로 간주하지 않거나, 기이한 존재나 호기심의 대상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2020, xvii~xviii)고 지적하며, 학문적 담론 내에서 라티노 보수주의가 여전히 주변화되어 있음을 인정한다. 그의 논지에 따르면, 라티노 보수주의는 기존의 편향된 시각에서 벗어나 미국 정치사의 본질적 구성 요소로 재해석될 필요성이 있다.¹⁴⁾

14) 카다바 연구의 학술적 의의는 그가 196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반세기에 걸친 라티노 보수주의의 계보학을 추적했다는 점에 있다. 그는 라티노 보수주의를 단순한 일화적 현상이나 예외적 사례를 넘어, 미국 정치 지형에 깊이 뿌리내린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정치 현상으로 이론화하였다. 카다바는 공화당의 수십 년에 걸친

카다바는 히스패닉의 지분을 넓혀간 공화당의 전략을 이념적, 문화적, 감정적, 상징적 차원에서 다양하게 분석한다. 히스패닉계 미국인들이 공화당에 경도된 주요 동인으로, 미국의 반공주의 외교 노선에 대한 이념적 공감, 미국을 자유와 기회의 보루로 인식하는 국가적 정체성, 자유시장 자본주의를 통한 사회경제적 상승 이동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냉전 시기 쿠바 및 중남미 출신 망명자들은 공화당의 강력한 대공산권 입장과 레이건식 자유시장 보수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자신들을 반공 최전선의 미국 애국자로 규정하는 독특한 정치적 정체성을 발전시켰다. 이러한 반공 애국주의는 이민자로서 미국 사회에 대한 충성심을 입증하고 주류 사회에 통합되려는 전략적 기제로도 작동했다.

또한 가톨릭 신앙에 기반한 사회적 보수주의, 즉 낙태 반대, 전통적 가족 가치 옹호, 종교적 자유 중시 등의 가치는 일부 라티노 유권자들에게 공화당을 선택하는 중요한 문화적 동기로 작용했다. 전통적인 가톨릭의 영향력이 여전히 가운데, 개신교 복음주의(Evangelical) 라티노 인구의 급성장 역시 보수화의 강력한 촉매제가 되었다. 카다바는 가톨릭 신앙이 해방신학과 사회 정의 의식으로 연결되어 민주당 지지의 근거가 되기도 했음을 밝히지만, 그가 일관되게 강조하는 점은 라티노 공동체 내부에 항상 보수적 흐름이 잠재되어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이다. 물론 카다바는 라티노 보수주의와 공화당 지지가 반드시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라티노 보수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이념적 정체성을 우선시하는 독립적 행위자들로 자율성과 일관성을 보여왔다는 것이다.

Cristina Beltrán과 Jones-Correa와 동료들이 트럼프 시대 이전부터 지적해 온 바와 같이, 라티노 내부의 정치적 다양성과 복합적 정체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다. Beltrán(2010)은 『통합의 문제: 라티노 정치와 정체성의 형성 *The Trouble with Unity: Latino Politics and the Creation of Identity*』에서 라티노 정치 행위자들이 단일한 집단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와 정치적 지향을 가진 이질적 집단임을 강조한다. Fraga 등(2012) 역시 라티노 유권자들의 투표 행태가 단순히 인종적 정체성만으로 환원될 수 없으며, 계급, 지역, 세대, 이민 배경, 종교, 소득 수준 등 다층

전략적 투자와 끊임없는 정치적 구애, 그리고 라티노 공동체의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문화적 정체성이 상호작용한 결과, 공화당이 히스패닉 유권자들과 더욱 견고하고 장기적인 유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고 분석한다.

적인 사회경제적·문화적 요소에 의해 구성됨을 역설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2020년대 트럼프를 지지하는 라티노 유권자들의 등장은 정치사적 예외 상황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축적되어 온 라티노 보수주의의 역사적 기반 위에 트럼프라는 특정한 정치적 촉매가 결합하여 가시적 현상으로 발현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라티노 보수층의 확대는 미국 정당정치 of 的 전략적 지형을 크게 재편하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민주당이 더 이상 라티노 표심을 기정사실화하거나 당연한 정치적 자산으로 간주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의미한다. 카다바는 보수적 라티노들 사이에서 민주당에 대한 반감이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었으며, 이것이 정치적 소외감과 결합하여 대안적 정치 정체성 구축의 동력이 되었다고 분석한다. 카다바가 말하는 핵심은 단순히 정책 불만이 아니라, “인정받지 못한다는 감정적 구조(the feeling of not being recognized)”이다(2020, 189). 라티노 보수층에게 ‘공화당 지지’는 바로 그러한 인정 결핍을 보상하는 상징적 행위였다.¹⁵⁾

공화당은 1970년대 이후 라티노 유권자 확보를 장기 전략으로 설정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라티노 보수 계층을 정치적 지지기반으로 만들어왔다. Cadava(2020)는 공화당이 라티노 전체를 설득하려 한 것이 아니라, 약 30% 정도의 ‘핵심 지지층’을 꾸준히 확보하는 전략을 추구했다고 분석한다. 이 전략은 정치적 현실주의에 기반한 것으로, 완전한 다수 확보보다 민주당의 독점적 우위를 무너뜨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또한 공화당은 라티노 후보 발굴과 상징적 대표성 확대를 통해 ‘당신은 진짜 미국인’이라는 인정의 메시지를 강화했다. 지난 10여 년간 확대된 라티노 지지는 공화당에게 다인종 보수 연합 구축이라는 역사적 기회의 창을 열어주었다. 2022년과 2024년 선거에서 등장한 라티노 공화당 정치인들의 약진은 이러한 전략의 성과이며, 라티노 유권자들이 공화당 내에서 자신을 대표할 정치적 공간을 발견할 가능성을 높였다. 그 결과 2024년 트럼프의 라티노 지지율은 이러한 최소 목표를 훨씬 상회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러한 변화는 정치 엘리트층의 인적 구성에서도 뚜렷하게 가시화되고 있다. 2022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은 마이애미의 쿠바계, 텍사스 남부의

15) 공화당은 그들에게 “당신은 모범적 시민이자, 진짜 미국인”이라는 서사를 제공함으로써 정치적 포용 이상으로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부여했다.

멕시코계 출신 후보들을 전면에 내세워 역사상 가장 많은 수의 히스패닉 공화당 하원의원을 배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24년 선거에서 Anna Paulina Luna(플로리다), Monica De La Cruz(텍사스), Juan Ciscomani(애리조나) 등이 연방 하원 재선에 성공했으며, Bernie Moreno가 오하이오 상원의원으로 당선되었고, Jenniffer González-Colón이 푸에르토리코 주지사로 선출되는 등 라티노 공화당 정치인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¹⁶⁾

라티노 사회 내 보수화의 정치적 함의는 정책 의제와 담론 지형의 근본적인 변화로도 나타난다. 우선, 이민정책에 대한 라티노 공동체의 입장이 다성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향후 이민법 개혁이나 이민자 권익 문제에서 라티노 내부의 이념적 경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일부 라티노 보수층은 ‘질서 있는 이민’과 ‘법치주의 원칙’을 전면에 내세우며 불법 이민 단속 강화나 국경 보안 확대를 지지하고, 합법적 절차를 준수한 이민자들의 권익 보호를 우선시하는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전통적인 이민자 권익단체나 진보 라티노 조직들의 포괄적 이민 개혁 및 인도주의적 접근 입장과 근본적으로 상충한다.

특히 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을 둘러싼 논쟁에서 이러한 내부 균열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라티노 보수 인사들은 DACA를 행정부의 월권행위이자 법치를 우회한 특혜라고 비판한 반면, 진보 진영에서는 드림머(Dreamer) 청년들을 보호해야 할 도덕적 의무와 미국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강조하는 정서적 호소를 전개했다(Samuels 2017). 이 문제에서도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라티노 보수층의 부상은 라티노 공동체를 대변하는 정치적 요구의 스펙트럼을 확장함과 동시에, 집단적 정치 영향력의 분산이라는 양면적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과거에는 라티노 유권자들이 비교적 일관된 정치적 목소리를 냄으로써 정치권에 대한 집단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라티노 진보 대 라티노 보수로 의견이 분화하면서 단일한 정치적 주체로서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는 구조적 딜레마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런 국면은 역설적으로 정치적 재통합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16) “How Latino voters view the 2024 presidential election,” <https://www.pewresearch.org/short-reads/2024/07/19/how-latino-voters-view-the-2024-presidential-election/>

동시에 제기하는 중요한 전환점이기도 하다.

재통합의 가능성

라티노 정치의 분화가 심화된 현재의 정치 환경에서, 라티노 공동체가 과거와 같은 형태의 정치적 연대를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은 학술적·정치적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재통합 가능성은 단일한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선례, 감정정치, 법적 지위, 지역적 환경, 제도적 제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영역이다. 본 장에서는 먼저 역사적으로 라티노 공동체의 대규모 결집이 가능했던 결정적 국면들을 검토하고, 이를 대조군으로 삼아 트럼프 2기라는 새로운 제도적 조건이 라티노 공동체의 재통합을 어떠한 방식으로 구조적으로 제약하거나, 혹은 역설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연대를 요청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역사적으로 라티노 정치적 결집은 주로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강화되어 왔다. 외부의 극단적 충격 요인이 라티노 재통합을 이끌 수 있다는 가설은 일정 부분 역사적 근거를 갖는다. Barreto와 Segura(2014)의 연구는 이러한 가능성을 ‘위기 대응적 연대’로 개념화한다. 대표적 사례로, 1994년 캘리포니아의 주민발의안 187호(Proposition 187)는 라티노 공동체에 커다란 위기감을 일으켰다. 미등록 이민자들의 공공 서비스 접근을 차단하려 했던 이 법안은 단순한 정책 문제를 넘어 라티노 정체성과 존엄성에 대한 직접적 도전으로 인식되었다. 이 사건은 라티노들에게 미국 사회 내 그들의 위치를 근본적으로 재고하게 했으며, 시민권의 의미와 소속감에 관한 공동체적 성찰을 촉발했다. 이러한 집단적 각성은 일시적 저항에 그치지 않고 세대를 거쳐 전승되는 정치적 기억으로 자리 잡았다(Toribio 2024).

그러나 현재 라티노 공동체의 내부 분화 양상은 1990년대와는 질적으로 다른 복잡성을 보인다. 앞서 분석한 법적 지위의 위계화, 경제적 계층 분화, 세대적 단절, 출신국별 이질성 등은 단일한 외부 위협만으로는 불합하기 어려운 구조적 균열로 작용한다. 특히 합법적 지위를 확보한 라티노 보수층에게는 반이민 정책이 위협이 아닌 기회로 인식될 수도 있다는 역설적 상황이 존재한다. 예컨대 텍사스 국경 지대의 라티노 유권자들이 국경장벽 건설을 ‘지역 치안 확보’와 ‘일자리 보호’의 수단으로 지지하는 현상은, 외부의

위협이 더 이상 단일한 저항을 불러오지 않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현재의 분화 양상을 고려할 때, 단일한 라티노 정치 블록의 재형성보다는 사안별, 상황별로 유연하게 연대하는 새로운 형태의 정치적 연합 모델이 더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인다.

지도력과 담론의 역할을 통한 재통합 가능성 역시 신중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과거 César Chávez나 2006년 대규모 이민자 권리 시위의 사례는 분명 라티노 정치 동원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카리스마적 지도력 모델이 현재의 다원화된 라티노 정치 지형에서도 유효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Toribio는 주민발의안 187호에 대한 조직적 저항이 현재 세대의 라티노 사회운동 조직화와 동원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하지만¹⁷⁾, 오늘날의 라티노 정치 환경은 그보다 훨씬 다원화되었다.

라티노 커뮤니티 내 정치적 지도자들, 예를 들어 Alexandria Ocasio-Cortez 같은 진보적 라티나 정치인들이 젊은 라티노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부인할 수 없으나, 이들의 이념적 정향은 라티노 보수층과는 근본적으로 상충하기에 한계가 존재한다. 기후변화, 대학 학자금 부채 탕감, 의료보험 확대 등의 의제가 초당파적 어젠다가 될 수 있다는 가정은 라티노 내부의 이념적, 계급적 분화 현실을 간과한 낙관론에 머물 수 있다. 실제로 대학 학자금 탕감 이슈는 대학 진학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라티노 노동자 계층에게 ‘엘리트 특혜’로 인식되어 반감을 사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의제들은 라티노 내부의 계급적 분화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는 새로운 정치적 균열선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할 때, 재통합이 이루어진다 해도 그것이 항구적인 정치적 블록화를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필요에 따라 국지적·사안별로 결집했다가 다시 분기되는 조건부 연합의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연합의 형성과 해체를 좌우하는 제도적 조건들을 중심으로, 위기·동원·제도 환경이 결합할 때 어떤 라티노 연합이 어떤 경로로 형성되는지에 초점을 둔다.

제도적 조건과 미래 전망

17) UC Riverside News, “Conference to explore surge in Latino activism after California’s Prop. 187,” <http://news.ucr.edu/articles/2024/02/22/conference-explore-surge-latino-activism-after-californias-prop-187>

라티노 정치의 분화 혹은 재통합의 향방은 미국의 정치 제도 및 구조적 환경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 장에서는 연방주의적 권력 분산이 만들어낸 지역별 정치 경험의 차이, 사법부 구도 변화가 초래하는 정책 집행의 변동성, 양당·선거 제도가 낳는 대표성의 한계와 전략적 기회를 중심으로, 라티노 정치의 미래 경로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연방주의적 제약의 영향

연방주의 체제가 내포하는 권력의 분산과 경쟁 구조는 라티노 유권자들의 정치적 경험을 지역별로 차별화시키는 핵심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 미국의 주정부와 연방정부 관계는 트럼프 행정부를 거치며 근본적인 변화를 겪었다.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협력적 연방주의(cooperative federalism)’의 전통이 약화되고, 특히 이민정책을 둘러싸고 ‘대립적 연방주의(conflictual federalism)’의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Goelzhauser & Konisky 2020).

한쪽에서는 캘리포니아와 뉴욕 같은 민주당 주도 주정부들이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에 정면으로 맞섰다. 캘리포니아는 트럼프 재임 동안 다수의 이민 관련 주법을 통과시키며 주 차원의 보호망을 구축했고, 뉴욕은 ‘그린라이트 법’을 제정해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도 운전면허를 발급함으로써 연방 정책에 과감히 도전했다. 반대편에서 텍사스와 애리조나 같은 공화당 성향의 주들은 연방정부와 보조를 맞추거나 오히려 한발 더 나아가 주 자체 예산으로 국경장벽을 건설하는 등 연방 정책보다 더 엄격한 이민 단속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대립 구도는 미국 연방주의가 어떻게 이념적 분극화의 도구로 변모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제도적 분열은 라티노 유권자들의 정치적 경험을 근본적으로 양분화하는 효과를 낳는다. 캘리포니아의 라티노들은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이민정책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반면, 텍사스의 라티노들은 일상적인 단속과 배제의 정치를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라티노 유권자라 하더라도 두 지역에서 중요하게 체감되는 의제와 정치적 동원의 방식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형성되기 쉽다. 주(州)별 이민정책 기후와 정치 환경의 차이가 라티노의 참여, 동원, 정책 태도에 서로 다른 궤적을 만든다는 점은 선행연

구들에서도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런 현상은 지역별 특성을 넘어서 라티노 정치 정체성 자체를 지역에 따라 다르게 형성시키는 강력한 구조적 동력이 된다.

더욱 중요한 점은 연방과 주 사이 갈등이 격화되면서 국가 차원의 통일된 이민정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있다는 현실이다. 최근 들어 이민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교육, 보건, 총기 등 다른 정책 영역으로까지 빠르게 옮겨 가는데(Goelzhauser & Konisky 2019),¹⁸⁾ 트럼프 집권 이후 연방 정부와 주정부 간 이민정책을 둘러싼 법정 소송이 급증했으며, 이런 양상은 미국 정치 전반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국가적 통합성을 뒤흔들 위험을 내포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라티노 유권자들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자신이 거주하는 주의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대응 전략을 택하는 것은 개별 삶의 조건에 근거한 합리적인 흐름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연방주의적 체제는 라티노 정치의 재통합을 구조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제도적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로 다른 정치 환경에서 살아가는 라티노들에게 전국적 차원의 단일한 정치 운동이나 공동 행동은 점점 더 현실과 동떨어진 목표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다. 그들은 자신이 경험하는 정책 환경, 제도 접근성, 위협의 분포에 맞춰 각자의 정치적 정체성과 전략을 발전시키고 있다.

사법부의 역할: 헌정주의적 제동과 정치적 균형의 변증법

미국의 삼권분립 체제에서 라티노 정치의 향방을 결정짓는 또 하나의 핵심 변수는 사법부의 역할이다. 사법적 판결을 통해 헌법적 원칙과 정치적 현실 사이의 복합적 줄다리가 어떻게 라티노 공동체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수 있다. 트럼프 1기 당시에는 사법부가 극단적 정책에

18) 이들의 연구는 미국의 연방-주 갈등을 행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규제·행정조치)과 이에 대한 주정부의 소송(litigation)으로 정리하면서, 쟁점이 이민뿐 아니라 보건(ACA), 환경, 교육, 총기, 형사정책 등 여러 정책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된다고 설명한다. Migration Policy Institute(2023)의 분석에 따르면, 2010년대 이후 연방-주 간 이민정책 소송이 당파적 패턴을 보이며 급증했다. 공화당 대통령 시기에는 민주당 주들이, 민주당 대통령 시기에는 공화당 주들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양상이 반복되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행정부들보다 훨씬 더 많은 다주 소송(multistate lawsuits)에 직면했다.

제동을 거는 헌법적 안전장치로 작동하는 모습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그러나 크게 달라진 사법 환경 속에서 전개되는 트럼프 2기에서는 사법부가 라티노 정치의 분화와 재통합 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1기 이민정책은 연방법원에서 반복적으로 다뤄졌고, 그 과정에서 하급심의 전국적 금지명령이 빈번히 등장했다. 미의회조사국(CRS)에 따르면 트럼프 1기 전국적 금지명령 사건 86건 중 36건(약 42%)이 이민 사안으로, 이민이 연방 사법부와 행정부 충돌의 핵심 전선이었음을 보여준다. DACA 프로그램 폐지 시도가 대법원에 의해 무산되고, ‘멕시코 일시 대기(Remain in Mexico)’ 정책과 가족 분리 정책이 연방법원의 제동으로 중단된 사례들은 사법부가 라티노를 포함한 이민자 공동체에 대한 제도적 완충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트럼프 2기는 이러한 사법적 견제를 우회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 환경과 정교한 전략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국면을 예고한다. 무엇보다 트럼프 1기 동안 진행된 연방 사법부의 인적 구성 변화는 향후 이민정책을 둘러싼 법적 갈등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트럼프는 재임 중 226명의 연방판사와 3명의 대법관을 임명했으며, 이로 인해 연방법원의 이념적 균형은 보수 우위로 크게 기울어졌다. 현재 13개 연방항소법원 중 7개가 보수 성향 판사 다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방대법원은 6대 3의 견고한 보수 우위를 형성하고 있다(Pew Research Center 2021a).

보수 성향 판사들을 대거 임명한 트럼프 2기는 사법적 견제를 회피하기 위한 세 가지 접근법을 강조해왔다. 첫째, 이민정책을 의회의 명시적 승인이 필요한 주요 의제로 규정함으로써 행정부에 유리한 법적 해석을 도출하는 전략이다. 둘째, 개별 주정부 차원의 이민 단속 강화를 통해 연방법원의 일괄적 중단 명령을 회피하고 지역별로 분산된 법적 대응을 유도하는 전략이다. 셋째, 이민정책을 국가안보 문제로 재규정함으로써 사법적 심사를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접근법이다. 이러한 전략의 효과는 2023년 *Biden v. Texas*와 *United States v. Texas* 판결에서 이미 드러났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 보수 다수는 행정부의 이민정책 재량권을 제한하고 주정부의 권한을 확대하는 선례를 수립했으며, 이런 결과는 트럼프 2기의 정책 집행에 유리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변화된 사법 환경 속에서 트럼프 2기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추방 작전, 출생시민권 제한, 이민 일시 중단과 같은 1기보다 훨씬 더 과감하고 광범위한 이민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는 라티노 정치에 복잡하고 때로는 모순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상황이 라티노 정치에 미칠 영향은 매우 상반된 방향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한편으로는, 법적 보호막이 약해지면서 급진적 이민정책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라티노 공동체가 전례 없는 실존적 위협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 질 것이다. 이런 극단적 상황은 라티노 공동체 전체를 위협하는 공통의 위기 인식을 통해 방어적 재통합의 강력한 동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대규모 추방과 같은 실질적 위협이 지속될 경우, 라티노 공동체 내에서 집단적 정체성과 연대 의식이 다시 강화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반면, 사법부가 여전히 극단적 정책에 대한 최소한의 헌법적 제동장치를 유지하고, 행정부가 실질적 정책 집행에서 다양한 세력의 견제로 인해 어느 정도 제한을 받을 경우, 라티노 내부의 정치적 분화는 오히려 더 깊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합법적 지위를 가진 라티노와 그렇지 않은 집단 간의 이해관계 차이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면서 정치적 분열이 고착될 수 있다. 시민권을 보유한 라티노들이 다른 법적 지위 집단보다 이민 단속정책에 대해 더 높은 지지도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3세대 이상 라티노가 1세대보다 이민 제한 정책에 훨씬 더 높은 지지를 보이는 등, 실제로 대규모 추방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그 영향이 모든 라티노에게 균등하게 미치지 않는 현실은 이러한 분화를 더욱 촉진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보수 성향 판사 임명으로 인해 사법부의 이념적 균형이 이전보다 우측으로 이동한 조건에서, 트럼프 1기 초반에 관찰되었던 것과 같은 수준의 ‘헌정주의적 제동 장치’가 일관되게 작동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제한적이다. 오히려 사법부가 행정부의 강경 이민정책에 대해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거나, 개입하더라도 절차적·기술적 통제에 머무를 가능성이 커지면서, 라티노 공동체는 ‘헌법적 보호’에 대한 기대가 약화된 환경에서 정치적 파고를 보다 직접적으로 마주하게 된다. 이러한 사법 환경의 변화는 라티노 유권자들이 추상적인 헌법 가치보다 체류 지위와 계급적 위치에 기반한 현실적 생존 전략을 전면화하도록 강제하며, 그 결과 라티노 정치가 단일한 블록이 아닌 이슈별로 파편화된 이해관계의 연합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양당 체제와 선거 제도: 정치적 대표성의 구조적 한계와 균형추의 역할

미국의 양당 체제와 선거 제도 또한 라티노 정치의 미래를 규정하는 구조적 틀이자 정치적 기회의 제약조건으로 작용한다. 이 제도적 환경은 라티노 공동체에 이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한편으로는 정치적 참여의 통로를 제공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참여 방식을 구조적으로 제한하기도 한다. 현재의 추세대로 라티노 유권자들 내부에서 정치적 분화가 계속될 경우, 이들은 민주·공화 양당 모두에게 스윙 보터로서 새로운 정치적 위치를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플로리다, 애리조나, 텍사스 같은 주에서는 라티노 유권자들의 표심 변화가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공화당의 경우, 전통적인 반이민 기조의 선택적 완화라는 딜레마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를 위해 공화당은 합법 이민 확대나 중소기업 지원책 등을 통해 강경한 반이민 이미지를 완화하는 동시에, 종교적 가치, 가족 중심주의, 자유 시장 경제 등 문화적·경제적 보수 아젠다를 내세워 보수 성향의 라티노들에게서 지지를 이끌어 내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민주당 역시 전략적 재편의 압박에 직면해 있다.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이민자 권익 옹호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보수화된 라티노 표를 되찾기 위해 국경 안보나 범죄 대책 등의 사안에서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하거나, 중도 성향의 라티노 후보를 전면에 내세우는 전략적 선택을 고려하고 있다. 이는 당내 진보 세력과의 이념적 긴장을 야기할 수 있지만, 선거 승리라는 현실적 목표 앞에서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양당의 경쟁적 구애는 라티노 유권자들에게 정치적 선택지의 확대를 의미하지만, 동시에 정치적 정체성의 복잡화라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고 있다. 물론 양당 체제는 본질적으로 소수집단의 목소리가 희석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라티노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선거인단 제도¹⁹⁾나 상원의 균등 대표제²⁰⁾ 등의 제도적 장치로 인해 이들

19)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같이 라티노 인구가 집중된 대형 주들의 선거인단 비중이 실제 인구 비율에 비해 낮다.

20) 모든 주가 인구 규모와 관계없이 2명의 상원의원을 선출하는 제도는 라티노 대표성

의 정치적 영향력이 인구 비중만큼 발휘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백만 라티노가 거주하는 캘리포니아와 텍사스는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이미 정당 성향이 고착화되어 라티노 표심의 변화가 선거 결과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역설적으로, 인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합주에서 오히려 라티노 유권자들의 정치적 파급력이 극대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미시간 같은 러스트벨트 지역에서는 소수에 불과한 라티노 표 이동이 전체 선거 판도를 뒤바꿀 수 있는 상황이다(Brownstein 2024). 이런 양상은 라티노 유권자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지리적 분포의 전략적 중요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발휘되는 공간적 편중을 드러낸다.

이러한 제도적 현실은 라티노 정치의 미래에 대해 상반된 가능성을 제시한다. 우선 라티노 인구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고른 분포를 이루며 양당 경쟁에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면, 정치권은 라티노 관련 정책을 전국적 의제로 다루게 될 가능성이 높다(Brookings Institution 2024). 반면 현재처럼 특정주에 집중되어 있고 그 주들이 이미 한 정당에 편중되어 있다면, 라티노 내부의 분화가 진행되더라도 전국적 파급력은 구조적으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향후 라티노 정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변수로 인구 이동 패턴과 선거구 재조정 과정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기후 변화와 경제적 기회를 찾아 남부와 서부에서 북동부와 중서부로 이주하는 라티노들의 움직임은 정치 지형의 예측 불가능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동시에 각 주의 선거구 재조정 과정에서 라티노 집중 지역이 어떻게 분할되거나 통합되느냐에 따라 이들의 대표성 수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2024년 대선 결과는 이러한 제도적 맥락이 라티노 정치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특히 텍사스 국경 지역의 전통적 민주당 강세 카운티들에서 극적인 표심 변화가 나타난 것은 라티노 유권자들이 더 이상 민주당의 당연한 지지층이 아니라 양당이 적극적으로 경쟁해야 하는 핵심 유권자 집단으로 부상했음을 분명히 드러냈다. 트럼프는 멕시코 국경선에서 20마일(약 32km) 이내에 있는 18개 카운티 중 14개를 가져가며 국경지대에서 ‘거의 싹쓸이’에 가까운 성과를 냈고, 리오그란데밸리의 4개 카운

에 제약을 가한다. 라티노 인구가 많은 주에서도 2명이 선출되기에 과소대표된다.

티를 모두 승리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의 약 97%가 라티노로 분류되는 Starr County가 1896년 이후 처음으로 공화당 대선 후보에게 표를 던진 사례는, 남부 텍사스에서 진행된 정치적 재편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Scherer et al. 2024).²¹⁾ 이렇듯 미국의 양당 체제와 선거 제도는 라티노 정치의 분화 가능성을 형성하는 구조적 조건을 제공한다. 이러한 제도적 환경은 라티노 유권자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증폭시킬 수도, 제약할 수도 있는 이중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앞으로 라티노 정치의 발전은 단순히 인구 증가에 비례하여 영향력이 확대되는 선형적 과정이 아니라, 제도적 맥락과 집단 내 동학의 복합적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는 다층적이고 역동적인 과정으로 전개될 것이다.

나가며

본 논문은 트럼프 시대 이후 나타난 라티노 정치의 분화 현상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재통합의 가능성과 제도적 함의를 고찰하였다.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핵심 지지기반이던 라티노 유권자층에서 확인된 보수층 상승과 내부 균열은 라티노 공동체 내부적 요인들의 복합적 작용에서 기인한다. 앞서 살펴본 대로 법적 지위에 따른 입장 차이, 경제적 경쟁과 노동시장 긴장, 담론적 프레임, 계급 기반의 다인종 연대, 세대 차이와 출신국 다양성 등이 맞물려 라티노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택에 이질성을 부여해왔다. 트럼프는 이러한 내부 균열을 정치적으로 활용하여 일부 라티노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미국 정치사에서 이례적으로 큰 라티노 표 분할을 현실화하였다.

2024년 대선 이후 현재 진행 중인 사법부의 급격한 변화는 라티노 정치의 미래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전국적 금지명령에 대한 사법부의 제한적 태도²²⁾, DACA의 축소 및 차등적 적용²³⁾, 그리고 이민 판사들의 연이

21) 텍사스 리오그란데 벨리와 같은 전통적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 트럼프 지지율이 20% 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이 조사는 이민, 경제, 국경 안보 등의 이슈에서 라티노 유권자들의 양극화가 심해졌음을 보여주었다(Scherer et al. 2024).

22) 2025년 6월 27일, 연방대법원은 Trump v. CASA, Inc. 사건에서 6대 3의 결정으로, 하급법원이 내린 구제 명령은 “소송 당사자들에게 완전한 구제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No. 24A884). 이 결정은 전국적 명령의 발동

은 해임²⁴⁾은 라티노 공동체에 전례 없는 사법적 불안감을 가져다주고 있다. 특히 텍사스에서 DACA 수혜자들이 추방으로부터는 보호되나 취업 허가는 받을 수 없는 기이한 상황²⁵⁾은 사법적 보수화가 어떻게 라티노들의 삶을 계층화하고 정치적 선택을 분화시킬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라티노 정치 세력에 대한 제도적 억압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대표적 사례로 2024년 8월 텍사스 주 법무장관 Ken Paxton이 감행한 LULAC 사무실 급습을 들 수 있다(Guo 2025).²⁶⁾ 이와 같은 노골적인 투표권 억압 시도는 라티노 정치참여를 향한 체계적 방해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럼에도 라티노 유권자 수가 3,620만 명으로 늘어난 현상은 역설적으로 이러한 압박이 오히려 정치적 동원을 강화하는 효과를 낳았음을 시사한다. 법원을 통한 권리 보호가 점점 어려워지는 현실 속에서, 많은 라티노들이 선거 참여야말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기 시작한 것이다.

현재의 추세와 실증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라티노 정치의 미래는 단순한 분화나 재통합이 아닌 이중적 양극화의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과거에는 비교적 일관된 정치적 목소리를 통해 집단 협상력을 발휘했다면, 이제는 라티노 진보와 보수로 분화되면서 단일 정치 주체로서 영향력이 약화되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또한 연방주의와 양당제라는 미국의 제도적 특성으로 인해 주류 정당으로 분산 편입될 전망이 더욱 높아졌다. 한편에서는 법적 지위와 경제적 성취에 기반한 보수적 라티노들이 ‘성공의 정치학’을 통해 공화당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배제의

기준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이민정책을 둘러싼 법적 다툼에서 진보 성향의 지역 법원 판결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구조적으로 차단했다.

- 23) 현재 DACA는 기존 수혜자의 갱신 신청은 계속 처리되지만, 신규 신청은 법원 명령의 영향으로 승인(심사·결정)이 중단된 ‘부분적 운영’ 상태에 놓여 있다. 또한 소송의 관할 및 효력 범위(예: 텍사스)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쟁점화 되어 왔다.
- 24) EOIR(법무부 산하)은 2025년 2월 14일 이민 판사 20명을 사전 고지 없이 해임(임용 취소 포함)했으며, 상원 사법위원회 의원들은 2025년 3월 28일자 서한에서 이러한 인사 조치가 이민법원 운영과 사건 처리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또한 2025년 말까지 이민판사 해고·퇴출 압박 규모가 100명 이상이라는 보도도 제기되었다.
- 25) 이민 전문가들은 이를 실질적인 강제 빈곤화 정책이라고 비판하였다.
- 26) 2024년 8월, 켄 팩스턴은 텍사스 주 소재 LULAC(전미 라틴계 미국인 연합) 사무실 다섯 곳에 대한 동시 급습을 지시했다. 이 급습은 ‘유권자 등록 사기 혐의 조사’라는 명목으로 진행되었다. 시민단체와 LULAC은 이 조치가 2025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계획 되어 있던 라티노 유권자 참여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위협에 직면한 진보적 라티노들이 집단적 권익 수호의 관점에서 민주당과의 결속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다.

이렇듯 라티노 정치는 통합된 소수집단에서 ‘분화된 정치적 행위자’로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분화가 장기적으로 어떤 형태의 제도적 적응을 이끌어 낼 것인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특히 양당제의 구조적 경직성이 라티노 정치의 다원화된 요구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긴장이 어떤 새로운 정치적 혁신으로 이어질 것인지는 향후 연구에서 더 깊이 탐구되어야 할 주제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초국적 정치 네트워크의 영향, 디지털 미디어가 라티노 정치 담론 형성에 미치는 효과, 그리고 2세대와 3세대 라티노들의 정치적 사회화 과정에 대한 장기적 추적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Abrajano, Marisa, and Zoltan L. Hajnal (2017), *White Backlash: Immigration, Race, and American Politic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Abrego, Leisy J. (2019), “Relational Legal Consciousness of U.S. Citizenship: Privilege, Responsibility, Guilt, and Love in Latino Mixed-Status Families,” *Law & Society Review*, Vol. 53, No. 3, pp. 641–670.
- Asad, Asad L. and Matthew Clair (2017), “Racialized legal status as a social determinant of health,” *Soc Sci Med*, Feb., pp. 19–28.
- Barreto, Matt A., and Gary M. Segura (2014), *Latino America: How America’s Most Dynamic Population Is Poised to Transform the Politics of the Nation*, New York: Public Affairs.
- Beltrán, Cristina (2010), *The Trouble with Unity: Latino Politics and the Creation of Identi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2021), “To understand Trump’s support, we must think in terms of multiracial Whiteness,” *The Washington Post*, January 15, <https://www.washingtonpost.com/opinions/2021/01/15/understand-trumps-support-we-must-think-terms-multiracial-whiteness/>
- Borjas, George J. (2003), “The Labor Demand Curve Is Downward Sloping: Reexamining the Impact of Immigration on the Labor Market,”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18, No. 4, pp. 1335–1374.
- (2015), “Immigration and Globalization: A Review Essa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53, No. 4, pp. 961–974.
- Brookings Institution (2024), “The Importance of Understanding Latino Voters in Battleground States,” January 26, <https://www.brookings.edu/articles/the-importance-of-understanding-latino-voters-in-battleground-states/>
- Brownstein, Ronald (2024), “Analysis: Why Biden’s Fate May Be Settled in the Rust Belt Not the Sun Belt,” *CNN Politics*, April 8.
- Cadava, Geraldo (2020), *The Hispanic Republican: The Shaping of an American Political Identity, from Nixon to Trump*, New York: HarperCollins.
- Card, David (1990), “The Impact of the Mariel Boatlift on the Miami Labor Market,”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Vol. 43, No. 2,

pp. 245–257.

- Clemens, Michael A., & Jennifer Hunt (2017), “The Labor Market Effects of Refugee Waves: Reconciling Conflicting Results,” NBER Working Paper No. 23433.
- Dilulio, John. J., Jr. (2024), “The 4 working-class votes,” *Brookings Institution*, <https://www.brookings.edu/articles/the-4-working-class-votes/>
- Edison Research (2024), “Latino Male Voters Shift Toward Trump in 2024 Election,” *National Election Pool Exit Poll Data 2024*, New York: Edison Research.
- Escobar, Natalie (2020), “What Pundits Get Wrong About the Latino Vote,” *NPR*, October 30, <https://www.npr.org/sections/codeswitch/2020/10/30/929575586/what-pundits-get-wrong-about-the-latino-vote>
- Flores, René. D., and Ariela Schachter (2018), “Who are the “illegals”? The social construction of illegality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83, No. 5, pp. 839-868.
- Fraga, Bernard L., Yamil Ricardo Vélez, and Emily A. West (2024), “Reversion to the mean, or their version of the dream? Latino voting in an age of populism,”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119, pp. 517-525.
- Fraga, Luis R., John A. Garcia, Rodney E. Hero, Michael Jones-Correa, Valerie Martinez-Ebers, and Gary M. Segura (2013), *Latino National Survey (LNS)*, 2006, Inter-university Consortium for Political and Social Research(distributor).
- (2012), *Latinos in the New Millennium: An Almanac of Opinion, Behavior, and Policy Preference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oelzhauser, Greg, and David M. Konisky (2019), “The State of American Federalism 2018–2019: Litigation, Partisan Polarization, and the Administrative Presidency,” *Publius: The Journal of Federalism*, Vol.49, No.3, pp. 379–406.
- (2020), “The State of American Federalism 2019–2020: Polarized and Punitive Intergovernmental Relations,” *Publius: The Journal of Federalism*, Vol. 50, No. 3, pp. 311–343.
- Guo, Kayla (2025), “LULAC condemns Paxton’s election fraud raids as “intimidation”,” *Texas Tribune*, March 18,

- <https://www.texastribune.org/2024/08/23/texas-ken-paxton-vote-fraud-investigation/>
- Hickel Jr., Flavio R., Rudy Alamillo, Kassra A. R. Oskooii, and Loren Collingwood (2020), “The Role of Identity Prioritization: Why Some Latinx Support Restrictionist Immigration Policies and Candidates,” *Public Opinion Quarterly*, Vol. 84, No. 4, pp. 860–891.
- Hopkins, Daniel J. (2010), “Politicized Places: Explaining Where and When Immigrants Provoke Local Opposi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104, No. 1, pp. 40–60.
- Igielnik, R., Keeter, S. and Hartig, H. (2021), “Behind Biden’s 2020 victory: An examination of the 2020 electorate, based on validated voters,” Pew Research Center.
<https://www.pewresearch.org/politics/2021/06/30/behind-bidens-2020-victory/>
- Johnson, Vernon D. (2022), “Populist nationalism in the age of Trump,” *Acta Academica*, Vol. 54, No. 3, pp. 49-80.
- Jones-Correa, Michael, James A. McCann (2020), *Holding Fast: Resilience and Civic Engagement Among Latino Immigrants*,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Kehrberg, Jason E., Emma A. Cepek, Sydney L. Trudo & Kygan T. Yonts (2025), “Education, Acculturation, and Latine Attitudes on Immigration,” *Latino Studies*, Vol. 23, pp. 92–104.
- Kunovich, Robert M. and Mathew J. Creighton (2022), “Legal Status Stratification and Support for Immigration Enforcement among U.S. Latinos,” *Social Forces*, Vol. 100, No. 4, pp. 1785–1812.
- Macdonald, David (2025), “The political consequences of public attitudes toward ‘Legal’ vs. ‘Illegal’ immigrants,” *Politics, Groups, and Identities*, April, pp. 1-19.
- Martinez, Sandra Baltazar(2024), “Conference to explore surge in Latino activism after California’s Prop. 187,” Feb. 22,
<https://news.ucr.edu/articles/2024/02/22/conference-explore-surge-latino-activism-after-californias-prop-187>
- McCabe, Katherine T., Yalidy Matos, and Hannah L. Walker (2021), “Priming Legality: Perceptions of Latino and Undocumented Latino Immigrants,” *American Politics Research*, Vol. 49, No. 1, pp. 106–113.

- Menjívar, Cecilia & Sarah M. Lakhani (2016), "Transformative Effects of Immigration Law: Immigrants' Personal and Social Metamorphoses through Regulariza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121, No. 6, pp. 1818–1855.
- NBC News (2024), "After Latino men voted for Trump in large numbers, here's what they hope he delivers," December 1, <https://www.nbcnews.com/news/latino/trump-hispanic-latino-men-vote-what-expect-economy-jobs-rcna181915>
- Ottaviano, Gianmarco I. P., and Giovanni Peri (2012), "Rethinking the Effect of Immigration on Wages," *Journal of the European Economic Association*, Vol. 10, No. 1, pp. 152–197.
- Pérez, Efrén, Ramona Alhambra, Joyne Nguy, et al. (2024), "System justification drives Latino support for nativist policies,"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Vol. 27, No. 8, pp. 1818-1834.
- Pew Research Center (2018), "Views of immigration policy," October 25, <https://www.pewresearch.org/race-and-ethnicity/2018/10/25/vi-ews-of-immigration-policy/>
- Pew Research Center (2021a), "How Trump compares with other recent presidents in appointing federal judges," January 13, <https://www.pewresearch.org/short-reads/2021/01/13/how-trump-compares-with-other-recent-presidents-in-appointing-federal-judges/>
- Pew Research Center (2021b), "Most Latinos Say U.S. Immigration System Needs Big Changes," August 12, https://www.pewresearch.org/short-reads/2021/04/20/most-latinos-say-u-s-immigration-system-needs-big-changes/?utm_source=chatgpt.com
- Pew Research Center (2024a), *How Latino Voters Shaped the 2024 Presidential Race*, Washington, D.C.: Pew Research Center.
- (2024b), "How Latino Voters View the 2024 Presidential Election," July 19, <https://www.pewresearch.org/short-reads/2024/07/19/how-latino-voters-view-the-2024-presidential-election/>
- Chishti, Muzaffar and Kathleen Bush-Joseph(2023), "Federal judges step into the void to set U.S. immigration policy," *Migration Policy Institute*, March 30, <https://www.migrationpolicy.org/article/courts-set-us-immigration-policy>
- Rodriguez, Carlos, and Geraldo Cadava (2023), "Deserving Americans: Legal Status and the Moral Economy of Latino Conservatism,"

-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Vol. 49, No. 10, pp. 2348–2367.
- Ryo, Emily (2017), “On Normative Effects of Immigration Law,” *Stanford Journal of Civil Rights & Civil Liberties*, Vol. 13, No. 1, pp. 95–135.
- Samuels, Michelle (2017), “What’s Really Driving America’s Ongoing Immigration Debate,” *Bu TODAY*, May 9.
<https://www.bu.edu/articles/2017/ali-noorani-on-american-immigration/>
- Sánchez, Gabriel R., and Edward D. Vargas (2016), “Taking a Closer Look at Group Identity: The Link between Theory and Measurement of Group Consciousness and Linked Fate,”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Vol. 69, No. 1, pp. 160–174.
- Scherer, Jasper, Zach Despart, Berenice Garcia, et al. (2024), “Trump’s near sweep of Texas border counties shows a shift to the right for Latino voters,” *The Texas Tribune*. November, 6,
<https://www.texastribune.org/2024/11/06/donald-trump-near-sweep-texas-border-counties/>
- Teixeira, Ruy (2017), *The Optimistic Leftist: Why the 21st Century Will Be Better Than You Think*, New York: St. Martin’s Press.
- Toribio, Alfonso (2024), “Conference to Explore Surge in Latino Activism after California’s Prop. 187,” *UC Riverside News*, February 22.

Article Received: 2025.11.23.

Revised: 2025.12.18.

Accepted: 2025.12.19.

로베르토 볼라뇨의 『먼 별 *Estrella distante*』에 나타난 칠레 파시즘의 기원에 대한 탐구

정승희*

단독/고려대학교

ABSTRACT

Tracing the Origins of Chilean Fascism in Roberto Bolaño's *Estrella distante*. Chilean writer Roberto Bolaño's novel *Estrella distante*(1996) covers the period from the Allende government through the Pinochet dictatorship and into the early years of democratic transition. The story unfolds around the people Carlos Wieder, a Chilean Air Force officer and military secret agent, met when he infiltrated two poetry workshops at the University of Concepción under an assumed name. The narrative is structured around various symmetries and doubled/twin motifs, particularly juxtaposing European fascism of World War II with the violence of Chilean military regime. This suggests that the Southern Cone, untouched by the direct experience of World War II, was belatedly struck by a wave of violence and terror equivalent to that war. Although the novel focuses on the late 20th century beginning with Allende's presidency, it also shows that the seeds of violence and terror had long existed in Chilean history: the wars and territorial disputes with the Mapuche, the War of the Pacific against Peru and Bolivia, the presence of German settlers in the south, and the racism that exalts whiteness and European ancestry. The primary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novel's implication that the roots of fascistic violence in modern Chilean history are connected to this legacy inherited from the past.

Keywords: 칠레 쿠데타, 파시즘적 폭력, 2차 대전, 칠레 인종, 마푸체
Coup d'état in Chile, Fascistic Violence, World War II, Chilean Race, Mapuche

* Seunghee Jung is a Ph.D in Latin American Literature (libertango@hanmail.net).

들어가는 글

1973년 9월 11일 쿠데타로 아옌데 정권을 무너뜨리고 권력을 잡게 된 칠레의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통치는 1988년 피노체트의 재신임을 묻는 국민투표 결과가 나오기까지 큰 흔들림 없이 지속되었다. 재신임 반대표가 과반을 넘기면서 칠레는 1989년 대선을 치를 수 있게 되고, 파트리시오 아일윈이 대통령에 당선된다. 아일윈 정부가 출범한 직후 피노체트 집권기에 자행된 고문, 사망, 실종 사건 등의 인권 유린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진실과 화해를 위한 국가 위원회(Comisión Nacional de Verdad y Reconciliación)’가 꾸러졌으며, 1991년 3월 4일 대통령이 직접 텔레비전에 나와 9개월에 걸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¹⁾ 그러나 이 날짜를 전후하여 군부독재의 핵심적인 두 부역자에 대한 암살 사건이 발생하면서 과거사에 대한 해석과 단죄의 범위를 두고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칠레 작가 로베르토 볼라노의 소설 『먼 별 *Estrella distante*』(1996)에서도 피노체트 시기 군부의 악행을 상징하는 한 인물이 사법 절차를 통해 단죄되지 못하고 암살이라는 결말을 맞게 됨을 암시한다.²⁾ 이 작품은 작가의 망명지 스페인에서 출간되었으며 당시 칠레 내부에서 나왔던 시대와 매우 밀착된 증언이나 고발, 혹은 망명 작가들의 목소리와는 사뭇 다른 방식과 주제 의식으로 쓰였다. 카를로스 비더(Carlos Wieder)라는 불가해한 인물의 행적을 통해 칠레 군부 통치의 잔혹하고 감추어진 면을 드러내며, 60년대 말에서 80년대까지 코노수르 지역에서 공유된 역사와 콘도르 작전 등으로 서로 깊이 얽혀있기도 했던 맥락을 2차 대전의 나치즘과 중첩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라틴아메리카는 유럽과 지리적으로 멀고, 2차 대전이 발발하게 된 국제적인 이해관계와 얽혀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1차 대전뿐 아니라 2차 대전도

1) 3400건이 넘는 사례를 조사한 방대한 보고서는 91년 2월 8일 대통령에게 제출되었으며, 3월 4일 대통령이 텔레비전을 통해 그 내용을 직접 발표하였다.

<https://biblioteca.uahurtado.cl/2021/03/09/informe-rettig-30-anos/>

2) 작품은 주인공의 암살을 명확히 묘사하지 않으며 그러한 방식의 보복을 부추기지도 않는다. 피노체트의 통치가 끝난 것처럼 그 시기를 상징하는 인물의 죽음으로 설정되어 있을 뿐이다. 법의 한계와 사법 절차의 지남함에 대한 불만족도 있을 것이나 이는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같은 방식으로 보복할 수밖에 없는 좌파와 우파의 습성에 대한 쓸쓸한 기록으로 읽힌다.

전쟁의 포화 없이 지나갔다. 하지만 1970년대와 80년대 코노수르에서의 이 십몇 년간은 그들로서는 2차 대전에 상응할 만한 시간이었다.

소설의 구체적인 시간적 배경은 1970년 인민연합 정권이 출범한 이후에서 90년대 초반까지지만 텍스트 곳곳에서는 칠레 역사의 폭력과 파시즘의 씨앗을 더 오래된 과거에서 찾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어느 날 피노체트라는 악인이 등장하여 모든 것을 망친 것이 아니라 칠레 땅의 식민 정복 시기부터 마푸체 원주민과 맺어온 관계, 19세기 중반 칠레 남부에 유럽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며 생긴 토지 문제, 페루-볼리비아 연합군과 치른 태평양 전쟁, 외국 자본에 의한 광산 착취와 오랜 계급적 불평등 속에서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아옌데 정권과 이를 필사적으로 저지하고자 한 칠레 기득권과의 갈등이 축적되고 서로 얽히어 폭발한 것임을 제시하는 것이다.

소설은 콘셉시온 대학의 시 창작 모임에서 시작되며 수많은 시인들의 작품이 패러디되고, 또 비더가 자신의 악행을 아방가르드 시 창작 과정으로 여기는 점, 비더가 하늘에 쓴 창세기 시가 어떤 성경 버전에서 따온 것인가를 탐구하는 물가치에 가까운 문학 비평 집단에 대한 비판 등 시 창작과 칠레 문학의 맥락에서 해석될 여지가 풍부하다. 하지만 이 글을 통해서 『먼 별』이 2차 대전기 유럽의 파시즘(나치즘)과 1973년 이후 칠레(넓게는 코노수르)에서의 파시즘을 어떻게 대칭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이 파시즘의 폭발을 가능하도록 한 칠레의 토양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봄으로써 군부 통치가 끝나고 지난 시간과 사건들을 다시 마주해야 하는 시점에서 작가가 던진 문제의식이 무엇인지 분석해 나가고자 한다.

대칭구조로 드러낸 유럽과 코노수르의 파시즘

소설은 『아메리카의 나치문학』의 마지막 장에 실린 라미레스 호프만 이야기의 글감을 제공해준 아르투로 B.가 작품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를 좀 더 긴 이야기로 만들기 위해 직접 창작하게 되었음을 밝히며 시작된다. 『아메리카의 나치문학』은 볼라뇨가 1996년 출간한 나치 문학 작가들에 대한 가짜 선집 형태의 소설로 그는 북아메리카부터 라틴아메리카까지, 즉 아메리카 대륙 전체에서 활약한 우파적이고, 유럽적인 뿌리에 자신을 위치시키면서 자연스레 인종주의적인 시각을 드러내는 가상의 엘리트 문학가들의

면면을 백과사전식으로 창작하였다. 그런데 나치 문학이라는 범주가 아메리카 대륙의 나치 문학 선집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실제적인 영역일까? 독일이나 스페인, 이탈리아 문학사의 한 장(章)에 나치 문학, 팔랑헤주의 문학, 혹은 파시스트 문학이 들어가 있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고, 또 이는 충분히 실재할 수 있는 책이나 개념이지만 적어도 라틴아메리카의 공식적인 문학사 기술에 있어서 장르나 혹은 서브 장르로서 나치 문학이 존재해왔다고 말하기 힘들다. 사실 라틴아메리카를 다룬 어떤 문학사 책이나 비평집에서도 ‘나치 문학’이라는 범주를 본 적은 없다. 하지만 이는 관습적인 문학 비평과 장르 범주에 집어넣을 수 없을 뿐 극우파, 우파 성향의 문학으로 바꾸어 본다면 항상 존재해온 영역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볼라노의 소설에서 ‘나치 문학’이라는 범주는 아메리카, 특히 19세기 독립기와 독립 이후 유럽의 사상과 문학을 짓줄 삼아 정체성을 만들어가려고 했던 라틴아메리카 엘리트들의 존재 방식을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즉, 몸은 야만적이고, 통치될 수 없는 아메리카에 있는데, 머리는 유럽에 있고, 항상 유럽에서 교양과 경험을 쌓으며, 유럽과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이고 상징적인 권력을 획득하고자 하는 19세기와 20세기 초 라틴아메리카 지식인 엘리트를 상상하기란 어렵지 않다.

유럽과 아메리카의 이러한 사상적 연결, 혹은 종속은 칠레의 파시즘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유럽이 아메리카를 틀 지우고, 인종과 언어, 문화와 사상이 유입되는 통로였으므로 아메리카는 유럽을 닮게 되고 인종적, 언어적, 문화적 끈으로 이어지게 된다.³⁾ 물론 두 세계의 지위는 동등하지 않으며, 아메리카에는 원주민 세계라는 쉽게 이해되거나 넘기 힘든 ‘장벽’이 있었다.

이렇게 유럽과 아메리카가 대칭되듯 상반되거나 혹은 닮은 두 요소의 대칭은 소설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장치이다. 콘셉시온 대학에서 시 창작

3) 작가는 2002년 도미니크 오세낙(Dominique Aussenac)과의 인터뷰에서 유럽과 아메리카에 대해 이야기한다. “라틴아메리카는 유럽의 정신병원과 같습니다. 어쩌면 처음에는 라틴아메리카를 유럽의 병원이나 곡물창고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지금은 정신병원입니다. 가난해지고,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정신병원인 그곳에서는 혼돈과 부패에도 불구하고 눈을 뜨고 잘 살펴보면 루브르의 그림자를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Bolaño 2006, 111).” 라틴아메리카와 유럽을 오가며 산 볼라노는 두 대륙에 대한 거시적인 평가를 즐겨 하지는 않았으나 이 인터뷰에서는 라틴아메리카를 식량 생산지로서 유럽인들의 배고픔과 인구 폭발을 완충해주고 유럽의 부정적인 측면들이 극대화된 정신병원이자 희미한 예술적인 반영(루브르의 그림자)일 수도 있다고 보았다.

수업을 열었던 후안 스테인과 디에고 소토는 시로 연결되어 있지만 대조적인 짝을 이룬다. 둘은 라이벌 관계지만 스테인은 우크라이나계 유대인으로서 키가 크고 백인계 외모를 지니고 있으며 라틴아메리카 시와 시인들을 맴도는 데 반해, 소토는 원주민 외모에 키가 작고 볼품없이 생겼으나 프랑스 실험주의 시에 조예가 깊고 이를 번역하는 능력으로 사람들의 질투를 받는다. 쿠테타가 발발한 뒤 스테인은 종적을 감추었으나 이후 라틴아메리카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무장 투쟁의 장소들을 옮겨 다니며 혁명가로서의 삶을 살게 되고, 혁명가가 된 이후의 스테인은 유대인 소비에트 장교의 조카로서 카를로스 비더와 대칭적인 짝을 이룬다. 독일계 후손으로서 시와 폭력, 사디즘으로 유럽 파시즘을 재현하는 비더는 유대계 러시아인의 후손으로서 라틴아메리카 혁명에 투신한 스테인과 인종적으로, 사상적으로, 또 행동에서 대조되는 한 쌍이 된다.

또 다른 한 쌍은 콘셉시온 대학의 시 창작 수업에서 친구가 된 화자와 비비아노 오리안이다. 쿠테타 이후 한 명은 칠레에 남고, 다른 한 명은 멕시코와 스페인을 떠돌게 되자 이후 단 한 번도 재회한 적은 없지만 비비아노는 지속적으로 편지를 보내 ‘나’에게 비더를 추적하면서 얻은 모든 시시콜콜한 정보를 전해주고, 주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함으로써 화자를 칠레와 이어주는 거의 유일한 끈 역할을 한다. 이후 유럽에서 비더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은 공조하게 된다.

한편 상반되는 대칭구조는 두 주체나 대상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 존재의 이중성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시간과 공간의 이동 속에서 등장인물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변신시키거나 내적인 이중성을 드러낸다. 루이스 타글레는 카를로스 비더였으며, 시인 후안 스테인은 무장 혁명 게릴라가 되었고 하나의 국가 칠레는 좌파와 우파로 나뉘어져 정치적 부침을 겪는다. 하나이자 두 개체인 삼쌍둥이 모티브가 수차례 반복되며 이러한 내적인 이중성을 드러낸다.⁴⁾

이렇게 반복되는 대칭구조는 남아메리카 코노수르의 파시즘이 유럽 파시즘과의 대칭, 혹은 쌍둥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구조로 읽을 수 있다. 비더의

4) 이중구조는 단순히 대칭적으로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끊임없는 변신과 유희 속에서 의미의 폭발을 만들어내는 장치가 되고 있다. 이 폭발은 라미레스 호프만 이야기의 반복이 아니라 소설을 “작품안의 거울과 내적 폭발(espejo y explosión en sí misma, 11)”로 만드는, 아르투로 B.의 다시쓰기가 의도한 바이기도 하다.

존재는 루이스 타글레라는 이름으로 시 창작 모임에 잠입했을 때부터 모호했고, 유럽으로 도피한 뒤로는 계속 정체와 이름, 사는 장소를 바꾸어가며 추적자와 독자들을 혼란스럽게 한다. 칠레의 쿠테타와 군부 집권 시기를 2차 대전, 파시즘, 나치와의 연계로 읽어가다 보면 그의 행적과 그를 추적해가는 과정이 남아메리카로 숨어든 일급 나치 전범 요세프 멩겔레(Joseph Mengele)를 떠올리게 한다. 라틴아메리카에는 나치의 추적을 피해서 온 많은 유대인들이 정착하기도 했지만 특히 남아메리카는 유럽에서 지리적으로 멀고, 또 나치에 우호적이기도 했기 때문에⁵⁾ 2차 대전 이후 많은 전범들이 숨어들었다. 가장 유명한 경우인 아이히만은 1960년 아르헨티나에서 이스라엘 비밀경찰 모사드에 붙잡혀 이스라엘에서 재판을 받았고, 아우슈비츠에서 생체실험을 주도한 의사 멩겔레는 아르헨티나로 들어왔다가 코노수르의 여러 곳으로 거처를 옮겨 다니다 브라질에 정착한 뒤 1979년 사망했다. 나치 사냥꾼이라고 불렸던 비젠탈이 1993년야야 뼈의 DNA 감식을 통해 유해가 멩겔레의 것임을 밝혔기 때문에 그때까지 멩겔레의 생사 여부와 행적에 대한 수많은 추측이 이루어졌고, 이를 다룬 소설도 나왔다.⁶⁾ 그는 나치 체제하에서 온갖 생체실험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의사로서 상상해볼 수 있는 인체에 대한 모든 사악한 호기심을 실행에 옮긴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그는 쌍둥이에 관심이 많았으며, 아우슈비츠로 쏟아져 들어오는 유대인들 가운데 쌍둥이만을 따로 선별해 실험하고, 쌍둥이 한 명을 대조군으로 두고 다른 한 명을 실험군으로 삼아 온갖 생체실험을 한 뒤 결과를 도출하고 죽이는 방식을 택했으며, 두 쌍둥이를 억지로 삼쌍둥이처럼 하나의 몸으로 합체시켜버리는 등의 만행을 저질렀다. 멩겔레의 실험이 우생학자 골턴 이후 쌍둥이에 대한 가장 대규모의 유명 실험이었던 것을 고려하면⁷⁾ 비더에

5) <http://www.dw.com/es/el-cono-sur-ha-sido-muy-hospitalario-con-los-criminales-nazis/a-2976547>

6) 이아라 레빈의 『브라질에서 온 소년들 *The Boys from Brazil*』(1976)은 멩겔레가 코노수르에서 벌인 음모를 다루며, 1978년 동명의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영화에서 멩겔레는 파라과이에 숨어들었고, 히틀러의 유전자를 간직한 소년들을 남아메리카에서 복제해 전 세계로 입양 보냈다. 히틀러와 동일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유사한 가정환경을 가진 집을 골라 아이를 입양 보내고, 히틀러의 아버지가 죽었을 때와 같은 나이에 입양부들을 죽게 하기 위해 그들 전부를 살해하는 계획을 세운다. 1973년 최초로 시험관 시술이 성공했고 1978년에 처음으로 영국에서 이 기술을 통해 아이가 태어났으니 유전공학이나 인위적인 방식으로 생명을 잉태시키는 이 기술에 대해 환영보다는 우려가 컸을 것이다. 인간을 대상으로 온갖 잔혹한 실험을 한 멩겔레를 당시로서는 ‘의심스럽고 비인간적인’ 새로운 의술과 연관시키고 히틀러 복제를 꿈꾸는 광인으로 등장시키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의해 반복되는 쌍둥이 모티브는 멩겔레에서 따온 것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비더가 보여준 쌍둥이에 대한 집착, 즉 스테인의 창작 그룹에서 가르멘디아 자매만을 골라 죽인 것, 옥타비오 파체코라는 이름으로 사도마조히즘적 삼쌍둥이에 대한 희곡을 창작한 것 등에서 멩겔레의 쌍둥이 실험이 연상되며, 멩겔레가 계속 정체를 바꾸면서 남아메리카에서 도피 행각을 벌인 것 역시 비더의 변신이나 모호한 행적과 겹친다. 멩겔레를 추적하던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와 홀로코스트 연구자 비젠탈은 마치 비더를 쫓는 비비아노와 로메로, 익명의 의뢰인과 유사하다. 유럽의 전범 멩겔레는 남아메리카로 숨어들었고, 코노수르의 비더는 유럽으로 숨어들었다. 멩겔레가 아우슈비츠에서의 악의 실천을 대표하듯 칠레 파시즘의 극단은 비더라는 인물의 행위에 응집되어 있다.

코노수르에 뒤늦게 도래한 ‘2차 대전’

텍스트에는 칠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2차 대전의 연장이자 그림자임을 암시하는 대목이 많이 등장한다. 화자는 쿠데타가 일어나고 얼마 뒤 라페냐 수용소에 갇히게 되고, 거기서 카를로스 비더가 최초로 하늘에 시를 쓰는 퍼포먼스를 하는 광경을 목격하는데, 수용소에 들어온 미치광이 노르베르토는 비행기 퍼포먼스를 보더니 나치의 전투기 매서슈미트 109기라며 칠레 땅에서 2차 대전이 치뤄지고 있다고 외친다. 그런 뒤 노르베르토는 전설적인 독일군 비행사들의 이름을 하나씩 언급하며 비더의 기술이 그들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고 감탄한다.

미쳐버린 노르베르토는 울타리에 원숭이처럼 달라붙어서 웃으며 지구에 2차 대전이 다시 돌아왔다고 말했다. 3차 대전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착각한 것이고 돌아오고 돌아오고 또 돌아오는 것은 2차 대전이라고 했다. 우리 칠레인들이 이 귀환에 환영 인사를 할 수 있으니 얼마나 행운의 민족인가 하고 말했다(37).⁸⁾

7) 우생학자였던 골턴이 최초로 쌍둥이 주제에 관심을 두었다. 일란성 쌍둥이가 이란성 쌍둥이보다 더 비슷한 행동을 보이면 양육보다는 본성(유전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입증될 것이었다. 골턴 이후 두 번의 쌍둥이 연구가 있었는데 처음이 바로 멩겔레의 쌍둥이 실험이다(Ridley 2004, 112-115).

칠레에 2차 대전이 돌아왔다는 것은 미친 노르베르토의 착각이었지만 2차 대전에 대한 언급은 후안 스테인이 이반 체르냐흐스키(1906-1945)의 조카라는 사실이 드러나며 반복된다. 체르냐흐스키는 우크라이나계 유대인으로서 소련군으로 독일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영웅이고, 1945년 베를린으로 진격하다가 전사한 인물이다. 스테인의 부모는 나치를 피해 남아메리카로 온 수많은 유대인 중 일부였을 것이며, 스테인은 쿠데타가 발발하기 이전까지는 가난한 시인이자 문학교수로 살아갔다.⁹⁾

한편, 자신이 고문하고 죽인 여성들의 사진을 전시한 것에 대한 징계로 군대를 떠난 비더의 행적은 묘연해지고, 그가 기고한 글들을 추적해나가며 비비아노는 나치 독일의 영향을 느낄 수 있는 잡지들을 발견한다. 그는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칠레의 여러 잡지에 글을 실고 그 이름들 속에는 명백히 게르만 인종과 문화, 나치의 영향력이 드러나는 『게르마니아 *Germania*』, 『폭풍 *Tormenta*』, 『아르헨티나 제4제국 *El Cuarto Reich Argentino*』, 『철십자 *Cruz de Hierro*』, 『오딘 *Odin*』 등이 끼어있었다. 게르마니아는 고대 로마에서 독일 지역을 부르던 이름이었으며, 히틀러는 2차 대전이 성공한 뒤 베를린을 ‘세계수도 게르마니아’로 개조할 계획을 세우고 건축가 알베르트 슈페어를 통해 이를 기획하였다. 폭풍 역시 독소 전쟁 중 독일군이 스탈린그라드에서 치른 겨울폭풍작전(Operation Winter Storm)을 연상시킨다. 나치 전범들은 신분을 숨기거나 혹은 그대로 노출한 채로 아르헨티나로 가장 많이 들어갔으며, 이러한 사실이 반영된 것이 바로 아르헨티나 제4제국이다. 이는 나치 전범들이 독일이 주도하는 3차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환상을 품고 나치의 금괴를 빼내 아르헨티나에 제4제국을 건설할 계획을 세운다는 일종의 음모론이다. 나치당은 자신들의 집권기를 신성로마제국, 독일 제국에 이어 제3제국이라고 불렀으므로 그다음 도래할 제국은 제4제국이 될 터였고, 그 가장 유력한 후보지를 아르헨티나로 보고 있었다는 설이다. 철십자는 독일군을 상징하는 십자가였으나 나치가 사용

-
- 8) 인용된 『먼 별』의 구절과 문장의 번역은 필자의 것이며, 원문의 쪽수만 표시할 것이다.
 9)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2차 대전의 맥락이 또다시 언급된다. 화자가 거의 20년의 시간이 지난 뒤 비더를 만나러 갔을 때 소지했던 책이 브루노 슐츠(Bruno Schulz)의 전집이었다. 폴란드계 유대인이었던 그는 드로호비츠에 살았는데, 1941년 독일이 이곳을 점령하고 유대인 게토를 만들어 사람들을 강제수용 하였다. 브루노 슐츠는 1942년 길거리에서 계슈타포의 총에 맞아 사망하였다. 슐츠를 언급한 것은 비더 역시 총에 맞아 죽을 것임을 암시하는 장치로 보인다. https://en.wikipedia.org/wiki/Bruno_Schulz

한 뒤로는 나치의 정치적 유산을 상징하는 이미지가 되었다.

2차 대전은 추축국과 연합군의 대결로 굳어지고 일본의 참전으로 아시아와 태평양도 전장이 되었으며, 이후 전대미문의 유대인 인종살해와 생체실험이라는 상흔을 남겼는데, 칠레에서의 ‘2차 대전’이란 다름 아니라 아옌데 정권의 사회주의와 칠레의 공산화를 막는다는 미명하에 저질러진 군부와 비밀경찰의 조직적인 폭력일 것이다. 그렇다면 칠레의 ‘2차 대전’에서 희생된 ‘유대인’은 누구였을까?

우선 사회 개혁을 꿈꾸고, 아옌데의 노선을 지지한 모든 사람들이 떠오른다. 비더가 루이스 타글레라는 이름으로 콘셉시온 대학 시창작 모임에 침투해 들어간 것은 바로 그 대학이 무장혁명 노선을 내세운 집단 미르(MIR: *Movimiento de Izquierda Revolucionaria*, 혁명좌파운동)가 생겨난 곳이고, 산티아고와 더불어 좌파 학생운동의 힘이 가장 강한 곳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비더는 이후 세 개의 시 창작 모임에서 알게 된 여성 네 명을 살해했고, 허공에 쓴 자신의 시에서 이들을 언급한다. 비더는 더러움을 일소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 새로운 행위를 개척하고자 하며, 의식적으로 아방가르드 문학과 예술 전통을 잇고 있다. 죽음에 대한 시에서 그는 죽음이 청소이자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며, 첫 번째 비행 퍼포먼스 시에서는 성서의 창세기를 새기고 산티아고의 하늘에는 다시 성서의 구절들과 ‘칠레의 새로 태어남(*El Renacer Chileno*)’이라는 시의 구절을 썼다.¹⁰⁾ 그는 끝없이 항공시 퍼포먼스를 시도하였으며, 비더를 흠모하는 이들은 그것이 “칠레 종족이 맞을, 철로 된 새로운 시대의 시(53)”라고 했다. 마치 나치 독일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공산주의자들과 집시, 동성애자들을 핍박하고 제거했듯 그의 퍼포먼스는 열등하고 사상이 불순한 모든 이들이 깨끗이 청소된 뒤 칠레가 다시 태어나고, 칠레 북부에서 남극까지 새로운 강인한 시대(철의 시대)가 열릴 것임을 알리고 있다. 청소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좌파 지식인이나 혁명가, 물리적 힘이 약한 여자들뿐만 아니라 아옌데가 국유화한 광산에서 일하는 프롤레타리아 노동자도 포함되어 있다. 임시수용소에서 ‘나’는 광인 노르베르토뿐만 아니라 로타 광산에서 일하던 광부를 만났으며, 수용소 인원의 절반은 광산 노동자들과 그의 가족들이었다.

10) 본문의 맥락에서 ‘칠레의 새로 태어남’은 쿠데타의 성공을 축하하는 시나 시집의 제목으로 추정된다.

동지, 허공에 뭐라고 쓴 거요? 로타 광산의 한 광부가 물었다. 라페냐 수용소에서 체포당한 사람(남자와 여자) 절반은 로타 사람들이었다(38).

로타 광산은 19세기 중반 칠레에서 가장 먼저 개발된 석탄 광산으로 초석이나 구리 광산과 마찬가지로 열악한 노동조건과 생활 환경 때문에 광부들의 파업이 잦았고, 1970년 말 아옌데 정부가 출범한 뒤 구리, 은행에 이어 추진된 석탄광 국유화 정책에 의해 국영석탄회사(ENACAR)의 소유가 된다. 로타는 대부분 광산 노동자와 가족이 사는 지역이었으므로 그들이 대거 라페냐 수용소로 잡혀온 것이다. 아옌데 시절 입에 붙은 동지(*compañero*)라는 호칭으로 상대방을 부르고, 비더가 라틴어로 쓴 시를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이들 노동자와 그 가족들에게 이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상상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 칠레 군부 체제와 거기에 속한 비더에게는 사회주의에 오염된 프롤레타리아 노동자들은 불순한 존재였고, 실제로 쿠데타 이후 많은 광산 노동자들과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고문당하고 암살당하게 된다.¹¹⁾

칠레 역사와 파시즘적 폭력의 뿌리

칠레가 왜 쿠데타를 겪고 파시즘의 나라로 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맥락이 작용했기 때문에 이를 단순히 정리하기란 쉽지 않다. 국제적인 맥락에서는 미국이 CIA를 통해 과테말라에서 시작해 쿠바혁명으로 이어지는 20세기 중반 이후의 좌파 혁명과 민족주의 노선, 게릴라 운동의 확산을 저지하고, 남아메리카에서 칠레가 최초로 사회주의 정권이 집권하여 이것이 주변 나라에 퍼져가거나 유로코뮤니즘과 연계되는 것을 경계하고자 한 것이 아마 가장 컸을 것이다. 미국은 애초에 선거방해 전략을 통해 아옌데의 당선을 저지하는 계획을 우선으로 했으나 의회의 결선투표제를 통해 아옌데가 최종 승리를 거두자 집권 내내 금권과 정보력을 통해 인민연합의 통치를 방해했고, 자원과 여러 기간산업이 국유화되고 미국 기업들의 이익이

11) 쿠데타 직후 군사작전을 통해 수감되어 있던 정치범들을 아무런 절차없이 처형한 죽음의 카라반(*La caravana de la muerte*)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때 북부 안토파가스타에서 광부를 포함한 14명의 좌파 활동가들이 죽임을 당한다.

<https://ciudadano.indh.cl/caravana-de-la-muerte-antofagasta/>

침해당하자 칠레 군부를 통해 쿠데타를 기획하게 된다. 하지만 정권을 잡은 군부는 미국이 ‘허용한’ 것 이상으로 폭력과 탄압을 일삼았고, 마치 자신들의 통치가 영원할 것처럼 집권 말기까지도 알바니아 작전(Operación Albania)¹²⁾ 등의 테러를 자행하면서 미국에 대한 국제 여론에 부담을 줄 정도였다.

한편 소설에서는 칠레가 이 정도로 폭력적이고 배타적인 길을 가게 된 것에 대해 어쩌면 칠레 내부에 이미 그 토양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암시하는 여러 요소들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칠레에서 독일계 이민자들의 존재와 그들이 미친 사상적 영향이다. 나치즘은 게르만족의 우월성과 변역을 확신하고 게르만족이 살아갈 수 있는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 2차 대전을 일으켰고, 우생학적인 사고에 기반해 ‘열등한’ 유대인들을 말살시킨다는 광기에 빠져들었다. 칠레에서 게르만 인종 우월주의가 있었다는 것은 언뜻 이해하기 힘들지만 남부를 중심으로 독일계 이민자들이 들어와 정착함으로써 가능했다. 칠레의 독일계 이민은 19세기 중반에 시작된다. 외교관이었던 비센테 페레스 로살레스(Vicente Pérez Rosales)가 유럽에 가서 직접 독일 이민자들을 처음 데려와 그들을 남부 여러 도시에 정착시키게 되며, 그 수가 매우 크지는 않았지만 영향력 있는 집단이 되었고, 칠레 남부에 독일계 이민자들이 많고 음식이나 건축 등 그들이 남긴 문화적 영향이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칠레에서는 메스티소 인구 비율이 높았으나 피부색이 하얀 것, 백인계 외양을 가진 것이 상당히 높이 평가되어왔기 때문에(Larraín 2017, 213) 독일계 사람들은 특히 외모적인 측면에서 주목을 끈다. 그래서 칠레의 통념상 독일인들은 건축, 음식, 언어, 신체적 특징 등에서 스페인계 문화와는 다른 문화적 기여를 했다고 여겨지며, 독일계 혼혈인들이나 후손들은 스스로 자부심, 혹은 우월감을 갖는 풍토가 있다. 비더는 20세기 초에 이주해와 푸에르토 몬트에 정착한 독일계 칠레인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푸에르토 몬트가 바로 페레스 로살레스가 독일 이민자들을 데려오면서 1853년 세운 도시이며 마푸체어로는 멜리풀리(Melipulli)라고 불리던 곳이었다.

12) 코르푸스 크리스티 학살(Matanza de Corpus Christi)이라고도 불린다. 1986년 마누엘 로드리게스 애국전선(FPMR)의 피노체트 암살 시도가 실패한 뒤 국가정보센터(CND)는 큰 위기의식을 갖게 되고 요원들을 동원하여 마누엘 로드리게스 전선의 멤버 12명을 체포한 뒤 고문하여 죽이게 된다. 미디어를 통한 여론전에서는 정부가 반정부단체와의 교전을 벌였고 그 결과 12명이 죽게 된 것이라고 조작하였다.

비비아노는 비더의 성이 독일어로 어떤 의미인지 장황하게 설명을 한다. 비더(Wieder)는 ‘다시’, ‘두 번째’라는 뜻으로 2차 대전 이후 칠레에서 파시즘의 전쟁이 다시 도래할 것임을 암시하는 이름이다. 유대계 후손으로 부모님이 역시 푸에르토 몬트에 살던 후안 스테인은 쿠데타 발발 후 아프리카와 아메리카의 여러 무장 혁명 운동에 투신하여 싸우게 되는 데, 독일계 비더와 유대계이자 소련군 최고의 장군이었던 이반 체르냐호프스키의 조카 스테인을 통해 두 세력의 대립이 설정되어 있다.

독일계 이민자들은 19세기 중반에 처음 들어온 이후 여러 차례 집단적으로 이주하게 되며, 19세기 말과 20세기를 거치며 독일 혈통을 이어받은 이들을 중심으로 게르만적인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사상이 만들어지고, 이후 이는 나치즘과 결합하기도 한다. 우선 칠레 작가 니콜라스 팔라시오스(Nicolás Palacios, 1854-1911)는 1904년 『칠레 인종 *Raza chilena*』이라는 책을 출간하여 칠레 인종론을 펼친다. 그는 칠레 인종이 마푸체와 스페인인의 결합이기는 하지만 스페인 중에서도 북부의 고트족과 결합했기 때문에 우월성이 있으며, 두 인종의 균질한 결합으로 칠레 인종이 형성되었다고 주장했다. 고트족은 스웨덴 남부에서 기원한 인종적 그룹으로 금발에 푸른 눈의 호전적인 전사들이며, 그들이 칠레로 온 스페인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마푸체 원주민과 고트족의 결합이 강인한 칠레 인종을 만들어내었다고 보았다(Palacios 1904).¹³⁾ 실제로 마푸체인들은 식민지 시기에는 스페인 군대, 독립기에는 칠레 군대에 완전히 복속되지 않았고, 그들의 속성 중 이러한 전사적인 특징은 마푸체인과 혼혈을 이룬 칠레의 국가적 정체성으로 지속적으로 언급되어 왔으나(Larraín 2017, 145-155), 이베리아 반도 역시 많은 민족과 문화가 중첩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칠레로 온 스페인 정복자들이 고트족 혈통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 하지만 칠레 최초의 인종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책은 큰 인기를 누렸고, 책의 논지는 얼마 후 칠레에서 국가사회주의당이 만들어지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독일 나치즘의 영향을 받아 호르헤 곤살레스 폰 마레스(Jorge González von Marées)는 1932년 카를로스 켈러(Carlos Keller) 등과 함께 칠레 국가사

13) 팔라시오스는 『칠레 인종』 1장에서 칠레 인종의 아버지는 서로마 제국을 파괴한 고트족의 직계 후손이며, 스페인의 토착 이베로족의 영향은 미미하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린다. “그래서 로토 칠레노는 아라우카노와 고트족의 결합이다(El roto chileno es, pues, Araucano-Gótico).”

회주의당(MNS: Movimiento Nacional Socialista de Chile)을 만들었다. 두 사람 다 독일계 후손이었으며, 폰 마레스는 자신들의 이념을 칠레에서 나온 철자 ‘c’를 넣어 ‘nacismo’로 표기하면서 민족주의를 근간에 깔고 있었다. 그는 팔라시오스의 칠레 인종 개념을 수용하여 칠레 민족이 인종적 통일성과 고유한 영적 특징을 공유한다고 보았다(Corvalán Marquez 2015, 92). 히틀러 신비주의를 표방하며 나치즘을 옹호하는 미겔 세라노(Miguel Serrano, 1917-2009) 같은 작가는 독일 혈통이 아님에도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에 대한 많은 책을 저술했으며, 네오나치가 가장 선호하는 작가였다.

이런 칠레의 맥락 속에서 디에고 소토가 프랑스에서 네오나치에게 살해되는 설정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쿠데타 이후 프랑스에 정착한 그는 스페인 알리칸테에서 열린 문학 컨퍼런스에 참석한 뒤 기차를 타고 돌아가다 환승역인 프랑스 페르피냥역 근처에서 한 여자 부랑자가 네오나치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 개입했다가 피살된다. 네오나치는 타인종에 대한 혐오가 두드러지고, 부랑자, 동성애자 등을 표적으로 삼아 집단적으로 공격하는 특징이 있다. 소토는 쿠데타 이후 칠레를 떠나 안정되고 어쩌면 약간은 프티 부르주아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었을지 모르나 린치를 당하고 있는 부랑자 여성을 구하는 것을 무난한 자기 삶에 다가온 하나의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몸을 던졌다. 그 순간 그는 “짜리몽땅하고 못생긴 인디오(ese pequeño y feo indio, 74)”가 되어 칠레 남부의 사투리로 욕을 해댔고 그의 피부색, 작은 키, 외국어가 바로 나치의 가장 손쉬운 표적이 되게 했다.

칠레에 정착한 나치 전범이나 부역자는 상당히 많으며,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칠레에 게르만 인종의 이민과 그들에 대한 높은 평가, 그들이 칠레 남부에 만들어놓은 인적 네트워크가 기저에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2차 대전 이후 남아메리카로 간 나치 전범들 중에는 아르헨티나로 간 이들이 가장 많았지만 칠레에도 발터 라우프(Walther Rauff) 같은 거물 전범이 정착한다. 그가 만든 가스차는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기 위해 광범위한 지역에서 사용되었으며, 라우프는 종전 후 이탈리아, 시리아, 에콰도르를 거쳐 1958년 칠레 최남단 폰타 아레나스에 정착한다. 이후 그를 두고 피노체트 정권하에서 정보기구 디나(DINA)에 협력했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그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채 1984년 칠레 산티아고에서 질병으로 사망하였다.¹⁴⁾ 라우프 외에도 나치와 군부와의 연계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으로 디그

니다드 공동체(Colonia Dignidad)가 있다. 1961년 나치 부역자 파울 셰퍼(Paul Schäfer)가 칠레 남부로 들어가 종교공동체를 만들어 그곳의 지도자로서 구성원들을 모은 뒤 노동 착취와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를 지속했으며, 피노체트가 집권한 뒤에는 군부와 공조하여 그곳을 고문과 학살 장소로 제공했다. 그는 아르헨티나로 도주하여 2005년 체포되었고, 2010년 산티아고에서 투옥 중 사망한다(Jung 2020, 153-155).

칠레에서 본격적으로 게르만적인 것을 선호하게 된 것은 1870년 보불전쟁에서 프로이센이 승리한 이후였다. 카시폴리(Cassigoli)에 의하면 칠레는 19세기 말 프로이센의 공교육 방식과 철학을 도입하고, 태평양 전쟁 승리 후 칠레 군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프로이센 장교 에밀 쾨르너(Emil Körner)를 초빙하여 군대를 프로이센식으로 개조하는 작업에 착수하는데, 칠레 군이 엄격하고, 경직되고 강압적인 프로이센 군대 모델을 채택함으로써 권위주의적 군대 개념을 내면화하였고 그가 보기에 이것은 1970년대 군부 쿠데타까지로도 이어지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다(2013, 160-164).

두 번째로 언급할 수 있는 것은 칠레 북부와 남부에서 치러진, 페루와 볼리비아, 마푸체 원주민들과 벌인 여러 전쟁이다. 이는 비더가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비디오 게임을 통해 드러난다. 첫 게임의 소재가 된 것은 칠레가 페루, 볼리비아와 치른 태평양 전쟁(1879-1884)이다. 비더는 태평양 전쟁을 다룬 비디오 게임인 ‘전쟁게임’을 만드는 데, 게임의 내용에는 칠레 인종의 성립에 대한 일화가 나온다.

[이 게임에서] 세 번째로 읽어낼 수 있는 것은 칠레의 승리한 군대를 구성했던 평범한 사람들, 즉 리마까지 패배 없이 진군한 칠레 군대와 이 승리가 ‘리마에서’ 이루어진 칠레 인종의 시작과도 연결된다는 것이다. 식민지 시대의 작은 지하 교회에서 열린 비밀회의에서 칠레 인종이 기원하였으며, 성공한 작가들, 무명의 작가들 여러 명이 동일하게 우스꽝스러운 의미로 이를 언급하였다(109).

14) 1963년 칠레 대법원은 칠레에서 저지른 잘못이 아니라는 이유로 서독 정부의 라우프 소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아옌데 정권에서도 비젠탈의 소환 요청이 거부되었다(Guzmán 2024, 139-142).

비더에 의하면 칠레 군대가 페루 군대를 제압한 것이 칠레 인종의 형성에 중요한 기점이며 이후 여러 작가들이 이를 언급했는데, 그 중 한 명으로 니콜라스 팔라시오스와 그가 주장한 칠레 인종론이 떠오른다. 의사로서 직접 태평양 전쟁에 참전하기도 한 팔라시오스는 로토 칠레노(el roto chileno)를 고트족 아버지와 아라우카나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혼혈인으로서 상류층에 의해서 폄훼되고 있지만 칠레 인종의 정수라고 보았다(Palacios 1904). 누더기를 입고 술에 취한, 식민지 시대부터 내려오던 로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태평양 전쟁에서 거둔 승리에 기여한 병사로 여겨지게 되면서 그 이미지가 격상하게 되었다(Alvarado and Fernández 2011, 17). “칠레의 승리한 군대를 구성했던 평범한 사람들”이 바로 팔라시오스가 칭송하였던 로토 칠레노였다.

출시되지는 못했지만 전쟁을 다룬 비더의 또 다른 비디오 게임은 “아라우카노 원주민에 맞선 투쟁에 대한 것(uno relativo a la lucha contra los araucanos, 109)”이다. 오늘날 통용되는 마푸체가 아니라 아라우카노라는 옛 단어를 써서 언급되었을 뿐만 아니라¹⁵⁾ 그들에 맞선 투쟁이라는 표현에서 그 전쟁이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상태였음이 암시된다. 즉, 정복과 식민지 시대부터 독립 이후까지 광대한 남쪽 땅을 두고 싸운 마푸체인들이 칠레의 가장 오래되고 주요한 적이자 타자였다는 말이다.

정복 초기, 격렬한 전투의 시기가 지난 후 식민지 시기 동안 스페인 군대는 마푸체인들과 비오비오 강을 국경(la Frontera)으로 삼아 긴 휴전과 간헐적인 교전을 유지하였다. 마푸체인들에게 더 큰 재앙은 칠레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면서였다. 독립국이 된 칠레는 영토를 확정짓고 또 가능하다면 확장해야 되었는데, 남부에서 프랑스인 오렐리 앙투안(Orélie-Antoine)이 1861년 스스로를 아라우카니아의 왕으로 선포하는 일이 생기자 아라우카니아 평정(la Pacificación de la Araucanía)이라는 이름으로 마푸체의 땅을 불법

15) 아라우카노(araucano)는 아라우코(Arauco)의 형용사형으로서 ‘아라우코 사람’을 뜻한다. 아라우코의 어원은 마푸체어로 ‘점토물’을 뜻하며 오늘날에는 남부 한 도시의 이름이지만 과거에는 스페인인들과 마푸체인들의 격전지로서 중요하였으므로 남부의 마푸체 영토 전체를 두루 뜻하였다. 아라우코는 스페인인들이 고안한 단어이며, ‘아라우카노’라는 형용사는 16세기 중반에 알론소 데 에르시아가 쓴 장편 서사시 『라 아라우카나 *La araucana*』에서도 볼 수 있듯이 칠레 스페인어에서 마푸체(mapuche) 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쓰이던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적으로 점령했으며, 결과적으로 마푸체인들은 많은 땅을 뺏기고 활동반경이 축소되었다.

아라우카노와의 전쟁에 대한 언급은 이후 가르멘디아 자매의 하녀였던 아말리아 말루엔다의 법정 증언과도 연결된다. 말루엔다는 매우 짧게 등장하지만 그녀는 칠레 역사의 핵심을 관통하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말루엔다는 외부인 루이스 타글레(비더)를 의심한 유일한 사람이다. 19세기 후반 유럽인, 특히 독일 이민자들을 통해 남부를 식민화한다는 것은 많은 경우 마푸체인들의 땅을 뺏아서 그 땅을 넘겨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를 잘 알고 있는 그녀에게 스페인 사람부터 시작해 칠레인, 독일인 등 모든 외지인은 우선 의심스러운 존재였고, 그들과의 접촉은 항상 마푸체인들에게는 땅의 상실과 재앙으로 끝났다. 그래서 말루엔다는 직감적으로 비더의 계획을 간파하고 도망쳤으며, ‘윙카’(huinca: 마푸체가 아닌 모든 이방인들)를 피해 원주민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 스페인어를 잊어버릴 정도였다. 마치 식민지 시대로 돌아간 듯 말루엔다의 말을 통역하기 위해 그녀를 보호하던 두 젊은 가톨릭 사제들은 법정에서 그녀의 마푸체어를 스페인어로 통역해주어야 했다. “그녀의 발언은 종종 마푸체어로 튀어나오기도 해서 그녀를 보호하며 한시도 혼자 두지 않았던 젊은 가톨릭 사제들이 통역을 해야 되었다(119).” 피노체트 통치가 끝나고 그간 저질러진 고문과 학살, 실종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자 콘셉시온의 판사는 앙헬리카 가르멘디아의 살해와 베로니카 가르멘디아와 쌍둥이 자매의 이모 에마의 실종에 대한 증인으로 말루엔다를 소환하고, 이때 그녀가 출석하여 증언한다.

말루엔다의 기억에 범죄가 일어나던 날 밤은 살인과 불의의 어느 긴 이야기에 녹아들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영웅적이고 순환적인 싯구를 통해 직조되어(hilada) 있다. 놀라서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그녀의 말이 일부는 자신의 이야기, 시민 아말리아 말루엔다의 이야기이며, 일부는 칠레의 역사임을 이해한다. 공포의 역사. 비더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 공군 중위는 동시에 여러 사람인 것처럼 보인다. 침입자, 연인, 전사, 악마이다(119).

사건이 있었던 날 밤 말루엔다는 스페인 사람들의 음악 하나를 들었다”고

했다. 판사가 “스페인 사람들의 음악(*música de españoles*, 120)”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자 그녀는 “분노뿐인 것, 판사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입니다(*la pura rabia, señor, la pura inutilidad*, 120).”라고 대답한다. 마푸체 여성들에게 친짜기는 매우 중요한 행위인데 말루엔다의 이야기는 오랜 친짜기처럼 직조되어 있다. 이 이야기에서 비더는 가르멘디아 자매의 살인자였을 뿐만 아니라 마푸체인들의 역사에서 스페인 정복자이자 칠레 군인이며, 같이 혼혈인 아이를 만든 연인이자 궁극적으로는 땅과 언어와 삶을 앗아간 악마로 등장한다. 그날 밤 있었던 일을 스페인 사람들의 음악이라고 묘사한 것은 기타 연주를 들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먼 과거 스페인인들이 자신들의 삶에 밀치고 들어온 것에 대한 분노와 한탄의 표현이기도 했다.

결론: 사건의 일단락과 남겨진 과제

나치즘을 꼭 빼닮은 폭력과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하는지의 이유는 모호하며, 이는 또한 비더의 모호함으로 표현되었다. 그는 첫 등장부터 루이스 타글레라는 가명으로 시 창작 모임에 잠입하여 혼란을 주었고, 쿠테타가 성공하자 카를로스 비더라는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 아방가르드 행위시를 하나씩 써나간다. 공군에서 나온 뒤 그의 행적은 묘연하며, 유럽으로 간 뒤로는 계속 직업과 이름, 장소를 바꾸기 때문에 손에 잡히지 않는다. 그는 쿠테타 이후 학생들의 죽음과 연루된 단체에 대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이후 가르멘디아 자매 사건에서 용의자로 출석이 요청되었으나 칠레 사법부는 그의 행적을 파악할 능력과 의지가 없었기에 칠레 정부의 사법 처리를 피해갈 수 있었다. 무죄를 선고받은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세 공군 동료는 당시 그가 칠레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며 힘과 의지를 숭배하는 그의 성정상 일어난 일이라고 그를 두둔하기까지 하니 한 사안을 두고 관점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이러한 집단적이고 광적인 폭력이 저질러졌을 경우 진실은 고사하고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조차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아일윈 정권의 진실과 화해 위원회는 9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고문과 실종 사건만 다루었기 때문에 많은 인권 유린의 사례가 누락되었다. 이후 보완적인 조사가 있었다고는 하나 나치 전범들이 남아메리카에 와서 천수

를 누리고 죽은 것처럼 이렇게 급하게 치뤄진 과거사 인식과 진실규명, 사법 처리 속에서 비더처럼 칠레 사법부의 그물망을 빠져나간 이들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유능한 전직 경찰 아벨 로메로가 등장해서야 비로소 비더의 행적에 대한 실마리가 잡힌다. 그는 최근 칠레에서 부자가 된 한 동포의 의뢰로 일에 착수하게 되는데, 이 의뢰인은 칠레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에서 기회를 포착한 이들의 존재를 의미하는 듯하다. 시인 화자 ‘나’의 도움으로 그는 포르노 영화의 촬영기사 알 피 잉글리쉬(R. P. English)와 라울 들르르메가 이끈 문학 그룹 ‘야만적인 작가들’의 쥘 드포(Jules Defoe)가 비더일 가능성을 찾아냈다. 거의 20년이 지난 뒤 ‘나’는 비더를 알아보고, 로메로는 자기가 찾아낸 이가 비더임이 확인되자 곧 능숙한 솜씨로 비더를 죽이는 것이 암시되며 소설이 끝난다.¹⁶⁾ 이 결말은 당시 사법부의 심판을 빠져나간 인사들이 암살로 보복 당하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¹⁷⁾

칠레에서 군부 통치가 일단락되고 민정으로 넘어간 지 35년이 넘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건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고, 새로운 국면으로 등장하는 사건들도 있어서¹⁸⁾ 이는 종결이라기보다는 칠레에서 한 번의 대

- 16) 비더가 죽는 장면이 직접 묘사되지도 않고 로메로에게 돈을 낸 이가 누구인지 끝까지 드러나지 않음으로써 소설의 결말은 상당히 모호한 상태로 남겨지고, 이는 여러 갈래의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Lynd는 필자와 유사하게 말루엔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결국 비더를 법정에서 세울 수 없었던 사법적 절차의 무력함을 보여주며 비더의 암살을 좌파의 사적 복수로 해석하였고(2011, 177), Heim은 비더가 사진 전시를 통해 군부 체제가 숨겨야 하는 범죄를 폭로했으므로 그가 공군에서 추방되었고, 이후 문학적 방황을 거쳐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았다(2018, 264-265). 즉, 우파가 과거를 지우기 위한 의도로 비더의 암살에 돈을 낸 것일 수도 있다.
- 17) 아옌데 시기부터 피노체트 시기까지 좌파와 우파는 암살을 하나의 효율적인 도구로 사용했다. 좌파에 의한 암살은 비더처럼 잠적해버린 사람에게 대해 손을 쓰기가 힘들고, 피노체트에 대한 기소는 꿈도 못 꾸던 시기여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컸기에 복수의 의미도 있었다. 91년 3월 3일(아일인 대통령이 레티고 보고서를 발표한 것이 91년 3월 4일이다) 국가정보센터(CNI)가 주도한 고문에 가담한 의사 카를로스 페레스 카스트로(Carlos Pérez Castro)가 부인과 함께 랑카구아 시에서 총을 맞고 사망했고, 91년 4월 1일에는 독립민주연합당(UDI)의 상원의원이자 군부 체제의 이데올로그였던 하이메 구스만(Jaime Guzmán)이 산티아고의 카톨릭 대학 캠퍼스 바깥에서 총을 맞고 죽는다. 디나에게 사린가스를 만들어주던 생화학자 에우헤니오 베리오스(Eugenio Berríos Sagredo)는 법정에서 출두를 요구받았고, 범죄사실을 덮기 위해 우루과이 군인들이 1992년 그를 납치하여 죽인다. 95년 우루과이 바다에서 그 시신이 발견되었다.
- 18) 피노체트 정권에서 아동들에 대한 불법 해외 입양이 저질러진 것을 두고 2014년에야 처음 조사가 시작되어 2만 건이 넘는 경우가 알려졌다. 2025년 6월에 5명의 피고에 대한 첫 재판이 이루어진다. 살해, 고문, 더 가시적인 인권유린 등에 비해 주목을 받지 못했던 이 사안이 뒤늦게 가시화된 듯하다.

폭발이 있는 뒤 여러 차원으로 새로운 장이 무한히 펼쳐지는 양상에 가깝다. 칠레와 코노수르, 나치와 냉전기 미국 사이에 많은 것들이 얽혀있었고, 잊힌 듯한 사건들도 뒤늦게 사법적 절차를 밟는 경우도 많아 사건을 온전히 재구성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소설의 마지막에 비더의 죽음이 암시되면서 그의 삶과 범죄의 동인은 더욱 어둠속에 묻힌다. 후안 스테인의 경우도 혁명가로서 싸우다 죽은 듯 기술되지만 푸에르토 몬트에서 그의 가족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 모호하게 남겨졌으며, 아무리 격렬했던 시대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에 연루된 인간들의 육신은 노쇠하고 사라지므로 밝혀지는 부분이 있는 만큼 영원히 잊히는 부분도 생겨나게 되어 사건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닫힌 구조로 종결되기란 불가능하다.

소설은 과거사에 대한 규명과 사법적인 단죄가 막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인 1992-93년 즈음 끝난다. 군부독재가 저지른 일의 실상과 법적인 처벌, 도덕적인 판단 등에 대해 두려움과 혼란이 뒤섞여있던 시기였다. 피노체트가 1998년 영국에서 체포되기 이전까지는 그에 대한 어떤 기소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칠레 사회에서는 피노체트라는 인물의 무게로 인해 사건을 제대로 바라보는데 있어서 여전히 공포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힘겨운 시기의 이야기를 다루며 볼라노는 텍스트 곳곳에 칠레의 역사 속에서 지속되어온 폭력과 수탈, 왜곡된 역사적, 인종적 인식을 읽어낼 수 있는 코드를 심어두었다. 이 코드를 이해하게 되면 이 이야기가 1970년 인민연합의 승리나 1973년 9월 11일이 아니라 더 오래전에 시작되었으며, 먼 과거로부터 와서 20세기 후반 여러 대내외적 맥락이 중첩되면서 파시즘적 폭력의 형태로 폭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볼라노는 칠레인들이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요소들-마푸체, 남부의 독일인, 시인-을 배치해서 막 벗어난 악몽 같은 시기 너머 더 깊은 파시즘의 기원을 탐구하도록 추동한다.

한편, 소설은 비더의 죽음에 대한 암시와 함께 피노체트 시기 자의나 타의로 칠레를 떠나야 했던 망명자들의 거취와 그들이 대면하게 될 변화한 칠레를 언급한다. 나치의 핍박을 받은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며 칠레로도 들어왔듯 쿠데타의 발발과 군부 정권의 수립으로 수많은 칠레인들은

추방이나 망명을 겪으며 흩어졌다. 이 망명자들의 존재와 삶은 칠레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과 또 다른 한 쌍을 이루며 지속되었다. 소설에는 칠레를 떠난 이들이 가득하며, 이야기는 이 망명자들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스페인 블라네스의 ‘나’, 파리에 정착한 디에고 소토와 전직 경찰 로메로,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를 떠돌던 후안 스테인, 심지어는 카를로스 비더 역시 칠레를 떠나 유럽 어딘가를 전전하다 스페인 블라네스 근처의 요레트(Lloret)로 흘러 들어왔다. 로메로는 ‘나’에게 비더를 처리하는 일을 마치면 오랜 프랑스 생활을 접고 칠레로 돌아가 장의사를 차릴 구상을 고백한다. 아옌데 집권부터 시작된 칠레 정치의 소용돌이가 민정 이양으로 일단락되었던 것처럼 비더의 죽음 역시 이 사건에 연루되었던 이들에게 하나의 장이 닫히고 다음 단계로 나아감을 의미한다. 로메로의 귀환은 망명에서 돌아온 자들이 변화한 칠레의 모습을 대면하게 될 것임을 암시하며, 그의 장례 사업 구상은 그간 칠레가 겪은 죽음, 공포, 트라우마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두고 던지는 질문이다.

참고문헌

- Alvarado, Miguel and Héctor Fernández(2011), “Una narración fundacional para una antropología filosófica chilena: *Raza chilena* de Nicolás Palacios”, *Cinta de Moebio: Revista Electrónica de Epistemología de Ciencias Sociales*, No. 40, pp. 47-63.
- Amigo Dürre, Ricardo(2023), “Blanquidades chilenas: elementos para un debate”, *Revista Tabula Rasa*, No. 45, pp. 91-115.
- Bolaño, Roberto(2009), *Literatura Nazi en América*, Kim Hyun-kyun(trans.), Seoul: Eulyumunhwasa.
- Bolaño, Roberto(1996), *Estrella distante*, Barcelona: Editorial Anagrama.
- Bolaño, Roberto(2006), *Bolaño por sí mismo: entrevistas escogidas*, Santiago: Ediciones Universidad Diego Portales.
- Bolaño, Roberto(2010), *Estrella distante*, Kwon Mi-sun(trans.), Seoul: Openbooks.
- Caro, Issac(2007), *Extremismos de derecha y movimientos neonazis: Berlin, Madrid, Santiago*, Santiago: Lom Ediciones.
- Cassigoli, Rossana(2013), “Sobre la presencia nazi en Chile”, *Acta Sociológica*, No. 61, mayo-agosto, pp. 157-177.
- Corvalán Marquez, Luis(2015), “Identidad, ideología y política en el Movimiento Nacional Socialista de Chile, 1932-1938”, *Revista Izquierdas*, No. 25, pp. 76-119.
- Guzmán, Gustavo, “A Veil of Silence: the Life and Network of Walther Rauff in Chile”, in Linda Erker and Raanan Rein(ed.) *Nazis and Nazi Sympathizers in Latin America after 1945*, Leiden: Brill, pp. 139-156.
- Heim, Alicia(2018), “La estética del mal: el arte inmoral en *Estrella distante* de Bolaño”, *Artífara*, No. 18, pp. 255-266.
- In-chul, Jung(2020), “The State Violence and the Unfinished Settlement of the Past History in Chile”, *Yeoksabipyong*, No. 131, pp. 137-165.
- Larraín, Jorge(2017), *Identidad chilena*, Santiago: Lom Ediciones.
- Lynd, Juliet(2011), “The Politics of Performance and the Performance of Narrative in Roberto Bolaño's *Estrella Distante*”, *Chasqui*, Vol. 40, No. 1, pp. 170-188.
- Palacios, Nicolás(1918), “Capítulo I. Nacimiento”, in *Raza chilena I*. (검색일: 2025년 11월 1일), <https://www.filosofia.org/aut/002/918rc01.htm>
- Ridley, Matt(2004), *Nature Via Nurture: Genes, Experience, and What makes us human*, Kim Han-young(trans.), Seoul: Kimyoungsa.
- Schaffner, Franklin J.(1978), director, *The Boys from the Brazil*.

웹자료

- Biblioteca Universidad Alberto Hurtado, “Informe Rettig: 30 años”, 2021. 3. 9.
<https://biblioteca.uahurtado.cl/2021/03/09/informe-rettig-30-anos/>
- Bolívar Manaut, Luna, “El Cono Sur ha sido muy hospitalario con los criminales nazis”,
Deutsche Welle, 2007. 11. 28.
<https://www.dw.com/es/el-cono-sur-ha-sido-muy-hospitalario-con-los-criminales-nazis/a-2976547>
- Deutsche Welle, “Chile: primer juicio por adopciones ilegales en la dictadura”, 2025.
6. 3.
<https://www.dw.com/es/chile-primer-juicio-por-adopciones-ilegales-en-la-dictadura/a-72768471>
- INDH Ciudadano, “La caravana de la muerte en la región de Antofagasta”, (검색일:
2025년 11월 1일)
<https://ciudadano.indh.cl/caravana-de-la-muerte-antofagasta/>
- Resumen, “Historia de Arauco: Patrimonio humano y natural”, 2012. 7. 22.
<https://resumen.cl/articulos/arauco-patrimonio-humano-y-natural>
-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Bruno_Schulz (검색일: 2025년 11월 1일)

Article Received: 2025. 11. 23.

Revised: 2025. 12. 19.

Accepted: 2025. 12. 19.

마오와 그람시 사이에서: 리카르도 피글리아의 『가명』에 나타난 지식인과 대중 관계의 재고

최영균*

단독 / 예일대학교

ABSTRACT

Between Mao and Gramsci: Rethinking the Intellectual–Masses Relationship in Ricardo Piglia’s *Nombre falso*; This article examines Ricardo Piglia as a writer who translated Maoist political thought into the literary field of 1970s Argentina. While studies of Latin American Maoism have centered on the armed conflict between radical leftist factions and military regimes, Maoism also inspired mass-oriented political and aesthetic projects beyond armed struggle. Focusing on Piglia’s short story, “Homenaje a Roberto Arlt,” in *Nombre falso*, this article examines how Piglia narrativizes a Maoist allegory of the intellectual–masses relationship. Building upon literary critic Bruno Bosteels’s reading, while also critically revising it, this article sheds light on the limits of Piglia’s Maoist fiction as an aesthetic representation of overcoming the intellectual–masses hierarchy by bringing in another key figure in Marxist mass discourse, Antonio Gramsci, and his conceptualization of the “organic intellectual.”

Keywords: Ricardo Piglia, Maoism, Gramsci, politics and literature, intellectual and the masses / 리카르도 피글리아, 마오주의, 그람시, 정치와 문학, 지식인과 대중

* Youngkyun Choi is a Visiting Lecturer at Yale University, United States (youngkyun.choi@yale.edu).

서론

라틴아메리카 마오주의 미학 연구의 필요성

라틴아메리카와 동아시아의 사상적 교류를 논함에 있어서 마오주의는 몇 안되는 중요한 사례로, 1970년대 라틴아메리카 정치와 예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당대 페루,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지의 젊은 혁명가 및 예술가들은 비유럽국가의 저발전된 현실에서 어떻게 사회문화적 변혁을 실천하는지를 배우기 위해 마오쩌둥의 중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마오주의가 라틴아메리카 정치 및 예술 다방면에 미친 영향의 다양성은 페루 공산당의 한 분파로서 마오주의를 표방하며 무장투쟁을 벌였던 센데로 루미노소(Sendero Luminoso)와 독재군부정권의 군사적 충돌에 가려져왔다. 즉, 무장투쟁외의 다른 해석을 허용치 않는 극좌파의 교조주의와 이를 동일한 폭력으로, 민간인의 희생도 불사하며 독재강화의 명분으로 삼는 극우파의 교조주의, 정치적 지향점은 다르지만 같은 교조주의적 뿌리를 갖고 있는 양 극단의 충돌로 환원되어 온 것이다.¹⁾

한편 북미 및 라틴아메리카의 일부 연구자들은 페루의 무장투쟁으로 환원되지 않는 라틴아메리카 전반의 마오주의 정치운동을 조명하며 다른 관점을 제시해왔다(Navarro 2010; Rothwell 2013; Urrego 2017; Rupar 2017, 2023; Celentano 2014). 이들의 연구는 군사적 힘만을 강조하는 마오주의가 아니라, 혁명적당과 대중의 관계, 그리고 “신민주주의”라 불리는 노동계급 중심의 단계적 국가 변혁의 정치적이고 실용적인 전략으로서 해석되었던 라틴아메리카의 마오주의에 주목한다. 이 정치사적 연구들은 라틴아메리카의 마오주의 역사를 폭력의 이념이 아닌 조직적 윤리와 대중 참여의 전략으로 확장시켰지만, 예술과 문학의 영역에서 마오주의가 수행한 역할 혹은

1) 북미의 라틴아메리카학 및 페루의 역사학자들 대부분이 이러한 틀 내에서 라틴아메리카 마오주의 연구를 하고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라틴아메리카 학계의 연구로는 영어로도 번역된 카를로스 이반 데그레고리(Carlos Ivan Degregori)의 『신-되기의 어려움: 페루 공산당, 센데로 루미노소, 무장투쟁과 내전: 1980-1999 Qué difícil es ser Dios: el Partido Comunista del Perú, Sendero Luminoso y el conflicto armado interno en el Perú: 1980-1999』(2011), 북미 영어권 학계의 연구로는 스티브 J. 스텐(Steve J. Stern)이 편집한 『빛나는 길과 다른 길들: 페루의 사회와 전쟁, 1980-1995 Shining and Other Paths: War and Society in Peru, 1980-1995』(1998)를 중요한 공헌으로 꼽을 수 있다.

그 재현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찾아보기 어렵다.

“문화혁명”이라는 선언이 강조하는 것처럼 문화는 마오주의의 핵심요소 중의 하나였다. 마오는 “문화”를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를 해체하고 대중의 혁명적 의식을 형성하는 주요 전선으로 규정했다. 이러한 문화적 마오주의는 사회주의의 건설이 정치경제적 변화를 따라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대중의 정치적·문화적 각성을 위한 의식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와 미학, 마오주의의 관계 및 상호영향에 대해서는 라틴아메리카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충분히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일부 미술사학자들은 “예술을 억압하는 동양적 전체주의”로 마오주의를 인식하는 자유주의적 관점으로부터의 편견과 무관하지 않음을 지적하기도 한다(Galimberti et al. 2020, 5). 실제로 중국 내 예술의 자율성이 공산당 정부로부터 제약을 받은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와 예술의 밀접한 관계를 적극적으로 사유하려는 노력으로서 마오주의 미학을 재고할 필요도 있다 하겠다.

리카르도 피글리아의 『가명』과 마오주의 미학

본 논문은 라틴아메리카에서 마오주의를 통해 예술과 정치의 변증법적 관계를 고민했던 대표적인 예술가 및 정치사상가로서 리카르도 피글리아(Ricardo Piglia)의 지적 여정에 주목한다. 피글리아는 아르헨티나의 정당활동가이자 이론가, 그리고 소설가로서 마오주의의 정치적 실천, 이론적 사유, 예술적 실험이 교차하는 지점을 보여주는 독보적인 인물이다. 라틴아메리카의 진보적 지식인들이 중국에 초청받았던 것처럼, 피글리아 또한 1973년 두 달간의 중국 체류를 마친 후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돌아와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대표적인 마오주의 정당인 공산주의 전위당(Vanguardia Comunista)에 가담했다(Rupar 2023, 172). 피글리아 자신이 작가였듯이 그의 마오주의 수용은 정치 이론에 대한 사유에만 머물지 않고, 문학적 실천으로도 이어졌으며, 그는 마오주의의 원칙이 예술과 문학 속에서 어떻게 번역될 수 있는지를 모색하였다.

이 시기 피글리아가 마오주의 사상 및 정당운동에 깊이 관여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의 작품을 다루는 학계의 논의는 대체로 그의 정치적 참여

를 주변적인 것으로 취급해왔다. 피글리아에 관한 기존 연구는 대체로 세 갈래로 수렴한다. 첫째, 그의 대표적 장편소설 『인공호흡 *Respiración artificial*』을 중심으로 독재 이후의 역사 재현과 기억, 그리고 문학의 사회적 역할을 탐구하는 포스트독재 담론(Avelar 1995; De Grandis 2004; Page 2004); 둘째, 피글리아를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Jorge Luis Borges)·로베르토 아를트(Roberto Arlt) 등과 대화 속에서 읽는 지성사적 접근 (Berg 2002; Demaría 1999; Fornet 2007); 셋째, 범죄소설·독서이론·자기반영적 서사 등 미학 이론의 문제를 중심으로 피글리아의 서사를 해석하는 메타비평적 경향(Pérsico 2004; Gancedo 2006; Carrión 2008; Rovira 2015; Cuiñas 2019).²⁾ 그러나 1970년대 피글리아의 마오주의 수용과 그 미학적 함의를 본격적으로 텍스트 내부에서 추적한 연구로는 브루노 보스틸스(Bruno Bosteels)의 『라틴아메리카의 맑스와 프로이트: 공포의 시대 속 정치, 종교, 정신분석학 *Marx and Freud in Latin America: Politics, Psychoanalysis, and Religion in Times of Terror*』 일곱 번째 장 「마오의 그림자 아래 *In the Shadow of Mao*」가 거의 유일하다(Bosteels 2012). 보스틸스는 이러한 간과와 그것이 피글리아의 지적 궤적을 이해하는 데 미치는 함의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피글리아 자신은 마오주의자로서의 과거를 결코 부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린스턴에서 피글리아와의 대화 *Conversación en Princeton*』에 수록된 그의 모든 비평 및 문학작품 목록에는 그가 문예지 『책 *Los libros*』에 실은 마오에 관한 두 편의 소론이 이상하리만치 누락되어 있다. 『책』이 그동안 구하기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에 팩시밀리 판본으로 재출간되었음에도 여전히 주목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피글리아의 작업에 대한 총괄적 분석을 지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편 『가명 *Nombre falso*』보다 『인공호흡』에 익숙할 것이 더 분명한 청년 세대 혹은 외국의 독자들은 필연적으로 『가명』이 창작된 주된 이념적 배경 중 하나를 간과하게 될 것이다. 이 장의 연구가 각자도생하여 다시는 함께하지 않을 지식인 집단의 세대적 초상을 그리고자 하는 것은, 지적 고아 상태와 망각이라는 저주받은 현실에 맞서 싸우려는

2) 한국어권에서는 소수의 연구가 『인공호흡』의 메타서사와 독재기의 역사 재현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박종울 2003; 유왕무 2014; 이승주 2015).

시도이기도 하다. (Bosteels 2012, 215-216)

보스텔스의 지적은 라틴아메리카 지성사 전반에 걸친 의도적 망각의 문제를 부각시킨다. 피글리아의 마오주의 시기가 주류 담론 속에서 간과되고 있는 것은 우연이라기보다는 마오주의와의 연루가 긍정적·생산적으로 해석되기 어려워진 이념지형이 라틴아메리카 형성된 상황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정치적 변화라는 외부적 조건을 극복하고 피글리아의 지적 여정을 총체적으로 살피기 위해서는 그의 정치와 문학을 1970년대와 그 이후의 단절로 읽기보다는 “변화 속의 지속”이라는 틀을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노력을 선구적으로 수행한 북미의 라틴아메리카 이론 및 문학 연구자, 한국에서는 『공산주의의 현실성 *The Actuality of Communism*』의 저자로 알려진 보스텔스이다. 그는 피글리아의 소설집 『가명 *Nombre falso*』에 수록된 단편 「로베르토 아를트에게 바치는 오마주 *Homenaje a Roberto Arlt*」 이하 “「오마주」”을 분석하여 마오주의 사상의 흔적을 복원한다. 「오마주」는 20세기 아르헨티나의 대표적 작가 로베르토 아를트가 1942년 세상을 떠난지 30년이 된 1972년의 시점에서, 작가를 기념하기 위한 작품 전집을 출판하는 업무를 맡게 된 편집자의 관점으로부터 전개되는 이야기이다. 이 전집의 핵심은 아를트의 미출간 원고들을 포함시키는 것인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아를트가 사망직전 1942년에 남긴 단편 「루바」이다. 화자는 국립도서관 자료를 통해 당시 아를트가 교류했던 인물들을 추려내 이들과 접촉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그렇게 얻은 미출간 원고의 내용을 그대로 작품 안에 인용하여 보여준다. 이야기 속 이야기를 보여주는 액자 구성과 미출간 원고의 행방을 좇는 탐정소설의 형식이 결합된 「오마주」는 화자가 「루바」의 원고를 갖고 있던 아를트의 친구 사울 코스티아(Saúl Kostia)를 만나게 되면서 결말에 다다른다. 화자는 비용을 지불하고 원고를 건네받기로 약속받지만, 코스티아는 자신의 이름으로 「루바」를 다른 신문지면에 출간한다. 그 후 화자는 코스티아가 왜 이러한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편지와 함께 아를트의 「루바」 자필원고를 입수하게 되고, 그간 모은 자료와 이 자필원고를 종합하여 자신의 「루바」를 완성하게 된다. 이렇게 피글리아의 단편 「오마주」는 화자의 입장에서 편집된 「루바」의 전문을 보여주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루바」는 지하혁명조직 활동가 “엔리케”가 경찰의 추적을 피해 성노동자인 “루바”가 일하는 방에 들어가게 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이다. 엔리케는 루바에게 자신은 손님을 가장했을 뿐이라는 점을 암시하며 결연한 혁명가로서 루바와 거리를 두며 그녀를 계도하려는 듯한 태도를 취한다. 이를 눈치챈 루바는 성노동자인 자신을 내려다보는 엔리케의 오만을 비꼰다. 이러한 비판적 소통을 통해서 루바와 엔리케의 거리가 차차 좁혀지며, 이야기는 루바가 엔리케의 혁명조직에 가담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루바」에는 마오, 마오주의,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지만, 보스틸스는 엔리케와 루바의 관계를 혁명적 전위로서 마오주의 지식인과 대중의 관계에 대한 알레고리, 즉 지식인으로서의 특권적 위치를 버림으로써 대중이라는 토대를 포섭하는데 헌신하는 지식인의 변화의 서사로 읽어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Bosteels 2012).

본 연구는 이러한 보스틸스의 연구를 출발점으로 삼되 다른 분석 및 결론을 제시한다. 피글리아의 작품이 지식인과 대중의 분리를 비판할 뿐 아니라, 마오주의 미학의 고민지점 혹은 모순, 즉 대중과의 융합을 지향하는 이념적 열망과 서사 속에서 재등장하는 지식인의 권위 사이의 긴장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핵심 논점은 보스틸스가 분석하는 피글리아의 「오마주」가 마오주의 미학을 모범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와 내적 균열을 드러내는 실험적 장이라는 점이다. 그의 서사는 “지식인과 예술가의 부르주아적 성격 및 엘리트주의에 대한 자기성찰”이라는 마오주의적 주제를 재현하면서도, 그것이 결코 완결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피글리아의 텍스트는 혁명적 정치와 대중적 미학을 함께 추구할 때 발생하는 모순, 즉 지식인-예술가가 자신의 권위를 해체하면서 동시에 그 권위를 재생산하게 되는 딜레마를 문학적 형식 속에서 드러낸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본 논문은 「오마주」에 대한 비판적 독해를 제시하며, 특히 보스틸스의 연구에서 불충분하게 논의된 마오주의 지식인과 그람시의 유기적 지식인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본론

페론주의와 좌파 지식인의 위기, 그에 대한 성찰로서 「오마주」

본 논문의 분석대상인 「오마주」가 수록된 단편집 『가명』의 저자 서문에서 피글리아는 모든 단편들을 아우르는 “빛”에 대해 설명한다. 그는 이 단편집의 이야기들이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자기 아파트 창밖에서 비치는 빛을 자주 관조한 데서 착안되었다고 말한다(Piglia 2002, 9). 그는 이 빛이 ‘저편’에 존재하는 세계, 곧 그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관찰하는 외부 현실을 드러낸다고 말하며, 「오마주」가 그 가운데서도 가장 뛰어난 이유는 창문의 저편을 ‘관조’하는 것이 아니라 ‘감지’하는 지점에서 쓰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단순히 지식인의 초연한 위치에서 현실을 관조하는 대신, 「오마주」는 사유하는 작가와 사유의 대상인 현실 사이에 전제된 분리를 흔들고 그 관계를 감지하려는 것이다. 이야기는 창문 밖으로 한 걸음 내딛어, 빛을 관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삶 속으로 몸을 담그면서 관찰 행위 자체를 비판적 분석의 대상으로 전환한다.

혁명적 지식인이 대중과 맺는 관계에 대한 피글리아의 관심은 1940년대 이래 아르헨티나 정치 지형을 형성해 온 페론주의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읽어야 한다. 후안 도밍고 페론(Juan Domingo Perón)은 민족주의적 대중정치 수사, 사회복지 정책, 아르헨티나노동총연맹(Confederación General del Trabajo) 같은 노동조합과의 동맹을 통해 대중의 지지를 얻었다. 1950-60년대 “자유혁명”(Revolución Libertadora)이라는 미명 하의 군사 쿠데타를 피해 망명해야 했던 상황에서도 페론의 영향력은 지하 무장조직과 노동조합을 통해 지속되었고, 이는 1970년대에 재집권하며 다시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다. 피글리아가 특히 주목한 것은 페론주의가 노동계급대중과 결합하는 능력이었다. 1965년 간행된 『문학과 사회 Literatura y sociedad』의 서문에서 그는, 페론주의 정당의 특징은 부르주아계급임에도 불구하고 민족주의적 수사와 페론의 친노동자 정책을 통해 노동대중의 진정한 대표로 자리매김 했다는 점에 있다고 주장했다(Piglia 1965). 이는 왜 노동계급이 혁명적 좌파가 아니라 페론주의를 지지하게 되는가를

문게 만든다. 피글리아는 그 원인을 대중과의 유기적 연대의 형성보다는 그들을 계도하고자 했던 좌파의 엘리트주의에서 찾았다.

좌파 엘리트주의에 대한 비판이 대중노선을 중시하는 페론주의를 지지하도록 이끌 수도 있었지만, 피글리아는 이와는 거리를 두었다. 반면 그의 관점으로부터 베아트리스 사를로(Beatriz Sarlo), 카를로스 알타미라노(Carlos Altamirano) 등 다른 동료 좌파 지식인들은 페론주의와 가까워지고 있었다. 함께 일했던 진보적 문예지 『책』 편집위원회에서 사퇴하며 피글리아는 사를로와 알타미라노가 미 제국주의를 주적으로 규정하고, 그에 맞서는 필요 불가결한 전선으로서 페론주의와의 전략적 동맹을 지지했음을 주장했다(Piglia 1975a). 피글리아는 페론주의 지도부가 구조적으로 부르주아 계급과 결속되어 있기에, 페론주의에 대한 지지가 제국주의를 약화시키기보다 오히려 강화할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오마주」는 페론주의 대중정치의 부상으로 급진좌파와 노동대중 사이의 간극이 심화되는 상황 속 진보 지식인들의 실존적 위기에 대한 성찰을 보여주는 텍스트로 읽을 수 있다.

지식인과 대중: 마오와 그람시

「오마주」가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고 대중을 향해 내려가는 지식인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극화하는 작품이라는 보스틸스의 주장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이 변화가 최종적으로 향하는 방향이 과연 지식인과 대중의 유기적 결합이 맞는지, 그렇다면 그것이 진정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인지에 대해 상충되는 해석이 가능하다. 마오주의 대중노선 미학이 요구하는 최종 목표, 즉 지식인의 태도 변화를 보여주는 것을 넘어 대중의 언어·문화·생활경험을 문학적 생산양식 그 자체에 통합하는 수준까지 나아가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재현과 구현, 곧 변혁을 ‘주제로 삼는 것’과 그것을 ‘구체적 현실로 구현하는 것’은 구분되어야 하지만, 이는 보스틸스의 논의에서 충분히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이는 마오주의 지식인과 안토니오 그람시의 “유기적 지식인”의 관계에 대해 보스틸스가 간단하게 언급할 뿐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징후적으로 드러난다. 마오와 그람시의 지식인 논의는 모두

궁극적으로는 대중과 지식인의 결합을 통한 진보적 핵심 세력의 창출을 목표로 하지만, 강조점은 다르다.³⁾

그람시는 이론을 생산하고 대중을 교육하는 개별적 활동의 성격 자체로부터 지식인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지적인 활동의 조건을 부여하는 특정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지식인이 규정됨을 주장한다. 다시 말해, 그람시의 지식인 논의는 개별 혹은 집단의 행위양식 혹은 정체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및 특정 집단을 지식인으로 기능하게 하는 구조의 문제를 파고 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으로부터 그람시는 “모든 사람은 지식인이지만, 모든 사람이 사회에서 지식인의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Gramsci 1993b, 18). 따라서 그람시에게 중요한 논점은 사회 및 대중을 향하는 개별 지식인들의 관점이나 태도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가 아니라 지적 활동이 대중의 육체적 생산노동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구조화하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를 혁명적 정당운동의 맥락과 연결지어 본다면, 그람시가 찾고자 하는 것은 유기적 지식인을 노동자-농민 대중으로부터 출현시킬 수 있는 구조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오의 입장도 그가 혁명지도부와 대중의 밀접한 관계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그람시의 입장과 그 목적에 있어서 본질적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연안 문예좌담회에서의 담화 Talks at Yenan Forum on Literature and Art」에서 그는 상대적으로 유복한, 즉 “소부르주아적” 사회경제적 조건으로부터 성장한 전통적 지식인 상을 전제하고 이들을 재교육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논지를 전개한다(Mao 1942). 지식인들이 대중과 유리된 “공허한 삶”을 살고 있다고 지적하며 마오는 그들이 의식적으로 대중의 노동과 생활에 직접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그 언어를 배워야 함을 강조한다. 보스틸스는

3) 나이절 토드(Nigel Todd)와 아리프 딜릭(Arif Dirlik)은, 특히 노동계급-농민 내부에서 혁명적 의식을 형성하는 데서 지식인의 역할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마오와 그람시의 이데올로기-문화 투쟁의 공통점을 지적한다. 토드는 「그람시와 마오의 사상에서 이데올로기적 상부구조 Ideological Superstructure in Gramsci and Mao Tse-Tung」에서, 두 사상가가 각각 ‘헤게모니’와 ‘신민주주의’ 개념을 통해 지식인과 대중의 혁명적 연합을 지향했다는 점을 강조한다(Todd 1974). 딜릭은 「마르크스주의 혁명적 의식이 처한 곤경 The Predicament of Marxist Revolutionary Consciousness」에서, 산업화가 미진한 사회에서 프롤레타리아 의식을 고양하는 문제를 두 사상가가 어떻게 다루는지 검토한다(Dirlik 1983). 그람시는 노동계급 내부에서 출현하는 유기적 지식인을, 마오는 농민의 동원을 통해 이를 다룬다. 딜릭은 마르크스주의의 보편을 구체적 역사 조건으로 번역하려는 작업이라는 공통의 틀 속에 두 사상가의 노력을 위치시킨다.

이러한 기성지식인의 재교육이라는 마오주의 대중노선의 알레고리로서 피글리아의 단편소설집 『가명』을 읽어가는데, 흥미로운 점은 그가 마오와 그람시의 지식인 상을 구분하고 전자를 후자의 대안으로 제시한다는 것이다.

보스틸스는 마오와 그람시의 구분짓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자신의 논문에서 충분히 제시하지 않는데, 대신 지식인의 위치에 관한 장 폴 사르트르(Jean-Paul Sartre)의 반성, 1968년 혁명 이후 ‘고전적 지식인’의 위치를 버리고 ‘마오주의 지식인’으로 변모하고자 했던 그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일말의 단서를 제공한다.

썩슬한 반어를 담아 사르트르는 말한다. “고전적 지식인이란 자기 안의 나쁜 양심[역주: 죄책감]의 발로로 (주로 비평이나 성명서, 저술 등의 글쓰기를 통해) 다른 영역에서 행동함으로써 좋은 양심 [역주: 도덕적 안도감]을 성취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지식인들의 유일한 대안은 자기 존재의 토대 자체를 거스르는데 있다. 이어 사르트르는 말한다. “지식인들은 지식인으로서의 자아를 폐기해야 한다. 지식인들은 불행한 의식(관념론, 무력감)의 단계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으며 나아가 지식인으로서의 존재 자체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달리 말하면, ‘대중’이라는 새로운 위치로 향하기 위해서 그들은 ‘지식인’이라는 순간을 부정해야 한다.” 이는 더 이상 유기적 지식인에 대한 단순한 예찬이 아니라, 그 자체의 장엄한 폐기를 위한 제언이다. (강조는 원문, 220)

인용구의 논의를 확장해 보면 마오주의 지식인은 혁명적 지도부와 대중 사이를 잇는 다리도 아니고, 그람시적 유기적 지식인 모델처럼 종합을 지향하는 인물도 아니다. 오히려 그들의 ‘역할’이란 것이 있다면, 부르주아계급의 유기적 지식인으로서의 특권적 문화·경제적 지위를 파괴함으로써 사라지는 것이다. 따라서 ‘마오주의 지식인’은 어떤 성립된 주체가 아니라 부르주아 지식인의 자기부정이라는 지속적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반면 그람시의 초점은 파괴가 아닌 생성에 있다. 즉, 노동계급 내부에서 출현하는 프롤레타리아 지식인의 창출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마오주의는 그람시주의와 같은 대중노선을 추구하지만, 출발점이

다르다. 마오주의 지식인은 외부적 위치성에서 시작해 자신의 계급적 기원을 해체하려고 한다. 반면 그람시적 유기적 지식인은 노동계급 내부에서 발생하며, 개인의 자기부정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조건지어진 사회경제적 노동계급의 집단적 형성 및 발전이다. 이런 이해에 비추어 보면, 보스틸스가 마오주의 지식인을 그람시의 유기적 지식인의 출현으로 향하는 과도기로 보지 않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 의문을 가지게 된다. “대안으로서의 마오주의”에 관한 보스틸스의 관점은 여러 잡지 편집에 참여한 피글리아의 사상 궤적에 대한 언급에서 드러난다.

나는 피글리아와 사를로가 잡지 『책』의 편집에 함께 참여할 수 있었던 배경에 [고전적 지식인에 대한 사르트르의 반성]에 대한 공감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그들이 쓴 편집인의 말에서도 드러난다. “이 맥락 속에서 우리는 사회주의와 과학, 문화, 지식인의 관계 및 각자의 위치성을 이해할 수 있으며, 지식인과 대중 사이의 관계에 새로운 차원과 토대를 부여할 수 있고,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분할을 극복할 조건을 창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책』은 각각 그람시와 초기 사르트르의 사상과 연계된 잡지 『과거와 현재 Pasado y presente』와 『윤곽 Contorno』대한 마오주의적 대안을 제시한다(Bosteels 2012, 220-221).

『책』의 마오주의와 『과거와 현재』, 『윤곽』의 그람시·사르트르를 대비시키고 전자를 후자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보스틸스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그람시가 아니라 마오주의적 대중노선이 최종 목표로 제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보스틸스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예를 들면 마오주의 지식인의 자기비판과, 그람시가 강조한 대중의 언어를 혁명적 예술 생산으로 ‘번역’하는 과제 사이의 공통 기반과 차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다. 피글리아의 「오마주」에서 묘사되는 마오주의 지식인이 진정으로 그람시적 유기적 지식인에 대한 ‘대안’인지, 아니면 프롤레타리아 투쟁에 뿌리내린 새로운 지식인 형성을 산출하지 못한 채 소부르주아적 자기부정의 과정 안에 머무르는지의 문제를 비켜간다.

「오마주」: 지식인-대중 위계의 전복?

마오주의가 제시하는 지식인의 자기비판과, 그람시가 말한 프롤레타리아의 목소리와 문화를 번역·실현하는 과제 사이의 긴장은 「오마주」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지식인과 대중을 표상하는 두 주인공 엔리케와 루바의 관계는, 보스틸스가 규정한 마오주의 지식인의 내적 모순을 드러낸다. 보스틸스는 엔리케의 변화를 혁명적 지식인의 엘리트적 초연함에 대한 비판으로 읽지만, 이 변화가 프롤레타리아 내부에서 출현하는 그람시적 유기적 지식인으로 나아가는지를 논의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엔리케의 재교육은 부르주아 지식인의 자기부정에 머물고 있으며, 노동계급으로부터의 유기적 지식인의 창출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엔리케의 초연함을 조롱하던 루바가 마지막 장면에서 결국 그의 지도를 순종적으로 따르는 모습은 이것이 진정한 지식인 자기부정 및 비판의 서사인지도 의심되게 한다.

보스틸스는 엔리케의 여정을 전위적 개인주의로부터 벗어나 대중의 삶을 향하는 전환으로 제시한다. 그의 해석에 따르면 루바가 엔리케에게 던지는 질문과 조롱은 그로 하여금 자신의 오만한 태도를 자각하게 하고, 특권에 대해 반성하게 한다(Bosteels 2012, 230). 그러나 이러한 독해는 작품의 결말이 가진 함의를 간과한다. 지식인과 대중 사이의 위계를 완전히 해소하기보다, 결말은 위계의 다른 형태의 재구성을 시사한다. 마지막 대화에서 루바는 더 이상 엔리케의 전환을 이끌어 내는 혁명적 대중이 아니라, 그의 승인과 보증을 구하며 머뭇거리는 인물로 변화한다. 아래의 인용구는 엔리케의 변화가 혁명적 지식인의 엘리트주의와의 단절인지, 아니면 약간의 수정이 있을 뿐 본질적 권위는 온존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남긴다.

[엔리케]는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마치 노인이 아이들에게 옛 영웅담을 들려주듯 그녀에게 말하기 시작한다. 작은 방의 붉그스름한 절반의 어둠 속에서, 루바의 순한 눈동자는 그 방이 거대해짐을 느끼고, 그 앞으로 아주 젊은 청년들의 한 무리가 지나간다.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흐릿한 유령의 형상으로 이미 삶 속에 있는 인류애적 자매-형제들의 공동체를 꿈꾸는 먼 미래의 청년들이다.“그 무리 중에는 여성들도 있어.” 그가 말했다. “아이를 돌보는 것처럼, 혁명을 따뜻함하게 감싸는 여성들이지.” [중략] 루바는 손을 들어

그의 가슴에 손바닥을 댄다. “말해줘요, 그들이 저를 받아들까요?”(Piglia 2004, 186-187)

“옛날의 영웅담을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노인” 같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엔리케는 혁명적 안내자로서 지식인의 권위를 재확인한다(186). 그는 혁명을 모성으로 돌보는 여성들을 묘사하며 전통적 성역할을 강화하고, 여성의 기여를 자율적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 돌봄과 재생산의 범주에 집어넣는다. 남성 지식인으로서 엔리케가 여성노동계급 대중에게 보이는 초연한 계몽주의적 거리두기를 비판했던 루바가 이제는 “그들이 저를 받아들까요?”라고 묻고, 그의 인정을 갈구한다(187). 성노동자로서 루바는 노동계급의 일원이자 주체적 조직가로서 그람시적 유기적 지식으로 변모하기보다는 남성 지식인의 승인에 기대는 부차적인 위치로 해석될 여지를 남긴다. 마지막 질문 “당신, 저 데리고 가는 거 창피하지 않죠?”는 그녀가 자신의 변혁 주체의 재탄생이 아니라, 엔리케의 기준에 따르는 집단에 편입될 수 있을지를 염려하고 있음을 드러낸다(187).

새로운 혁명 미학의 실현이라기보다, 「오마주」는 익숙한 도식을 재연한다. 지식인은 약간의 자기성찰을 하지만, 이 과정은 결국 지식인과 대중 사이의 위계를 해소하지 못한다. 대신 엔리케가 혁명을 인도하는 권위적 위치로 복귀하는 결말로 끝난다. 이는 마오주의 지식인의 한계를 노출한다. 대중 속으로 융합하는 인물이 아니라, 자기 성찰을 거친 뒤에도 대중의 정치적 방향을 형성하는 중심적 역할을 재확인하는 인물로 남기 때문이다. 그람시적 유기적 지식인이 노동계급 혹은 프롤레타리아의 주체적 실천을 통해 등장한다면, 「오마주」는 이 실천을 그려내지 않는다. 새로운 혁명적 주체를 낳기보다 소부르주아적 자기부정의 틀 안에 머물며 지식인의 우위를 궁극적으로 온존시킨다.

지식인-대중의 관계에 대한 전복을 보일 듯하면서도 지식인의 권위를 온존시키는 「오마주」의 양가성은 루바가 그녀의 ‘가명’을 상징적으로 폐기하는 장면에서 더 두드러진다(189). 이는 표면적으로는 성적 착취를 당하는 주변부 여성이 자신의 본질적 정체성을 찾는 혁명적 도약의 순간으로 읽힐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비록 착취당할 지라도 주체적으로 노동하며 삶을 영위하는 노동자 “루바”의 정체성을 버리고, 남성 지식인 엔리케의 지도에

따라 그의 혈연 가족이 일방적으로 부여한 본명 “베아트리스 산체스(Beatriz Sánchez)”로 되돌아가는 행위로, 즉 기존의 가부장적 구조 속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는 엔리케의 개입이 보다 평등한 관계를 낳았는가에 대한 의문을 남기며, 지식인 엘리트주의를 극복하려는 피글리아의 시도에 존재하는 갈등을 노출시킨다.

작품의 서사구조도 이러한 긴장을 강화한다. 탐정소설의 형식과 장문의 각주가 교차하는 의도적인 난삽함은, 독자를 작가가 설계한 의미의 계입 안에 위치시키는 문체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피글리아가 막심 고리키(Maxim Gorky)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보다 베르톨트 브레히트(Bertolt Brecht)의 전위적 기법을 선호했다는 사실과도 관계가 있다. 즉, 피글리아는 저자의 의도적 난삽에 대한 독자의 해석 필요성이라는 브레히트적 장치를 활용해, 서술된 현실과 독자 사이에 필요한 비판적 거리두기를 조성하고 독자로 하여금 스스로 현실을 판독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1975, 8). 탐정소설 장르의 선택도 이러한 초대의 일환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장르의 관습적 구조는, 은닉된 단서를 해독하는 지적 인물을 중심에 두면서, 독자-대중을 집단적 의미 생산의 주체라기보다 탐정의 논리를 추적하는 이성적 주체로 배치한다. 이런 장치는 지식인과 대중 사이의 분리를 유지하며, 마오주의 지식인의 과도기적 역할을 넘어선 새로운 집단적 혁명 미학의 형성을 제약한다.⁴⁾

이 긴장은 「오마주」가 혁명적 대중노선의 미학을 어느 정도까지 실현하는지를 되물게 한다. 작품은 보스틸스가 말하는 것처럼 지식인의 재교육을

4) 1970년대 한국 마오주의 미학과 비교는 다른 비유럽 사회로부터의 동시대적 예술 실천이라는 점에서 흥미로운 통찰을 제공한다. 당시 대표적 시인이자 운동가였던 김지하는 풍자시 「오적」, 미완의 답시 「장일담」, 희곡 「금관의 예수」를 통해 개발독재의 불평등 구조를 전통적 해학과 해방 기독교를 종합하여 고발하는 독보적 목적을 남겼다. 그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투옥되었을 때, 소지품 중 마오의 저작이 있었다는 점은 그에 대한 혐의의 근거로 제시되기도 했다. 동시기 좌파 지식인들 사이에서 마오의 저작이 널리 유통되었고, 김지하가 마오주의가 자신의 미학에 끼친 영향을 직접 인정한 바는 없지만, 그의 작업 상당수는 민중 문화의 강조라는 마오주의 미학의 관점과 상응하는 점이 있다. 「장일담」과 「금관의 예수」는 피글리아의 「오마주」와 마찬가지로 여성 성노동자를 중요한 인물로 배치하고, 하층민의 언어와 삶을 강조하는 민중 연행예술 판소리의 풍자와 해학을 적극 활용한다. 그는 민중문화를 통해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야기를 한국 민중의 혁명적 연대 서사로 재구성한다. 이는 김지하와 피글리아가 마오주의 미학에 헌신했다는 공통점을 가지면서도 접근이 크게 달랐음을 보여주는데, 김지하가 민중의 언어와 생활 경험을 혁명적 내러티브로 ‘번역’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었다면, 피글리아가 지식인과 대중의 관계에 관한 마오주의적 이해를 ‘제시’하는 데 집중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수행하는데 복무하지만, 프롤레타리아 내부에서 유기적 지식인이 출현하는 국면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다시 말해, 「오마주」의 혁명서사는 대중을 혁명 조직으로 ‘모집’하는 데 머무를 뿐, 프롤레타리아가 유기적 지식인을 길러내기 위한 자율적인 집단적 실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보스틸스의 독해는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는다.

결론: 민중‘의’ 문학과 민중에 ‘관한’ 문학

페론주의에 빼앗긴 민중을 되찾으려는 방안으로서 피글리아는 지구 반대편의 중국으로부터 마오주의라는 처방을 가져왔다. 진보적 정치투쟁의 근거가 되는 민중을 잃은 좌파 지식인의 실존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사상으로 마오주의는 피글리아에게 민중을 ‘위하는’ 혹은 민중에 ‘관한’ 신실한 관심을 갖는 혁명적 지식인으로서 자신과 동지들을 재교육해야 한다는 가르침이었다. 그의 단편소설 「오마주」는 ‘마오를 언급하지 않으면서 그의 사상을 전하는’ 미학적 실천으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이 비판적으로 주목한 부분은 피글리아에게서 문화·정치 혁명의 ‘전위로서 예술가 및 지식인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민중으로부터 유기적 지식인이 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의 형성에 관한 고민보다 더 강조된다는 점이다.

피글리아의 마오주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본 논문의 비판적 관점은 피글리아 자신이 1970년대에 작성한 두 편의 마오주의 정치·미학에 관한 소론과는 배치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왜냐하면 이 소론들에서 피글리아는 마오와 그람시의 사상을 대립시키기보다는 종합하면서 지식인 전위의 재교육이 아닌 대중의 언어 및 문화의 고양, 그리고 이를 가능케 하는 관계 및 구조의 형성에 더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⁵⁾

5) 예를 들어 「마오 쩌둥: 미학적 실천과 계급투쟁 Mao Tsu-tung: Práctica estética y luchas de clases」에서 피글리아는 문화혁명의 목표가 “대중과의 ‘공동 언어’를 수립”하여 중국적으로는 “대중과 합일”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Piglia 1974a, 127). 그람시 또한 “대중과의 연관성을 잃지 않고 또 바로 그 속에서 실로 자신이 탐구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의 원천을 발견”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함을 주장한 바 있다(Gramsci 1993a, 170). 무엇보다 그람시가 개별적 지성의 뛰어난보다 비판적 집단지성의 유기적 형성을 가능케 하는 사회적 관계를 건설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 점 또한 피글리아의 마오주의 미학 해석에서 “사회적 연결고리”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연결된다(Piglia 1974a, 120). 다른 한편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이데올로기 투쟁 La lucha ideológica en la construcción socialista」이라는 소논문에서는 혁명적 지도와 자생성의 관계에 대해서 논의하는데, 여기서도 피글리아는 마오와

하지만 이처럼 피글리아의 소론에 드러난 마오주의에 대한 논리적 이해가 실제로 그의 문학을 통해 미학적으로 번역됨에 있어서 간극이 생겼고, 이를 보여주는 것이 「오마주」이다. 보스틸스의 독해는 아르헨티나 문학·지성사에서 마오주의의 영향이라는 간과된 측면을 조명하는데 선구적 역할을 하였지만, 마오주의에 대한 아르헨티나로부터의 번역작업 내부의 간극을 충분히 조명하지는 않았다. 본 논문이 주로 분석한 것은 이 간극이 「오마주」를 통해 나타난 양상으로, 노동자 대중을 대변하는 “루바”가 “엔리케”라는 지식인과 유기적인 혁명적 블록을 형성하기 보다는 전자가 후자에게 종국적으로 포섭되는 양상으로 읽힐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포섭이 보스틸스가 강조한 마오주의 지식인의 재교육이라는 구도에는 들어맞을 수 있지만 마르크스주의 대중노선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이자 아르헨티나 대다수의 진보 지식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그람시의 “유기적 지식인” 개념과는 거리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거리 및 간극은 1970년대라는 특정 시점의 피글리아와 그의 마오주의 수용을 분석함에 있어서 당대 아르헨티나의 복합적인 이념 지형, 즉 마오와 그람시의 사상이 페론주의와 아나키즘 및 다른 진보적 미학·정치 이론과 경쟁하는 각축장으로서의 아르헨티나 지성사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피글리아의 「오마주」가 대중 혹은 민중과의 관계에 ‘관한’ 지식인의 관점으로부터 실현된 미학이라면, 다음의 한 마디는 시기와 지역, 문화적 맥락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흥미할 가치가 있다. “선주민주의자[역주: 선주민을 위한 비선주민 메스티소 지식인들의 진보적 경향] 문학은 진정한 선주민의 문학이 될 수 없다. [...] 선주민의 문학은 선주민들이 그것을 창조

그람시의 사상을 대립시키기보다는 상호연결된 것으로 보는 입장을 보인다. 그는 혁명이 물질적 영역과 이데올로기적 영역 모두에서 일어나야 함을 강조하며, 경제적 투쟁과 문화적 투쟁이 불가분하다고 역설한다. 그는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확립되면 부르주아 문화가 자동으로 소멸할 것이라는 ‘자생주의’의 기계적 현실인식을 비판한다. 이러한 관점은 사실 그람시의 입장과도 직결되는 것인데, 그는 어떠한 개입도 없는 순수한 대중의 자생성을 전제하거나 추구하는 경향과 거리를 두며,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가장 자생적인 운동이라는 것도 실상은 단지 ‘의식적 지도’의 요소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의식적 지도의 요소가 믿을 만한 증거를 남기지 않는 경우를 일컬을 뿐이다”(Gramsci 1993a, 224). 결국 그람시가 강조하는 것은 모든 대중이 자생적으로 혁명에 헌신하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식인과 대중이 결합된 혁명적 블록을 형성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가는 의도적 노력이다. 이는 “사회적 실천에 있어서 대중의 주도적 행동과와 혁명적 동원, 이 모든 것을 자생적 과정과 혼동할 수는 없다”는 피글리아의 주장과도 연결되는데, 이러한 주장이 마오주의 문화혁명에 관한 해석이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그람시와 마오가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Piglia 1974b, 9)

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도래할 것이다” (Mariátegui 2007, 283). 라틴아메리카 마르크스주의의 선구자이자 혁신가였던 호세 카를로스 마리아테기(José Carlos Mariátegui)의 이 주장은 민중 문학의 의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피글리아가 지향했던 바는 민중‘의’ 문학일지 모르나, 그가 처한 사회적인 관계 및 조건은 아직 그 실현과는 거리가 멀었기에, 그가 창조할 수 있었던 것은 여전히 민중에 ‘관한’ 문학이었다.

참고문헌

- Avelar, Idelber (1995), "Cómo respiran los ausentes: la narrativa de Ricardo Piglia," *MLN*, 110(2), pp. 416-432.
- Berg, Edgardo (2002), *Poéticas en suspenso: migraciones narrativas en Ricardo Piglia*, Andrés Rivera y Juan José Saer, Buenos Aires: Editorial Biblos.
- Bosteels, Bruno (2012), "In the Shadow of Mao," in *Marx and Freud in Latin America: Politics, Psychoanalysis, and Religion in Times of Terror*, London: Verso, pp. 195-230.
- Carrión, Jorge (2008), *El lugar de Piglia: crítica sin ficción*, Barcelona: Editorial Candaya.
- Celentano, Adrián (2014), "El maoísmo argentino entre 1963 y 1976: Libros, revistas y periódicos para una práctica política," *Políticas de la memoria*, 14, pp. 151-165.
- De Grandis, Rita (2004), "Respiración artificial veinte años después," in Adriana Rodríguez Pérsico and Jorge Fornet (eds.), *Ricardo Piglia: una poética sin límites*, Pittsburgh: Instituto Internacional de Literatura Iberoamericana (Serie 'Antonio Cornejo Polar'), pp. 275-292.
- Degregori, Carlos Iván (2011), *Qué difícil es ser Dios: el Partido Comunista del Perú, Sendero Luminoso y el conflicto armado interno en el Perú: 1980-1999*, Lima: Instituto de Estudios Peruanos.
- Demaría, Laura Beatriz (1999), *Argentina-S: Ricardo Piglia dialoga con la generación del 37 en la discontinuidad*, Buenos Aires: Corregidor.
- Dirlik, Arif (1983), "The Predicament of Marxist Revolutionary Consciousness: Mao Zedong, Antonio Gramsci, and the Reformulation of Marxist Revolutionary Theory," *Modern China*, 9(2), pp. 182-211.
doi:10.1177/009770048300900202
- Fornet, Jorge (2007), *El escritor y la tradición: Ricardo Piglia y la literatura argentina*, Buenos Aires: Fondo de Cultura Económica.
- Gancedo, Daniel Mesa (2006), *Ricardo Piglia: la escritura y el arte nuevo de la sospecha*, Sevilla: Universidad de Sevilla, Secretariado de Publicaciones.
- Galimberti, Jacopo et al. (eds.) (2020), *Art, Global Maoism and the Chinese Cultural Revolution*,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Gallego Cuiñas, Ana (2019), *Otros: Ricardo Piglia y la literatura mundial*, Madrid: Iberoamericana.
- Gramsci, Antonio (1993a), *Kuramsi ūi Okchung Sugo 1: Chŏngch'i-p'yŏn* (Gramsci's

- Prison Notebooks 1: On Politics), trans. Lee, Sang-hoon, Seoul: Georeum.
- (1993b), *Kuramsi ūi Okchung Sugo 2: Ch'ŏrhak · Yŏksa · Munhwa-p'yŏn* (Gramsci's Prison Notebooks 1: On Philosophy, History, and Culture), trans. Lee, Sang-hoon, Seoul: Georeum.
- Lagmanovich, David (2001), "Evolución de la narrativa policial rioplatense," *Revista de Crítica Literaria Latinoamericana*, 54, pp. 35-58.
- Lee, Seung-joo (2015), *Hacia una nueva ficción fundacional: estrategias narrativas en Respiración artificial (1980) de Ricardo Piglia* (Toward a New Foundational Fiction: Narrative Strategies in Ricardo Piglia's Artificial Respiration [1980]),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 Mao Tse-tung, "Talks at Yen-an Forum on Literature and Art," Marxists Internet Archive,
http://www.marxists.org/reference/archive/mao/selected-works/volume-3/mswv3_08.htm
- Navarro, Paul (2010), "A Maoist Counterpoint: Peruvian Maoism Beyond Sendero Luminoso," *Latin American Perspectives*, 37(1), pp. 153-171.
doi:10.1177/0094582X09351716
- Page, Joanna (2004), "Ricardo Piglia: Towards a Re-Socialized Literature," *Journal of Iberian & Latin American Studies*, 10(2), pp. 169-189.
- Park, Chong-yul (2003), "Respiración artificial: La representación del presente a través de la historia (Representing the Present through History in Artificial Respiration)," *Seupeineoe Munhak* (Journal of Spanish Language and Literature), 26, pp. 401-418.
- Piglia, Ricardo (1965), "Sumario," *Literatura y sociedad*, 1, pp. 11-12.
- (1972 [1974a]), "Mao Tse-tung: práctica estética y lucha de clases," *Literatura y sociedad*, Buenos Aires: Editorial Tiempo Contemporáneo, pp. 119-137.
- (1974b), "La lucha ideológica en la construcción socialista," *Los Libros*, May-July, pp. 4-9.
- (1975a), "A mis compañeras Beatriz Sarlo y Carlos Altamirano," *Los Libros*, April-May, p. 3.
- (1975b), "Notas sobre Brecht," *Los Libros*, May-April, pp. 4-9.
- (2002), *Nombre falso*, Barcelona: Anagrama.
- Rothwell, Matthew D. (2013), *Transpacific Revolutionaries: The Chinese Revolution in Latin America*, New York: Routledge.
- Rovira Vázquez, Gabriel (2015), *Lo que Ricardo Piglia oculta: una poética de la ficción narrativa*, México DF: Editorial Praxis-Universidad Autónoma de Baja

California Sur.

- Rupar, Brenda (2017a), "El partido Vanguardia Comunista: elementos para avanzar en una caracterización del maoísmo argentino (1965-1971)," *Izquierdas*, 36, pp. 105-125.
- (2023), *Los 'Chinos': la conformación del maoísmo en Argentina (1965-1974)*, Buenos Aires: Imago Mundi.
- Stern, Steve J. (ed.) (1998), *Shining and Other Paths: War and Society in Peru, 1980-1995*, Durham &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 Todd, Nigel (1974), "Ideological Superstructure in Gramsci and Mao Tse-Tung," *Journal of the History of Ideas*, 35(1), p. 148. doi:10.2307/2708751
- Urrego, Miguel Ángel (2017), "Historia del maoísmo en América Latina: entre la lucha armada y servir al pueblo," *Anuario Colombiano de Historia Social y de la Cultura*, 44(2), p. 111. doi:10.15446/achsc.v44n2.64017
- Yoo, Wang-moo (2014), "The Literary World of the Argentine Resistant Novelist Ricardo Piglia," *Jungnammi Yeongu* (Latin American Studies), 33(1), pp. 87-113.

Article Received: 2025. 11. 11.

Revised: 2025. 12. 16.

Accepted: 2025. 12. 18.

『라틴아메리카연구』(AJLAS) 편집규정

제1장 총 칙

- 제1조 (명칭) 본 규정은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이하 본 학회라 칭함) 학술지 편집규정(이하 본 규정이라고 칭함) 이라고 한다.
- 제2조 (목적) 본 규정의 목적은 본 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의 질적 향상과 공정한 심사를 도모하여 학술 발전에 기여하고 본 학회 회원들의 권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기능) 본 규정은 본 학회가 발행하는 국영문혼용학술지 『라틴아메리카연구』(*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의 발행과 관련된 제반 규칙을 정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

- 제4조 (설치) 본 학회의 학술지의 발행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편집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라 칭함)를 둔다.
- 제5조 (구성) 본 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과 편집이사를 포함한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 제6조 (임무) 본 위원회는 본 학회의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의 모집, 심사, 발행 횟수 및 시기 등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 제7조 (위원의 선정)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은 학문분야별 다양성과 지역적 형평성 그리고 국제적인 지명도를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 자격요건에 따라 이 사회의 승인을 얻어 학회장이 임명한다.
- 제8조 (위원의 임기)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9조 (개최)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 삼분의 일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된다. 사이버 편집위원회도 이에 준한다.

제3장 투 고

- 제10조 (투고자의 자격) 본 학회의 학술지에 투고하는 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본 학회의 회원
 - (2) 본 학회의 회원과 공동의 저자
 - (3) 기타 본 편집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 제11조 (요령) 본 학회의 학회지에 게재되고자 투고하는 논문은 투고요령을 따라야 하며 이는 별도로 정한다.

제4장 심 사

- 제12조 (심사보고서) 본 학회의 학회지에 게재되고자 하는 논문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심사결과는 별도로 정한 심사보고서를 이용한다.

제13조 (심사위원의 선정) 본 편집위원회는 본 회의 회원 중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의 시간강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 해당분야의 학술적 업적이 탁월한 자를 고정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또한 투고논문 주제에 따라 해당 전문분야의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4조 (심사위원의 임무) 심사위원은 심사를 위촉받은 논문에 대하여 본 편집위원회가 정한 양식에 따라 성실히 심사하고, 심사과정에 획득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5조 (심사위원의 수) 한편의 논문에 심사위원의 수는 3명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 (익명성) 심사위원의 선정, 심사, 심사결과와 통보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익명으로 한다.

(1)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편집 위원들에게 논문의 저자는 익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심사위원에게 논문의 작성자의 성명, 소속, 직위 등을 밝히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심사위원의 성명과 소속을 논문의 작성자에게 알리지 않는다.

제17조 (심사결과와 처리) 심사결과에 대하여 편집위원회는 별표 1에 정하는 바와 같이 결과를 처리한다.

제18조 (심사비의 납부) 논문의 투고자는 본 학회가 정하는 소정의 심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장 발 행

제19조 (발행시기) 본 학회지는 2020년부터 연 3회 간행한다. 발간일은 2020년에는 2, 6, 10월의 말일에, 2021년부터는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로 한다.

제20조 (게재료) 게재가 확정되면 투고자는 본 학회가 정하는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장 기 타

제21조 (저작권) 투고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으며, 『라틴아메리카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본 학회에 귀속된다.

제7장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5월 23일 개정, 발효되었다.

제2조 (개정) 이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발의 또는 이사회의 발의에 의하여 개정된다.

제3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4월 20일 개정, 발효되었다.

별표 1: 심사결과의 처리기준표

A(90-100): 게재 (편집상의 수정, 보완 포함)

B(80-89) : 수정 후 게재

C(0-79) : 전면수정 후 다음 호 재심

D : 게재불가

심사평			심사결과 처리기준
제1심사자	제2심사자	제3심사자	
A	A	A	(1) 편집상의 수정, 보완 후 게재
A	A	B	(2) 수정 후 게재 편집위원회에서 수정보고서 확인 후 게재
A	A	C	
A	B	C	(3) 수정 후 게재 편집위원회에서 수정보고서 확인 후 게재
B	B	A	
B	B	B	
B	B	C	(4) 편집위원회에서 수정보고서 심의 후 게재 혹은 추가수정 요구 or 다음호 재심 or 제4심사자 심사의뢰 ※ 제4심사자 심사의뢰 시 판정이 A나 B이면 수정보고서 심사 후 게재 혹은 추가수정 요구
A	C	C	(5) 다음호 재심
B	C	C	
C	C	C	

※ 다음호 재심 판정을 두 번 받은 논문은 게재불가(D)로 처리하여 추후 투고를 받지 않는다.

※ 다음호에 재 투고된 논문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자 수를 1인-3인으로 정한다. 통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1인 심사의 경우: A or B

2인 심사의 경우: AA or AB or BB (AC or BC의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3인 심사의 경우: 위 표에 따라 심사 프로세스를 다시 진행한다.

※ 3인의 심사자 중 한 사람이라도 게재불가(D) 판정을 내렸을 경우에는 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사안에 따라 (4)나 (5)에 준해 처리하거나 최종 게재불가(D) 판정을 내린다.

최종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추후 투고를 받지 않는다.

※ (4)의 심사결과에서 당해 호 논문 수록을 위한 제4심사자 심사의뢰는 학술지 발간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라틴아메리카연구』(AJLAS) 연구윤리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라틴아메리카연구』와 관련하여 모든 연구자가 지켜야 할 연구윤리로,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해 정의하고 그 해당 유형을 제시함으로써 투고자들이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의무를 명시하여 투고자들의 책임과 의무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라틴아메리카연구』에 투고, 게재되는 논문과 정기학술대회를 포함한 학회 주관의 모든 학술행사와 출판물에 제출되는 원고들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연구윤리 개요)

- (1) 연구자는 각자 연구윤리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 (2) 연구윤리의 범위는 연구활동, 연구비 집행, 연구결과 출판 등을 포괄한다.

제4조 (연구윤리 위반행위) 본 학술지에서 규정하는 연구윤리 위반행위는 다음과 같다.

- (1) 학문적 독창성 침해: 타인의 연구업적(아이디어, 연구내용, 연구결과)을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표절 혹은 침삭하여 위조 및 변조하는 경우
- (2) 학문적 객관성 침해: 연구에 직·간접적으로 인용 혹은 사용되는 각종 문헌의 출처 및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가공, 변조함으로써 학문적 객관성을 침해하는 경우
- (3) 부당한 저자 표시: 연구자 소속과 직위의 허위 기재,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연구자에 대한 저자 자격 부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연구자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행위
- (4) 중복투고 및 자기표절: 동일 연구자가 타 학술지 혹은 단행본 등의 연구물 혹은 논문의 일부를 본 연구소의 학술지에 중복투고하는 행위
- (5) 기타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을 시, 본 연구소의 편집위원회에서 해당 제보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5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표절 행위가 드러날 경우 『라틴아메리카연구』 편집위원회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투고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1) 편집위원회가 연구윤리위원회 기능을 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편집위원이 연구윤리 위반행위 의혹 당사자인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배제한다.
- (3) 편집위원회는 사안의 경중이나 전문성 제고 필요성을 감안하여 학회 임

원이나 외부 전문가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추가 위촉할 수 있다.

제6조 (연구윤리 위반행위의 제보)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제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

- (1) 누구든지 구두, 서면, 전화, 우편 및 전자우편, 연구소 홈페이지 제보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라틴아메리카연구』 편집위원회에 위반행위 제보를 할 수 있으며,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 (2) 제보 접수는 실명 제보인 경우에 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가 제출될 경우에는 그 제보를 접수한다.

제7조 (연구윤리 위반행위 심의 및 소명)

- (1) 연구윤리 위반 의혹이 제기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2주일 안에 위원회를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연구윤리위원회는 제기된 위반행위의 내용에 대해 심의하고 객관적 증거확보에 주력한다.
- (3) 제보자가 있을 경우 위원회는 신원을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제보자가 부당한 압력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4) 연구위반 행위 의혹 당사자에게 서면을 통해서 또는 연구윤리위원회 출석을 통해서 1차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 (5) 위원회는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끝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6) 제보, 조사, 심의, 의결 등 조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 참여자 모두는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비밀에 부쳐야 한다.
- (7) 위원회는 본조사 결과를 피조사자에게 알리고, 판정을 내리기 전에 피조사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최종 부여한다.
- (8)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과를 확정된 후, 이를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 (9) 연구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결과는 학회 상임이사회에 보고되어야 하며, 해당 사안에 대한 연구윤리위원회의 모든 활동 및 증거, 소명자료, 참석자 현황은 기록으로 남긴다.

제8조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연구위반 행위가 드러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투고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연구위반 당사자의 소속기관에 위반 사실을 통보한다.
- (2) 학술지 투고논문과 관련된 연구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논문투고를 향후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간 제한한다.

- (3) 논문게재 이후에 연구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홈페이지와 회원 공지를 통해 이 사실을 알리고 『라틴아메리카연구』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해당 논문을 삭제한다.
- (4)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관리 지침에 따라 재단에 조사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부 칙

- (1) 『라틴아메리카연구』의 연구윤리 규정은 2008년 10월 1일 최초 제정, 발효되었다.
- (2) 현 연구윤리 규정은 2020년 10월 10일 개정되었다.
- (3) 본 개정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논의 후 결정한다.

『라틴아메리카연구』(ALAS) 투고요령

1.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에서 발간하는 『라틴아메리카연구』는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관한 지역 연구의 성과를 공유하는 전문학술지이며 2011년부터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입니다.
2. 본 학회는 회원과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진 전문 연구자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보내 주실 원고는 언어에 상관없이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순수 학술논문이어야 합니다.
3. 게재 신청을 하실 논문의 연구 분야나 제목은 제한이 없으나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4. 논문을 보내실 때는 원고작성 요령을 참조하시어 반드시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해서서 e-mail(lasak@naver.com)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에는 소정 양식의 논문투고신청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라틴아메리카연구』는 연 3회 발간(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되며 원고마감일자 없이 수시로 논문을 접수합니다. 논문게재는 원칙적으로 투고일자 순서로 되며, 늦게 투고되는 논문은 학술지 발간계획에 따라 다음호로 게재를 미룰 수 있습니다.
6. 논문게재가 확정되었을 경우 학회는 소정의 게재료를 징수합니다.
7. 학회지 기고에 관한 제반 문의사항은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원고송달의 경우 궤봉투에 반드시 학회지 원고게재 신청이라고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고 접수 이메일: lasak@naver.com

『라틴아메리카연구』(AJLAS) 원고작성요령

『라틴아메리카연구』에는 라틴아메리카와 관련된 모든 주제의 논문을 투고할 수 있습니다. 단, 이미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을 통해 출판된 논문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논문작성언어는 한국어, 스페인어, 영어, 포르투갈어 모두 가능합니다. 논문 길이는 10,000 단어 이내와 원고지 기준 150매 이내로 제한합니다. 기준 분량 초과시 편집위원회는 분량 축소를 요구하거나 게재를 다음호로 미룰 수 있습니다. 논문 작성은 아래한글 혹은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를 사용해주시시오. 그림, 표, 지도, 그래프 등은 투고자의 의도를 존중하되 출판시의 제 문제를 고려하여 조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라틴아메리카연구』는 또한 최근의 학술적 동향을 신속하게 소개하기 위하여 노트(Note)와 리뷰 에세이(Review Essay) 섹션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 두 섹션에 투고된 글은 심사를 거치지 않고 게재됩니다. 분량은 원고지 기준 40매 이상으로 최근 주요 이슈, 연구동향, 주목할 만한 연구서를 소개하시면 됩니다. 단, 주제나 게재 가능 여부는 편집위원회와 사전에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고작성 요령>

투고원고는 이전 학술지를 참고하여 제목, 성명 및 소속, Abstract, Keywords, 본문, (부록), 참고문헌의 순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은 투고논문은 반려합니다.

1. 제목

학술경비를 지원받은 논문의 경우 제목 맨 뒤에 *표를 하시고 각주에 경비지원 내용과 과제번호를 밝힌다.

예) 이 논문은 2001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1-002-A00255).

2. 성명 및 소속

성명 및 소속은 한국어로 작성한 논문은 한국어로, 외국어로 작성한 논문은 외국어로 표기한다. 소속 앞에는 단독 혹은 공동저작 사항을 표시한다. 맨 뒤에 *표를 하고(학술비 지원논문의 경우 **) 각주에 저자의 영문 소개를 덧붙인다. 외국어 이름을 표기할 때 이름을 먼저 쓰고 성을 나중에 쓰며, 이름 사이에는 하이픈("-")을 사용하고, 첫 글자는 대문자로 쓴다. 투고자의 e-mail 주소는 각주 저자소개 뒤에 쓴다. 공동저작의 경우 주 저자를 앞에 기타 저자를 주 저자 뒤에 쓴다.

예) 홍길동

단독/서울대학교*

* Kil-Dong Hong is a HK research professor of Institute of Iberoamerican Studi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kdh@snu.ac.kr).

3. Abstract

초록은 200단어로 영어로 작성한다.

4. 키워드

키워드는 5개 내외로 영어와 국문으로 작성한다.

예) Keywords: Political chaos, Ladino, Mayan aborigines, Obvention and contribution, Speaking cross / 정치적 혼돈, 라디노, 마야원주민, 종교적 세금과 부역, 말하는 십자가

5. 본문 주석: 약주 사용

- 1) 저자의 이름이 본문에 언급될 경우 괄호 안에 연도만 표시. 저자의 이름이 한 글일 경우 저자의 성을 영문으로 함께 표기.
예) 홍길동은(Hong 1999) 세계화의 당위성을 강력히 지지한다.
Drake(1966)는 이 조약이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말한 바 있다.
- 2) 저자의 이름을 본문에 언급하지 않고 인용한 경우는 성과 연도 표시
예) 세계화의 폐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Fuentes 1979).
- 3) 인용 페이지를 밝힐 경우에는 ‘;’ 뒤에 페이지 표시
예) 리오 회의에서도 세계화의 폐해를 지적한 바 있다(Hong 1983, 22-25).
- 4) 인용 책 혹은 논문의 저자가 둘일 경우에는 가운데 ‘and’로 구분.
예) 리오 회의에서도 세계화의 폐해를 지적한 바 있다(Lagos and Fuentes 1983, 22).
- 5) 저자가 세 명 이상일 때는 ‘et al.’을 사용.
예) (Alessandri et al. 1971, 217-221)
- 6) 인용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로 구분
예) (Lacan 1974, 45; Derrida 1977, 22-23)
- 7) 참고문헌에 동일인이 같은 해에 쓴 저작이 다수 포함되어 인용을 할 때 연도 표기만으로 구별이 되지 않을 경우 알파벳 소문자 사용.
예) (Lacan 1974a, 45; Lacan 1974b, 22-23)
- 8) 재인용 방법
예) Lacan의 말을 Derrida 책에서 재인용할 경우: (Derrida 1974, 45, 재인용)

6. 표와 그림

- 1) 각각 표 1., 표 2., 그림 1., 그림 2.로 표기하며 표 1.은 내용의 위에 그림 1.은 내용의 아래에 위치시킨다.
- 2) 표와 그림이 여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각 부분을 a, b 등으로 표기한다.

7. 참고문헌

- 1) 참고문헌은 지면의 제약을 고려하여 가급적 본문에 인용된 것만 적는다.
- 2) 저자는 알파벳 순서에 따라 정리한다.
- 3) 동일 저자의 출판물은 오래된 것부터 연대순으로 배열한다. 같은 연도에 여러 편의 저술이 있을 경우 1999a, 1999b, 1999c 등으로 분류한다. 이때도 먼저 나온 것을 1999a로 삼는다. 동일저자의 출판물 중 단일저작과 공동저작이 있을 경우 전자를 후자에 앞서 배열한다.
- 4) 한국어 참고문헌과 논문 및 인터넷 자료도 영어로 표기하여 외국어 자료와 함께 정리한다.

예) Hong, Kil-Dong(2010), "Value of National Holidays in Mexico," *Latin American Affairs*, Vol. 1, No. 2, pp. 1-33.

영문 참고문헌 정보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한국어의 발음을 알파벳으로 표기하고 괄호 속에 영문 번역을 병기한다.

예) Hong, Kil-Dong(2010), "Mexico Kukkeongilui Gachi(Value of National Holidays in Mexico)," *Jungnammi Yeongu(Latin American Affairs)*, Vol. 1, No. 2, pp. 1-33.
- 5) 단행본 - 저자(연도), 제목, 출판 장소: 출판사 명

예) Von Mises, L.(1983), *Nation-State and Economy: Contributions to the Politics and History of Our Time*, Leland B. Yeager(trans.),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Strunck, W. Jr., and E. B. White(1979), *The Elements of Time*, 3rd ed., New York: Macmillan.
- 6) 저널 논문 - 저자(연도), 제목, 저널 이름, 권(Vol.), 호(No.), 페이지

예) Lipset, S. Ni(1983), "Radicalism or Reformism: The Sources of Argentine Working-Class Politics,"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Vol. 77, No. 2, pp. 1-18.

* ‘권’과 ‘호’ 표기법에 유의: 첫 글자는 대문자, 철자에 유의, 로마자 사용하지 않고 아라비아 숫자로.

** 계절, 달, 날짜 등을 명기할 필요가 있을 때는 No.와 페이지 사이에 쓴다.

예) Lipset, S. Ni(1983), "Radicalism or Reformism: The Sources of Argentine Working-Class Politics,"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Vol. 77, No. 2, March, pp. 1-18.
- 7) 단행본에 삽입된 논문 - 저자(연도), 제목, 편자, 제목, 출판 장소: 출판사, 페이지

예) Weber, M.(1984), "Legitimacy, Politics, and the State," in William Connolly(ed.), *Legitimacy and the State*,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pp. 32-62.

- 8) 인터넷 사이트를 참고문헌으로 올릴 경우에는 인터넷 주소를 가장 뒤에 쓰고 마침표는 찍지 않는다. 인터넷 논문이라도 발간 연도를 아는 경우에는 저자 뒤에 연도를 밝힌다.

예) Ortega, Daniel(2001), “La histoirra inconclusa,” <http://www.danielortega.cl>

*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은 주석을 염두에 둘 것.

8. 외국어 표기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미 우리말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은 그에 준할 수 있다.

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Submissions and Review Process

Contributions to AJLAS are invited from all parts of the world. Articles may be written in English, Spanish, Portuguese, or Korean and they will be published in the original language. Each contributor will receive, free of charge, ten off-prints of the article and a copy of the issue of the Journal in which it appears. Manuscripts must be original research; AJLAS will not consider papers currently under review at other journals or that duplicate or overlap with parts of a book or larger works that have been submitted or published elsewhere. If there is doubt about whether the manuscript is acceptable, authors should discuss this issue in a cover letter to the managing editor. Review essays are also considered. Submissions are accepted on a rolling basis. Publication dates are April 30, August 31, and December 31.

Instructions for Contributors

1. All contributions and editorial correspondence should be submitted to the journal:

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Homepage: <http://www.ajlas.org>

Attn: Dr. Gyoung-Mo, Gu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Republic of Korea
Email: lasak@naver.com

2. Formatting of Manuscripts:

- Length: Manuscripts should not be longer than 10,000 words, including text, tables, figures, title page, and references.
- Style and Layout: Font size should be 'Garamond' throughout the work: text 10.5 point, footnotes 8.5 point.

- The entire paper should be double-spaced; please do not submit double-sided copies. All pages should be numbered sequentially.
 - Manuscripts should be ordered as follows: title page, text, abstract, keywords, appendices, references, tables, figure captions, figure pages.
 - Titles, subtitles, and text subheadings should be chosen for succinctness and interest. The title page should also contain the name, academic rank, institutional affiliation, and contact information (address, telephone, e-mail) for all authors. In the case of multiple authors, the title page should indicate which author will receive correspondence.
 - Submission Form: All submissions should include this manuscript submission form, available in Word or PDF format. An abstract (200 words) should be included with the submission form.
3. The electronic version of the manuscript should be submitted directly to the managing editor. Please submit properly-formatted electronic manuscripts (a single file containing all parts of the paper) in Microsoft Word.

4. References and Citations:

In text, quotations must correspond exactly with the original in wording, spelling, and punctuation. Short quotations within the text should be noted by quotation marks; longer quotations or extracts should be indented from the left margin and require no quotation marks. Changes and additions to quotations should be identified by bracketing; ellipses [...] should be used to identify omissions; emphasis added should also be indicated. Embedded citations should be used, hence please do not use footnotes for simple citations. All citations should be specified in the text in the following manner:

- (a) If the author is named in the text, cite by year of publication:
 ... Drake (1966) has suggested ...
- (b) If the author is not named in the text, cite by last name, and year of publication:
 ... it has been noted (Fuentes 1979) that ...
- (c) If necessary, pagination should follow the years of publication separated by a comma
 ... it is argued (Lagos 1983, 22) that by ...

- (d) Dual authors should be joined by 'and' multiple authors should be indicated by 'et al.':
 - ... other approaches (Snyder and Diesing 1977, 392) may assume (Alessandri et al. 1971, 217-221).
- (e) If an author has multiple references for any single publications year, indicate specific words by the use of lower case letters and separated by semicolons
 - ... the one hand (Lacan 1974a, 45; Lacan 1974b, 22) ...
- (f) Series of references should be enclosed within parentheses and separated by semicolons; items should be ordered chronologically, by year of publication, and alphabetically within any year:
 - ... proponents of the position (Russett 1981; George 1982; Holsti 1983; Starr 1983) and many ...

The reference section should begin on a new page following the text and any appendices. Works should be listed alphabetically by author, followed by a section listed alphabetically by institution - or title of any material not attributed to any specific author(s). References should conform to the following format:

- (a) References to books should list author(s), year, title, place of publication, and publisher:
 - ... Von Mises, L.(1983), *Nation-State and Economy: Contributions to the Politics and History of Our Time*, Leland B. Yeager(trans.),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 Strunk, W. Jr. and E. B. White(1979), *The Elements of Time*, 3rd ed., New York: Macmillan.
- (b) References to journal articles should list author(s), year, title of article, journal name, volume, number(s) and inclusive pages:
 - ... Lipset, S. Ni(1983), "Radicalism or Reformism: The Sources of Argentine Working-class Politics,"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Vol. 77, No. 2, pp. 1-18.
- (c) References to works in edited volumes should list author(s), year, essay title, volume editor(s), volume title, place of publication, publisher and inclusive pages:
 - ... Weber, M.(1984), "Legitimacy, Politics and the State," in William Connolly(ed.), *Legitimacy and the State*,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pp. 32-62.
- (d) References to monographs in a series should list author(s), year, title, series

title, place of publication, and publisher:

... Fromkin, M.(1986), *The Limits of Recognition, Sanger Series on Law and International Society*, New Haven: Sanger Publishers.

Page proofs will be supplied to the first author of a paper, but only errors in the type setting may be corrected at this stage. Any substantial alterations will be charged to the author(s). Consequently, the author(s) should ensure that the paper is submitted in final form. Proofs should be corrected and returned within seven days of receipt.

Manuscript Formatting Information

<http://www.ajlas.org/>

Review Process

1. Initial Review: Upon receipt of the manuscript, the managing editor or other area specialist will make an initial assessment of the article and ensure that all required information for the submission process has been included. If any information is missing, the reviewer will contact the author.
2. Full Review: After the initial review is completed, an electronic version of the manuscript will be sent out to three reviewers. The authors will receive the reviewer's comments and have an opportunity to make corrections and resubmit.
3. Final Review and Publication: After authors revise and resubmit, the manuscript will undergo a final review prior to publication. The time from submission to final review and publication may be as little as two-three months to as long as a year. Publication dates are April 30, August 31 and December 31. Authors will receive ten off-prints and a copy of the journal in which the article appears.
4. Rejection: This may occur during either the full review or after the final review and publication. Authors will be notified as quickly as possible if their manuscript is rejected so that they may seek publication elsewhere.

Code of Research Ethics

Article 1 (Purpose) The purpose of the Code of Research Ethics is to establish ethical standards to be adopted by all contributors and required for publication in the *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hereinafter “AJLAS”), published by the Latin American Studies Association of Korea (hereinafter “the Association”). The Code of Research Ethics defines what constitutes a case of misconduct and specifies by category different types of research ethics violations. In doing so, the Code of Research Ethics seeks to provide ethical principles and guidance regarding the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all authors, contributors, and members of our Association.

Article 2 (Scope of Application) The Code of Research Ethics applies to all articles submitted to and published in AJLAS, as well as all manuscripts submitted for academic events and conferences organized by the Association.

Article 3 (General Guidelines for the Code of Research Ethics)

- (1) All authors, researchers, and contributors are expected to follow the Code of Research Ethics.
- (2) The Code of Research Ethics applies to all research activities at all stages, including the publication process and the distribution of funding for members of AJLAS and the Association.

Article 4 (Violations of the Code of Research Ethics)

AJLAS regards the following activities as violations of the Code of Research Ethics:

- (1) Plagiarism: Misappropriation of an original author’s ideas, intrinsic content, or research results without the acknowledgment or pre-arranged permission.
- (2) Fabrication and Fraud: Falsification, invention, or manipulation of qualifications, data, sources, results, or citations directly or indirectly used in research.
- (3) Authorship Disputes: Providing false information about a researcher’s affiliation or academic position, granting authorship to individuals who did not contribute to the content or results of the research, or

the failure to grant authorship of a manuscript to individuals who contributed to the content or results of the research, or who made relevant contributions, without justifiable reason.

- (4) Duplicate Submission and Self-plagiarism: Submission of manuscripts describing research results or elements that are essentially the same as those described in another journal or primary publication.
- (5) Other Violations: Any other reports of misconduct judged by the Research Ethics Committee of AJLAS as noticeable misconduct.

Article 5 (Composition of the Research Ethics Committee)

- (1) The members of the editorial board of AJLAS shall serve on the journal's Research Ethics Committee.
- (2) Individuals with conflicts of interest related to any investigation shall be excluded from the Research Ethics Committee.
- (3) The Research Ethics Committee may consult or involve a Latin American Studies Association executive or an external expert in its decision making, dependent on the severity or nature of any violation.

Article 6 (Reporting Violations)

Research ethics violations may be reported in the following ways:

- (1) The Research Ethics Committee may receive reports of misconduct by any available means, such as in writing, by phone, by mail, by email, or through the LASA website. It is acceptable for a proxy to submit a report of ethics violations.
- (2) Reports of misconduct should be made by an informant using his/her real name. Anonymous allegations of misconduct may not be considered. However, if specific information and substantiated evidence related to a claim of misconduct are submitted, anonymous reports will be accepted.

Article 7 (Investigative Process and Vindication)

Research ethics violations may be reported in the following ways:

1. The Research Ethics Committee will convene and initiate an investigation within two weeks of any report of violations being filed.
2. The Research Ethics Committee is obligated to gather sufficient evidence of specific misconduct in order to verify the validity of the report.
3. Under no circumstances shall any personal information regarding the

person(s) who report violations be published. The committee should take all necessary measures to protect the informant from negative repercussions or possible external pressures.

4. The person(s) concerned will be informed of the allegation in writing or by meeting with the Research Ethics Committee in person. The committee shall ensure that the person(s) concerned are given an opportunity to express their opinions, objections, and arguments.
5. The Research Ethics Committee will keep confidential the identity/ies of the person(s) concerned and ensure that the person(s) concerned experience no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until the suspected misconduct has been verified.
6. All details of the investigation, including reports, deliberations, decisions, and suggested measures, shall be kept confidential. Individuals who take part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investigation shall not disclose any information during the execution of the investigation or related tasks.
7. The Research Ethics Committee shall notify the person(s) concerned of both the content and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before the final decision is made. All parties and persons related to the allegation will be given sufficient opportunity to respond.
8. The committee shall notify the informant and the person(s) concerned after a decision regarding the investigation has been made by vote. For a vote to be executed successfully, more than two-thirds of the currently registered members and a majority vote of the members in attendance are required.
9. The results of the ethics violation investigation must be reported to the board of the Association, and all records, including relevant documentation, evidence, and lists of individuals involved, shall be provided.

Article 8 (Measures after Verification) If it is determined by the Research Ethics Committee that there is an actual violation of the Code of Research Ethics, disciplinary measures will be taken based on the severity of violation. These are as the following:

- (1) The authors' institutions and sponsors will be notified of the violation of the Code of Research Ethics.

- (2) The authors will be prohibited from submitting manuscripts to any publication related to the Association and to AJLAS for three to five years.
- (3) Published papers will be removed from AJLAS and from the Association's digital archive and members will be informed of the reasons for this decision.
- (4)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will be reported to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according to that foundation's management guidelines for scholarly journals.

Addendum

1. This Code of Research Ethics took effect on October 1, 2008, when it was first established.
2. This Code of Research Ethics was revised on October 10, 2020.
3. Matters not specified in this Code of Research Ethics may be discussed and decided by the editorial board.

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Information regarding the Submission of Manuscript

About the author:

1. Name:
2. Title and institution:
3. E-mail address:
4. Telephone number:

About the manuscript:

1. Title:
2. Five Keywords:
3. Abstract (200 words):

Submission date:

- * I certify that the manuscript represents original and valid work and that neither this manuscript nor one with substantially similar content under my authorship has been published or is being considered for publication elsewhere. If requested, I will provide the data or will cooperate fully in obtaining and providing the data on which the manuscript is based for examination by the editors or their assignees.
- ** For papers with more than 1 author, I agree to allow the corresponding author to serve as the primary correspondent with the editorial office, to review the edited typescript and proof.
- *** Contributor's Qualification: All contributors must have at least a master's degree in order to submit a manuscript.
- **** More information about the formatting and submission of manuscripts is available at: <http://www.ajlas.org>

The 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AJLAS)

The 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AJLAS) is an academic journal for discussion and debate on the subjects of Latin American affairs and comparative perspectives between Asian and Latin American Societies. The AJLAS has been published by the Latin American Studies Association of Korea (LASAK) since 1988. Published four times a year in February, May, August and November, AJLAS seeks to stimulate and disseminate research and scholarship in a broad sense of Latin American Studies. The scope of the AJLAS covers all areas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including economics, political science, international relations, philosophy, history, sociology, geography, anthropology and literature. Articles with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are especially welcome.

1986년 창립된 이후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Latin American Studies Association of Korea)는 국내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와 학회지 발간을 비롯한 학술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왔다. 본 학회의 설립 목적과 그에 따른 실천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라틴아메리카 지역연구의 현안과제를 수행하며 학문의 사회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실문제의 접근을 꾸준히 시도한다.(예, 2000년도 국제학술대회 개최 “21st century challenge to Latin America and new perspectives”)

둘째, 라틴아메리카연구의 학제적 연구 풍토 조성 및 강화에 힘쓴다. 특히 현 단계 학문 특성에 맞는 학제적 연구 풍토를 진작시키는 한편 지역연구의 핵심과제인 비교연구를 촉진한다.(2004-2006년 학술진흥재단 프로젝트 “문화적 저항과 새로운 연대: 민주화이후 라틴아메리카의 인권”)

셋째, 세계화 추세에 부응하여 한국 라틴아메리카연구의 국제적 활동을 도모하고 학회의 세계적 위상을 진작시킨다.(예, 2007년 ‘범아시아오세아니아 라틴아메리카학회(CELAO)’ 행사 주관)

넷째, 라틴아메리카 지역 연구의 다양화 및 다변화를 추구한다. 연구인력의 분업화와 연구주제에 대한 심층적인 접근을 위해 각종 연구분과 위원회를 활성화하여 공동연구의 기반을 조성한다.(예, “인문사회분과”, “정치외교분과”, “경제경영분과”의 전공분야별 분과 세미나 운영)

이와 같이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는 국내에서 라틴아메리카 지역연구를 체계적, 지속적으로 수행해온 유일한 전국적 학술단체이자, 라틴아메리카의 역사, 문화, 문학, 사회, 정치, 경제 등 모든 인문사회 학문분야에 있어 국내 최고의 학자들이 모인 전문가집단이다.

학 회 안 내	
학회 연회비 납부	우리은행 1002-563-092001 (예금주: 전주람) • 연회비: - 정 회 원 5만원 - 종신회원 50만원 - 대학원생 3만원
논문 게재료 납부	KB국민은행772001-04-257034 (예금주: 박구병(AJLAS)) • 게재료: - 전임/연구비논문 30만원 - 비전임 10만원
학술지 논문 투고처 및 출판관련문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206 아주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우편번호 16499) 전화: 031-219-2836 E-mail: lasak@naver.com Homepage: http://www.ajlas.org
학회 총무이사	임수진, 박경은, 이승호 대표 주소: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하양로13-13 대구가톨릭대학교C7 성예로니관3층331호 (우편번호 38430) 전화: 053-859-4968 E-mail: lasakorea@gmail.com
학회홈페이지 학술지 아카이브	https://lasakorea.co.kr/ http://www.ajlas.org

『라틴아메리카연구』 (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편집위원회

■ 편집위원장

박구병 (아주대 사학과)

■ 편집위원

김영석 (계명대 스페인어중남미학과, 경제)

김영석 (계명대 스페인어중남미학과, 경제)

노용석 (부경대 국제지역학부, 인류)

박정원 (경희대 스페인어학과, 문학)

오삼교 (위덕대 경찰행정학과, 정치-국제관계)

우석균 (서울대 라틴아메리카연구소, 중남미 문화-문학)

이미정 (한국외국어대 중남미연구소, 경제지리)

임태균 (서울대 라틴아메리카연구소, 사회)

최해성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국제관계사)

하상섭 (한국외국어대 중남미연구소, 국제정치경제)

Gian Luca Gardini (School of Business, Economics and Society, Friedrich-Alexander-Universität Erlangen-Nürnberg)

Gioconda Herrera (Departamento de Sociología y Estudios de Género, FLACSO Ecuador)

Guillermo Salas-Carreño (Departamento Académico de Ciencias Sociales- Sección Antropología, Pontificia Universidad Católica del Perú)

Jie Guo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Peking University)

Jonathan Brown (Department of History,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Junyoung Veronica Kim (Department of Hispanic Languages & Literatures, Univ. of Pittsburgh)

Nobuaki Hamaguchi (Research Institute for Economics and Business Administration, University of Kobe)

Su-Jin Lim (Facultad de Ciencias Políticas y Sociales, University of Colima)

■ 편집이사

정호윤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오인혜 (전북대학교 스페인중남미학과)

■ 편집간사

정호윤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오인혜 (전북대학교 스페인중남미학과)

필자소개(집필순)

김유경	전북대학교 스페인·중남미연구소
손혜현	고려대학교
이은아	서울대학교
정승희	고려대학교
최영균	예일대학교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지 제38권 3호
라틴아메리카연구(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2025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인 강경희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제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전화: 064-754-2956

편집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우편번호 16499)
전화: 031-219-2836
E-mail: lasak@naver.com
Homepage: <http://www.ajlas.org>

발행처 스마일기획
08839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12길 18
전화 02-874-1911
E-mail: smilework@naver.com



www.eaerweb.org

Call for Papers for the East Asian Economic Review

With great pleasure, the *East Asian Economic Review* is welcoming submissions.

AIMS and SCOPE

The *East Asian Economic Review* is an economic journal, for the promotion of interdisciplinary research on international economics. Published as a quarterly by the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a Korean government-funded economic think-tank, the Journal is global in perspective and covers both theory and empirical research.

The Journal aims to facilitate greater understanding of all issues pertinent to diverse economies of East Asia through publication of rigorous analyses by renowned experts in the field. The EAER connects policy and theory, providing empirical analyses and practical policy suggestions for the economies in the region.

TOPICS COVERED

The *East Asian Economic Review* brings together articles from many different realms of economics at both regional and global levels. Issues relevant to East Asia's diverse economy are the major focuses. Specific areas of interest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 Trade and Investment Issues
- Economic Integration
- APEC
- ASEAN
- ASEM
- International Finance
- Liberalization of Financial Services and Capital
-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Korean Unification

EAER Abstracting and Indexing Services

The *East Asian Economic Review* is indexed and abstracted in EconLit, e-JEL, JEL on CD, OCLC WorldCat, ProQuest, Google Scholar, ECONIS, EconBiz, EBSCO, British Library, SSRN, RePEc, Emerging Sources Citation Index (ESCI), Directory of Open Access Scholarly Resource (ROAD) and registered to Ulrichsweb, ITS-MARC, CrossRef, ORCID, SHERPA/RoMEO and Korea Citation Index.

NOTE FOR AUTHORS

SUBMISSION GUIDELINE:

Refer to our website www.eaerweb.org and Click "Submission" menu at the top of the main page.

SUBMISSION DEADLINE:

The Journal is published every March, June, September and December of each year and submissions are accepted for review on an ongoing basis (No specific deadline).

REVIEW PROCESS:

We have introduced a "fast-track" system, which takes four to five weeks on average from submission to the first round review in order to provide quick and authoritative decisions to the authors. In general, the Journal's manuscript decision process includes submission, editorial decision on whether the paper should be reviewed, peer review, decisions after review, revision, acceptance in principle, final submission and acceptance, proofs, advance online publication, and print publication.

For further information regarding submission,

Contact EAER Editorial Office:

[30147] 3rd Floor, Building C,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Korea.

Tel: 82-44-414-1171/1251 FAX: 82-44-414-1044

Email: eaer@kiep.go.kr

Website: www.eaerweb.org

AWARD FOR EAER

The *East Asian Economic Review* Award is given annually to articles that have made exemplary contributions to advance the public as well as academic understanding of international economics. Every article published in the Journal is given an honorarium of KRW 2,500,000; and annual nominations for the outstanding and noteworthy articles include KRW 5,000,000 prize and a detailed nomination statement describing how the selected papers have contributed to the knowledge of international economics